

# 韓國書院學報

제 8 호

韓國書院學會  
2019. 6





차례

■ 일반논문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건립 활동 ..... 권시용 / 5

칠곡 인동장씨 정사·서당·서원 건립 활동과 성격 ..... 이해준 / 49

‘향(鄉)’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 ..... 한재훈 / 65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 채광수 / 91

■ 부록

문경(聞慶) 근암서원(近嶽書院) 소장 자료 해제 ..... 129

『근암서원사적(近嶽書院事蹟)』 영인 ..... 141

후보 ..... 163

---

Contents

Seowon Establishment Activities of the Toegye's Students  
.....Kwon, Shi-Yong / 5

The Indong Jang' s monastery(精舍) · academy(書院) · school(書堂)  
establish activities and character of Chilgok ..... Lee, Hae-Jun / 49

Toegye'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Hyang(鄉)  
..... Han, Jae-hoon / 65

Distribution of the Noron-line family in the Youngnam Area and  
Trend of Establishing Seowon ..... Chae, Gwang-su / 91

Supplement ..... 129

Bulletin ..... 163

# 16-17세기 초반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권시용\*\*

- 
1. 머리말
  2. 퇴계의 서원 확산 노력
  3.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4.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퇴계 이황과 그 문인들이 조선시대 서원의 확산에 기여한 점을 살펴본 것이다. 퇴계 이황은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욕적인 신진사람들에게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시켜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가올 사림의 시대를 준비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서원에 주목했으며 그의 문인들과 더불어 서원 보급에 노력하였다. 퇴계문인들은 출세주의공리주의에 매몰된 관학에 대한 비판 위에서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서 서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승인 퇴계의 서원 보급에 동참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두 56명의 문인들이 43개소의 서원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보면 전국적으로 건립된 서원의 절반 이상에 이들이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관으로 나간 문인들의 서원 건립이 두드러진다. 모두 17명의 문인들이 지방관으로서 22개소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다. 초기 서원건립에 있어 지방관의 역할이 상당하였음을 고려하면 각 지역으로 부임해 나간 이들의 서원 건립 노력은 조선 서원의 확대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광해군대까지 건립된 서원의 55.2%에 퇴계 문인들이 관여하였으며, 임란이전까지는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경상도 지역의 서원 건립에 있어 퇴계문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나타낸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상도에 비해 퇴계문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부분 임란 이전에 관계한 사례였다. 이처럼 퇴계와 그의 문인들은 조선에서 서원제도가 도입되던 시기에 그

---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인 『퇴계문인의 서원건립활동』(영남대학교 대학원, 2009)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hiyongs@naver.com

보급과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이황, 서원보급, 퇴계문인, 사림, 성리학

##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조선 서원의 시작으로 풍기군수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건립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선 서원의 典型은 퇴계 이황에게서 비롯되었다. 퇴계는 풍기군수 시절 백운동서원의 賜額을 요청하여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의 공인을 받고, 사림에 의한 서원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였다. 풍기군수를 사임한 퇴계는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에 집중하였다. 한편으로는 유생들의 강학과 藏修를 위한 서원 건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실제 퇴계는 예안현 일대의 伊山書院과 易東書院의 건립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여타 지역에서 건립되는 서원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러한 퇴계의 서원보급운동 및 서원론(서원교육론)에 관련된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어왔다.<sup>1)</sup> 그러나 서원보급운동 과정에서의 퇴계 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sup>2)</sup>

실제 퇴계가 직접 건립에 관여할 수 있었던 서원은 안동·예안을 중심으

- 1) 송공섭, 「퇴계의 서원교육론 고찰」, 『한국의 철학』 2,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4; 이우성, 「이퇴계와 서원창설운동-이조 성리학의 토착화와 아카데미즘」, 『퇴계학보』 19, 퇴계학연구원, 1978;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78; 정순목, 「퇴계의 서원교육론고」, 『퇴계학보』 19, 퇴계학연구원, 1978;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1986; 정순목, 「주희암과 이퇴계의 서원교육론 비교」, 『인문연구』 8,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퇴계학보』 53, 퇴계학연구원, 1987; 정만조, 「조선서원의 성립과정-중종 연간 사림을 위한 교학진흥책과 관련하여」, 『한국사론』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론-그의 교화론과 관련하여」,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박양자, 「퇴계의 서원교육의 특성」, 『퇴계학과 남명학』, 지식산업사, 2001.
- 2)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경북대 퇴계연구소에서 간행한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보고서, 2004)가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서원연구에서는 퇴계의 서원론을 다루면서 문인들의 서원 관련 사실들이 일부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로 한 범안동권에 한정된다. 퇴계의 나이와 건강, 그리고 당시의 교통, 통신과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먼 지역에서 건립되는 서원을 직접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인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서 서원건립에 나서기도 하고, 건립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때 그들은 스승인 퇴계를 직접 찾거나 또는 서신을 통해 조언을 구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퇴계가 생각한 서원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애썼다. 퇴계 문인들은 퇴계의 서원보급운동을 함께 추진해 간 동지였으며, 퇴계 사후에도 퇴계가 생각하고 있던 서원이 전국으로 보급될 수 있게 한 메신저였다.

이에 퇴계와 그의 문인들에 의해 조선 서원의 전국적인 보급과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퇴계의 서원론에 공감하고 서원보급에 동참하였던 퇴계문인들의 서원건립에 대해서는 구체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퇴계의 서원관에 공감하여 서원보급운동에 동참했던 퇴계 문인들의 서원 건립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초기 서원 건립과정에서 퇴계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퇴계의 서원 확산 노력

퇴계의 서원 제도에 대한 관심은 당시의 정치 및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 기묘사화를 목격하였으며, 명종 초의 을사사화에는 그 자신이 커다란 고초와 시련을 경험하였다. 특히 도학정치를 통한 삼대의 지치를 실현한다는 조광조의 도학정치론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君德의 성취를 우선으로 추구했던 기묘사람들의 처세에 대해서는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sup>3)</sup> 그것은 동시에 君德의 성취를 자신하지 못

3) 『退溪先生文集』卷9, 「答朴參判書」, 「獨不見博者乎 一手虛著 全局致敗 … 況近世士林之禍 率因虛著而作 覆車在前 故踵後者尤難進步 … 愚意嘗謂己卯領袖人 學道未成而

했던 퇴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곧 임금의 성취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기도 했으며, 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 정치 환경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이에 퇴계는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욕적인 신진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는 향촌을 단위로 하여 향민을 교화하고, 이를 통해 사족 중심의 治化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정치적 입장을 전환하였다. 즉 향촌사람들에게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시켜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가올 사림의 시대를 준비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간으로서 書院에 주목했다.

한편 퇴계가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서 기존의 성균관과 향교가 아닌 서원에 주목한 것은 당시의 官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작용한 때문이다. 당시 교육기관으로서는 중앙에는 성균관이, 매 군현마다 향교가 있었지만, 이미 향교와 국학은 과거와의 관련에서 출세주의, 공리주의로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참다운 공부와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향교와 국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서원이야말로 성리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4)</sup>

조선에서 서원제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초기 상황에서 퇴계가 서원보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일단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퇴계 생전에 건립된 서원을 정리한 것이다.

---

暴得大名 遽以經濟自任 聖主好其名而厚其責 此已是虛著取敗之道 又多有新進喜事之人 紛紜鼓作 以促其敗勢 使讒者得售其術 恐此當爲踵後者之至戒 不可忽也’.

4) 이우성, 「퇴계선생과 서원창설운동」, 『퇴계학보』 28, 퇴계학연구원, 1980.

〈표 1〉 퇴계(1542-1570) 생존 당시 건립된 서원

서원	지역	건립	사액	제향인물 (제향시기)	건립관련 퇴계문인
紹修書院	경북 순흥	1542(중종37)	1550(명종5)	安珣(1543)	
象賢書院	충북 보은	1549(명종4)	1610(광해2)	金淨(1549)	
首陽書院 (文憲書院)	황해 해주	1549(명종4)	1550(명종5)	崔冲(1549) 崔惟善(1549)	
濫溪書院	경남 함양	1552(명종7)	1566(명종21)	鄭汝昌(1552)	朴承任
臨臯書院	경북 영천	1553(명종8)	1553(명종8)	鄭夢周(1555)	鄭允良, 金應生 盧遂
白鶴書院	경북 신녕	1555(명종10)			黃俊良
五峰書院	강원 강릉	1556(명종11)		孔子(1556)	崔運遇
氷溪書院 (長川書院)	경북 의성	1556(명종11)	1576(선조9)	金安國(1556) 李彦迪(1556)	申元錄
伊山書院	경북 영주	1558(명종13)	1574(선조7)	李滉(1574)	許忠吉, 朴承任, 張壽禧, 金玔, 金隆, 李德弘
迎鳳書院 (川谷書院)	경북 성주	1558(명종13)	1560(명종15)	金宏弼(1560) 程子(1573) 朱子(1573)	黃俊良, 金宇顙, 鄭述
西岳精舍 (西岳書院)	경북 경주	1561(명종16)	1623(인조1)	金庚信(1563), 薛聰(1563) 崔致遠(1563)	李楨
研經書院	경북 대구	1563(명종18)	1660(현종1)	李滉(1613)	李叔樑
文會書院	함경 함흥	1563(명종18)	1576(선조9)	孔子(1563)	
玉川書院	전남 순천	1564(명종19)	1568(선조1)	金宏弼(1564)	李楨, 奇大升
仁賢書院	평안 평양	1564(명종19)	1608(선조41)	箕子(1576)	
禮林書院	경남 밀양	1567(명종22)	1669(현종10)	金宗直(1567)	裴三益
玉洞書院	함경 안변	1567(명종22)	1592(선조25)	李繼孫(1567)	
易東書院	경북 예안	1570(선조1)	1684(숙종10)	禹倬(1670)	金生溟, 琴輔, 金富弼, 金富儀, 金富倫, 趙穆, 琴應爽, 琴蘭秀, 朴士熹, 李德弘, 琴應商, 李叔樑, 李甯, 李完

퇴계 생전에 건립된 서원은 모두 18개소가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퇴계 본인 및 그의 문인들이 건립에 관여하였던 서원은 13개소이다. 나머지 5곳의

서원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와 같이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건립되었고, 이를 제외한 경상도 지역에서 건립된 모든 서원에는 퇴계와의 관련성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퇴계의 서원건립 또는 관심을 설명할 때 「書院十詠」을 들고 있다.<sup>5)</sup> 이 가운데 퇴계와 직접 관련된 서원은 이산서원, 영봉서원, 역동서원이다. 이들 서원은 모두 퇴계 자신이 ‘院記’를 지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산서원은 퇴계가 「이산서원기」와 「이산원규」를 지었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기울인 서원이었다. 특히 「이산원규」는 이후 건립되는 경상도 지역 서원 원규의 모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퇴계문인 가운데는 張壽禧가 이산서원 건립에 직접 관여하였다. 장수희는 이산서원 건립을 직접 주관하였고, 서원 규모와 절목 등을 모두 퇴계에게 물어서 정하였다고 한다.<sup>6)</sup>

영봉서원은 1558년(명종 13) 성주목사 盧慶麟이 성주지방 사림과 合謀하여 1559년(명종 14)에 건립하였다. 서원 건립 당시 노경린은 퇴계에게 記文과 현판 글씨를 청하였다. 이에 퇴계는 「영봉서원기」를 지었으며, 특히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제향인물의 당부와 위치 문제에까지 깊이 관계하였다. 또 그의 문인인 黃俊良, 鄭述 등도 서원건립과 시비에 관여하였다.<sup>7)</sup> 한편 영봉서원은 제향인물을 둘러싼 분쟁의 결과 川谷書院으로 개명하였는데, 이때에도 퇴계는 서원의 改享, 改號의 문제에서부터 세밀한 절목에 이르기까지 자문을 해주었다.<sup>8)</sup>

5) 이황이 65세에 찬한 ‘서원십영’은 초기 서원 9개소에 대한 찬사이며, 제10수는 총론서원이라 하여 서원 자체를 시평하였다. 풍기 紹修書院, 영천 臨臯書院, 해주 文憲書院, 성주 迎鳳書院(川谷書院), 강릉 五峯書院(丘山書院), 함양 藍溪書院, 영주 伊山書院, 경주 西岳精舍(西岳書院), 대구 研經書院(畫巖書院)이 바로 서원십영에 등장하는 9개소 서원이다.

6) 『陶山及門諸賢錄』, “伊山書院之創 公實主之前後幹事 十二年立規模 瞻供億凡節目 皆稟定於先生詳載” .

7) 영봉서원 건립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은 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교육)론」,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1981)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8) 『退溪先生續集』卷5, 「答川谷書院諸君書」.

역동서원의 건립에는 퇴계의 건립의지가 직접적으로 작용했다. 퇴계는 일찍이 예안에 寓居한 바 있는 禹倬의 학문과 절의가 후학의 사표가 될 만하다 하여 서원 건립에 나섰다.<sup>9)</sup> 역동서원의 건립에는 퇴계를 비롯하여 예안지역 퇴계문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확인된다. 퇴계는 역동서원의 건립에 있어 서원 터의 물색부터 관여하였으며, 서원기를 짓고 서원 명호 및 각 祠, 堂, 齋, 門의 편액을 정하였다.<sup>10)</sup> 또 역동서원 건립을 전후하여 서원의 講學에 필요한 經書類를 수집하여 보내주기도 했으며,<sup>11)</sup> 역동서원이 낙성되자 친히 제생과 더불어 『心經』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한편 퇴계문인들은 예안현감에게 서원건립 문제를 적극 건의하여 협조를 얻어 내고, 교대로 건립을 감독하였으며 전답이나 곡물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sup>12)</sup>

다음으로 퇴계는 각지에서 이루어진 문인들의 서원건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초창기 서원 건립에 있어서 퇴계 문인들의 역할은 상당했다. 퇴계 생전에도 문인들은 퇴계의 서원 건립을 직간접으로 지원하였고, 또 한편으로 향리나 지방관으로서 부임지 등에서 서원 건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때 문인들은 서원 건립을 추진하는 동안 스승인 퇴계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건립에 필요한 기문, 액호, 서적 등을 청하기도 했다.

임고서원은 퇴계문인인 盧遂, 金應生, 鄭允良 등이 주도하여 건립되었다.<sup>13)</sup> 서원이 완성된 후 노수 등은 그곳에 장서할 목적으로 널리 서적을 구하였다. 그 와중에 노수가 서울에 가서 서적을 구하였고, 당시 퇴계는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다. 노수가 장서를 구할 목적으로 스승을 찾아오자 흔쾌히 임금이 하사한 성리서를 내어주었다.<sup>14)</sup> 또 제향인물인 정몽주의 도학

9) 『退溪先生文集』卷23, 「與趙士敬書」, 「吾鄉先正如禹祭酒風節 東方古今 豈可多得 立學祀賢 既昉於世 而吾鄉獨闕 此吾輩之恥也 公與聞遠 有所興慕 而至相與覓地指擬 此意甚可尙也」

10) 『退溪先生文集』卷42, 「易東書院記」.

11) 퇴계가 역동서원에 수집해 보내 준 서적들에 대해서는 ‘李春熙 편, 『李朝書院文庫目錄-李朝書院文庫考』, 대한민국국회도서관에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12) 琴輔, 『梅軒集』卷2, 「易東書院記事」.

13) 『臨臯書院誌』, 1968.

14) 『退溪先生文集』卷43, 「內賜性理羣書, 付盧上舍(遂)俾藏圃隱書院識」, 「永川盧上舍遂

을 칭송하는 제문을 짓기도 하였다.<sup>15)</sup> 강릉의 오봉서원은 咸軒이 지방 유림과 더불어 논의하여 1556년(명종 11)에 건립한 것이다.<sup>16)</sup> 오봉서원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함현은 퇴계와 함께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한 인연이 있다. 『오봉서원실기』에 의하면 함현이 오봉서원의 서원도를 그려 가지고 퇴계에게 아뢰니 퇴계가 시를 지어 보냈다는 내용과 퇴계에게 丘山書院圖와 創建首末을 편지로 보내서 書院記를 써서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서원기는 병으로 사양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오봉서원 창건시 함께 발의했던 崔運遇는 퇴계문인이었다.<sup>17)</sup>

경주 서악정사는 1561년(명종 16) 경주부윤으로 있던 李楨의 주도하에 건립되었는데, 1623년(인조 1) 서악서원으로 사액되었다. 당시 이정은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면서 서악정사 건립과 향사, 건물의 액호 문제와 성리학 관련 도서관행 문제를 두고 퇴계의 교시와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다.<sup>18)</sup>

대구 연경서원은 1563년(명종 18) 지역 사람들의 공의로 그 건립이 논의되어 이듬해 3월에 상량되었고, 1565년(명종 20) 10월에 완공되었다. 연경서원의 건립에는 퇴계 문인 중 李叔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숙량은 고을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서원건립을 주관하였으며, 서원이 완공된 뒤에는 서원건립의 내력을 써서 퇴계에게 기문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퇴계는 이숙량의 기록이 사실을 자세히 서술하고 그 끝에 의론도 역시 조리가 있어서 이미 기문을 쓴 것이라고 칭하며,<sup>19)</sup> 약간 수정하여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그

---

與金上舍應生 鄭秀才允良 於圃隱鄭先生舊居 倡構書院 垂成 盧君爲來京師 博求書籍 滉甚嘉其志而慕其事 顧旅寓蕭然 無他書可以相副 謹以頃所受內賜性理羣書一帙贈之 或以君賜與人爲疑 噫 爲書院奉藏書 一以爲先賢 一以爲後學 與人云乎哉’.

15) 『退溪先生文集』卷45, 臨臯書院成祭鄭文忠公文」.

16) 『五峯書院實記』, “明宗大王七年壬子 七峯咸公軒 以書狀官朝 皇明以千金購得吳道子所摸 孔夫子眞像而歸 十年乙卯咸公 以利川府使 病退 爲本府教授 是年秋 秀林崔壽 蔭廣川崔運遠 香湖崔運遇 往訪語及我國西南多建書院 吾鄉素稱文憲 盍亦建乎 咸公欣然曰 今日是議不可緩也 遂相地于邱山南澗又與前教授崔德岑進士權大均生員沈淹偕往卜基 稟告于府使洪公春年 議換基田 洪候卽牒許 以官屬吳少年者定院直 又白監司西林尹公仁怒 咸公遂發求助書于鄉中’.

17) 崔雲遇, 『香湖集』, 「年譜」, 「五峯書院創建事實」.

18) 이수건, 「구암 이정 의 가계와 생애 및 ‘退南’과의 관계」, 『안동사학』 제9·10집, 2005.

전에 지어놓았던 「서원십영」 가운데 연경서원을 노래한 시를 덧붙여 보냈다.

퇴계는 전라도 순천의 옥천서원 건립에도 관여하였다. 1564년(명종 19) 문인인 이정이 전라도 순천부사로 재임 중 옥천정사를 건립하였을 때, 퇴계는 재호와 편액을 쓰거나 지어 주었다. 당시 이정은 순천부사로 2년여 재직하면서 金宏弼과 曹偉의 유적을 탐방하여 臨淸臺를 수축하고 김굉필의 유문과 사적을 수집, 정리하여 퇴계의 도움과 교시를 받아 『景賢錄』을 편간하기도 하는 등 선현봉사와 지방자제 교육을 장려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그 밖의 서원에서도 퇴계의 건립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1567년(명종 22) 밀양에 김종직을 제향하는 예림서원이 건립되었다. 이 예림서원의 건립에서도 간접적이거나 퇴계의 관련성이 추측된다. 당시 밀양에는 퇴계 문인인 裴三益이 密陽教授로 나가 있었다. 배삼익은 1566년(명종 21) 퇴계에게 편지하여 김종직을 立祠하는 일에 대해 자문했다.<sup>20)</sup> ‘점필재의 행실은 후세에 의논이 없을 수 없다’고 한 남명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 퇴계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물음에 대해 퇴계는 남명의 비판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김종직이 綱常을 扶植함이 많으니 서원을 건립하고 사당을 세우는 일에 무리가 없다고 답하며, 서원을 완성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sup>21)</sup> 이에 예림서원은 김종직을 제향하여 이듬해에 건립되었다.

함양의 남계서원 건립에는 문인인 박승임이 참여하고 있었다.<sup>22)</sup> 『남계서원지』에 의하면 1552년(명종 7) 姜翼이 朴承任, 盧祿, 鄭復賢, 林希茂와 상의하여 서원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서원 건립에는 약 10년이 소요되었는데, 군

19) 『梅巖先生文集』 卷1, 「書李大用研經書院記後」, ‘時出而讀之 愛其文清而瞻婉 而正敘事詳而記勝 實其終之議論 亦有理趣 非所謂錄也 乃記也’.

20) 裴三益, 『臨淵齋集』 卷5, 年譜, ‘正月上書退溪先生 論佔畢齋立祠事’.

21) 『退溪先生文集』 卷35, 「答裴汝友書」, ‘佔畢翁果有如南冥所云 然亦甚有扶植處 何可深斥 作院立祠 正不可不爾也 幸勿疑貳 勸卒成之爲佳’.

22) 『藍溪書院誌』 卷1, 「書院事實」, 國립중앙도서관소장, ‘世宗皇帝嘉靖三十一年(明宗大王7年)壬子, 介菴姜翼 與朴君承任 盧從菴祿 鄭梅村復賢 林君希茂 相議曰 吾鄉乃一蠹先生之鄉 而先生之歿已至五十年 尙無建院立祠之舉 實吾鄉之差 咸曰然 乃創立書院是時也…’.

수 尹確의 지원을 받아 1559년(명종 14) 원역을 마쳤으며 1561년(명종 16) 廟宇를 완공해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했다고 한다. 이후 1564년(명종 19) 군수 金宇弘의 지원으로 東西齋를 건립했고, 1566년(명종 21) 藍溪書院으로 사액되었다. 이처럼 남계서원의 건립은 지역 사림과 지방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다.<sup>23)</sup>

이같이 남계서원에도 퇴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1562년(명종 17) 만들어지는 院規가 그것이다. 당시 강익은 「諸生通讀之規」를 정했다<sup>24)</sup>고 하는데, 『남계서원지』에서 확인되는 남계서원의 원규는 서원 수리 및 謁廟 복장을 규정한 2개조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퇴계의 「伊山院規」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강익이 원규를 정한 이 시점은 퇴계가 「이산원규」를 작성한 직후였다. 남계서원이 건립되는 시기는 조선에 서원이 들어서기 시작한 초기상황이었는데, 서원건립이 논의되던 시기에는 불과 소수서원만이 건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계서원의 건립이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려 퇴계와 그 문인들에 의해 서원건립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익은 서원 건립에 있어 퇴계의 문인인 박승임과 상의하였을 것이며, 박승임을 통해 서원과 관련한 퇴계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그리하여 원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퇴계의 이산원규를 따랐던 것이다.

퇴계는 신진사림의 강화 장수처로서 서원에 주목하였고, 서원의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원기」, 「원규」를 지어 서원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하고, 앞으로의 서원 운영을 위한 기초를 세웠다. 퇴계가 서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보급에 진력하고 있을 무렵 그 문인들도 스승의 사업에 공감하고 동참하였다. 당시 경상도에서 건립된 13개 서원은 퇴계 본인이 직접 또는 그 문인들을 매개로 하여 영향력을 미쳤다. 이는 서원 건립에 대한 퇴계의 열정을 보여 주는 사실이며, 더불어 이 사업에 있어서 퇴계문인들의

23) 송준식, 「남명학파의 서원건립 운동」,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03.

24) 姜翼, 『介庵集』, 연보.

구체적 역할이나 그 참여 형태,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Ⅲ.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활동

퇴계문인들의 서원 건립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대상이 되는 퇴계문인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학파는 철학적 근본 입장의 공통성에 기반한 학풍이 지속되고, 학맥의 師承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유학사에서 퇴계 이황은 독보적 위치를 점했으며, 많은 후학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師承관계의 학맥을 유지해가며 퇴계의 학풍을 계승하여 다양하게 전개시켜 갔다. 이에 퇴계의 학맥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면서 ‘퇴계학파’를 형성하였다.

퇴계가 서원 보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무렵, 그의 문하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퇴계는 고향인 안동·예안을 위시한 영남 지역 뿐 아니라 관직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의 인물들과 교유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문인임을 자처하였다.<sup>25)</sup> 본고에서는 퇴계학파 중에서도 급문제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陶山及門諸賢錄』 소재 퇴계문인을 기본으로 하였다. 『급문록』에는 총 309명의 퇴계문인이 실려 있다.<sup>26)</sup>

25)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pp.339~343.

26) 『급문록』 소재 문인들의 숫자나 학통계승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김종석은 309명 중 42명만을 학통제자로 분석하였다. 그는 퇴계라는 인물을 흠모하거나 사숙한 제자가 아닌, 퇴계의 학문 정신과 퇴계학의 주요 이론을 학문적 바탕으로 한 제자를 학통제자로 보고, 『급문록』과 문인들의 개인 문집에서 師承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그 범위를 최대한 압축했던 것이다.(김종석, 「도산급문제현록과 퇴계 학통제자의 범위」, 『퇴계문하의 인물과 사상』, 예문서원, 2000) 한편 이수건은 영남학파의 확립과정을 밝히면서 309명의 퇴계문인을 출신지역과 주요 성관별로 구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대 퇴계문인은 거의 전국을 포괄할 정도로 분포지역이 광범위했으며, 지역에서는 지연·혈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학문적인 사우원원관계를 서로 전수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급문록』에 실린 문인에 대해 당시의 ‘사제관계’의 관념을 미루어 볼 때 상당한 근거를 갖고 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書院과 祠宇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둘은 건립목적, 사회적 기능, 제향인물 등에서 구분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서원과 사우의 건립추이에 대한 연구들에서 양자에 대한 이해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sup>27)</sup> 그렇지만 적어도 17세기 이전의 서원과 사우에 대한 이해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퇴계문인들이 활동한 시기는 늦어도 17세기 초반까지이므로,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원과 사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구별을 전제로 서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1) 건립추이

조선시대에 건립된 서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퇴계의 적전문인이 활동하였던 광해군대까지로 한정하면, 이 시기 전국적으로 모두 125개소의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를 지역적으로 보면 경상도 49개소, 전라도 26

---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상과 같이 퇴계학과, 그 중에서 『급문록』 소재 인물들의 퇴계문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연 『급문록』의 309명을 모두 퇴계 직전문인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보다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직전문인의 범위를 한정시켜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7) 정만조는 17세기 이전의 서원과 사우는 엄격히 구별된 존재이며 서원이 우월한 존재였음을 인정하지만, 17~18세기 이후 건립되는 서원은 본래의 일차적 기능인 藏修와 講學보다는 부차적이었던 祀賢의 기능이 도리어 더 강조되어 그 기능이 사우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서원·사우의 구별이 불분명해져서 마침내는 사우로 불려야 마땅할 것도 서원이라 불리어지면서 서원과 사우가 혼효되어 하나가 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17세기 이후부터는 둘 사이의 구분이란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특히 사람의 건립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 서울대학교 한국사학회, 1975) 이와는 달리 전용우는 '비록 17~18세기에 서원·사우가 크게 남설되었다지만 본래 그 설치목적과 기능, 비중이 달랐던 양자가 똑같은 추세로 남설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에 서원의 제향적 기능이 크게 강조되어 사우와 기능상 混淆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원이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준향 일변도의 사우로 변한 것이 아닌 이상 마땅히 양자의 구별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해했다.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5) 즉 17세기 이후 서원과 사우의 건립을 두고 둘 사이의 엄격한 구분이란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견해와, 비록 서원과 사우의 남설로 양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 차이가 있다.

개소, 충청도 18개소, 서울경기 11개소, 황해도 9개소, 평안도 5개소, 강원도 3개소, 함경도 4개소이다.<sup>28)</sup> 이 가운데 퇴계 문인이 직·간접적으로 건립에 관여한 서원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sup>29)</sup>

<표 2> 퇴계문인들의 서원건립현황

지역	서원	건립	사액	건립에 관여한 퇴계문인	제향인물 (건립당시)
강원	五峰書院(강릉)	1556(명종11)		崔運遇	孔子
	文巖書院(춘천)	1610(광해2)	1648(인조26)	申湜	李滉
경기	道峯書院(서울)	1573(선조6)	1573(선조6)	南彦經, 金字顯, 許曄	趙光祖
	崧陽書院(개성)	1573(선조6)	1575(선조8)	朴淳	鄭夢周, 徐敬德
경상	沂川書院(여주)	1580(선조13)	1625(인조3)	朴承任	金安國
	濫溪書院(함양)	1552(명종7)	1566(명종21)	朴承任	鄭汝昌
	仙巖書院(청도)	1568(선조1)		黃應奎	미상
	德川書院(진주)	1576(선조9)	1609(광해1)	尹根壽, 李光友	曹植
	紫溪書院(청도)	1576(선조9)	1661(현종2)	黃應奎	金駟孫
	臨臯書院(영천)	1553(명종8)	1553(명종8)	鄭允良, 盧遂, 金應生	鄭夢周
	白鶴書院(영천)	1555(명종10)		黃俊良	미상
	水溪書院(의성) <sup>30)</sup>	1556(명종11)	1576(선조9)	申元錄	金安國, 李彦迪
	伊山書院(영주)	1558(명종13)	1574(선조7)	許忠吉, 朴承任, 張壽禧, 金功, 金隆, 李德弘	없음

- 28)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가감하여 정리하였다. 길경택, 「충북의 서원」, 『훤철서원조사보고』,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3. 송용재, 「대전충남의 폐원우」, 『훤철서원조사보고』,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3; 충청남도, 『충남의 서원사우』, 1999; 전라남도, 『전남의 서원사우』, 전라남도·목포대학박물관, 1988; 원영환, 「강원지방의 서원연구-문암서원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 3, 1998; 최홍규, 「경기지역의 서원 현황과 성향-특히 용인지방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2002; 전용우, 「호서사립의 형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3;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5; 윤희민, 「조선서대 서원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2004; 이병훈, 「경상도 서원사우의 건립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 29)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면서 『도산금문제현록』에 실린 309명 중 개인의 文集, 서원 건립관련 기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列邑院宇事蹟』, 『組豆錄』, 각 書院誌, 그리고 邑誌類 등을 상호보완하며 확인하였다.

지역	서원	건립	사액	건립에 관여한 퇴계문인	제향인물 (건립당시)
	迎鳳書院(성주)	1558(명종13)	1560(명종15) 31)	黃俊良(중수), 金宇顥, 鄭述	朱子, 程子, 金宏弼
	西岳精舍(경주) (西岳書院)	1561(명종16)	1623(인조1)	李楨	薛聰, 金庾信, 崔致遠
	研經書院(달성)	1563(명종18)	1660(현종1)	李叔樑	없음
	禮林書院(밀양)	1567년(명종22)	1669(현종10)	裴三益	金宗直
	鏡光書堂(안동) (鏡光書院)	1570(선조3)		權好文, 辛乃沃	없음
	易東書院(예안)	1568(선조1)	1684(숙종10)	金生溟, 琴輔, 金富弼, 金富儀, 金富倫, 趙穆, 琴應夾, 琴蘭秀, 朴士燾, 李德弘, 琴應商, 李叔樑, 李甯, 李完	禹倬
	金鳥書院(선산)	1570(선조3)	1575(선조8)	崔應龍	吉再, 金宗直
	迂溪精舍(영주) (迂溪書院)	1570(선조3)		李德弘	없음
	玉山書院(경주)	1572(선조5)	1574(선조7)	許曄	李彦迪
	靑城精舍(안동) (靑城書院)	1573(선조6)		權好文	없음
	陶山書院(예안)	1574(선조7)	1575(선조8)	孫英濟, 琴蘭秀, 權好文, 權文海, 柳雲龍, 李德弘, 琴輔, 金隆, 趙穆	李滉
	廬江書院(안동)	1576(선조9)	1676(숙종2)	金彦璣, 權好文, 權文海, 金復一, 金克一, 南致利	李滉
	龍山書堂(안동) (周溪書院)	1576(선조9)	1693(숙종19)	具鳳齡, 權春蘭	없음
	三溪書院(안동)	1588(선조21)	1660(현종1)	金玔, 金宇顥	權櫟
	玉洞書院(청송)	1602(선조35)	1690(숙종16)	鄭琢, 李庭檜	李滉
	吳山書院(인동)	1585(선조18)	1669(현종10)	權文海, 柳雲龍	吉再
	道東書院(현풍)	1605(선조38)	1607(선조40)	鄭述	金宏弼
	臨川書院(안동)	1607(선조40)	1618(광해10)	金玔, 鄭述	金誠一
	曲江書院(홍해)	1607(선조40)		曹好益	李彦迪

지역	서원	건립	사액	건립에 관여한 퇴계문인	제향인물 (건립당시)
	鼎山書院(예천)	1577(선조10)	1677(숙종3)	朴承任, 金復一, 權文海 <sup>32)</sup>	李滉
	道峯書院(영천)	1613(광해5)	1678(숙종4)	金就礪	曹好益
	玉川書院(순천)	1564(명종19)	1568(선조1)	李楨, 奇大升	金宏弼
	大谷書院(나주) (景賢書院)	1584(선조17)	1609(광해1)	金誠一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전라	筆岩書院(장성)	1590(선조23)	1662(현종3)	卞成溫	金麟厚
	忠賢書院(공주) <sup>33)</sup>	1581(선조14)	1624(인조2)	權文海	李存吾, 成悌元, 李穆
	文獻書院(한산) <sup>34)</sup>	1594(선조27)	1611(광해3)	李誠中	李穀, 李穡
	五賢書院(아산) <sup>35)</sup>	1610(광해2)		洪可臣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八峰書院(충주) <sup>36)</sup>	1582(선조15)	1672(현종13)	金宇宏, 吳滉	李耜, 李延慶
충청	雲谷書院(음성) <sup>37)</sup>	1602(선조35)	1676(숙종2)	鄭述	朱子
	淸溪書院(강동) <sup>38)</sup>	1577(선조10)		曹好益	없음
평안					

30) 申元錄은 1556년 향인들과 서원 건립을 논의하여 이듬해 書院正堂을 건립하였다. 1570년 서원 이름을 長川이라 했고, 1572년 봄 묘우를 세우고 김안국과 이언적을 제향했다. 1576년 長川으로 사액되었다가 1600년 이건하면서 永溪書院으로 개칭했다(申元祿, 『晦堂集』 연보 및 『열읍원우사적』에 의함).

31) 1573년(선조 6)에 川谷으로 사액됨.

32) 『열읍원우사적』에 의하면, 1577년(선조10) 예천군수 安鳳首가 향인들의 뜻을 가려내어 군 동쪽 6리에 서당을 창건했으며, 그 후 1612년(광해군 4)에 한강 정구와 여현 장현광에게 아뢰어 陞院 奉安했다고 한다(萬曆丁丑郡守安鳳首採鄉人之議卜地於郡東六里勸建書堂 壬子稟定于寒崗鄭述旅軒張顯光陞院奉安). 또 『초간집』에 의하면 권문해는 1577년 4월 향인들과 정산서원을 건립할 뜻을 세웠으나 이루지는 못했다고 한다(“五年丁丑先生四十四歲春 … 與鄉人議建鼎山書院 先生以本郡無士子藏修之地 叔祖睡軒先生無安靈之所 欲倣金濯纓駟孫李評事穆淸道公州廟院例 勸立書院於鼎山 而先生遽易簣 仍值壬癸兵燹 未成…”, 『年譜』, 『草澗集』卷3). 정리해 보면, 1577년 당시 예천군수와 권문해를 비롯한 향론을 바탕으로 서당이 건립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 권문해, 김복일, 박승임 등 당시 예천지역 퇴계문인들이 서원건립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초간집』에 나타난 바와 같이 권문해가 갑자기 사망하여 權五福을 봉안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임진왜란의 와중에 서당건물은 소실되었던 것 같다. 그 후 1612년 정구, 장현광의 노력으로 이황을 봉안하여

광해군대까지 설립된 125개 서원 가운데 퇴계 문인들이 관여한 수를 시기별, 지역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서원을 재건하였다.

- 33) 충현서원은 1581년(선조 14)에 徐起(1523~1591)와 그의 제자들이 주도하고, 당시 공주목사로 와 있던 권문해가 쌀과 콩 50여 휘(1휘는 10말)를 재정 지원하여 공암서원이란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창설 당시 공암서원에는 朱子, 李存吾, 李穆, 成悌元이 제향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폐허화되었다가 1610년(광해군2)에 중수되었고, 1624년(인조 2)에 ‘忠賢’으로 사액되었다.
- 34) 문헌서원의 기록상 창건연대는 1594년(선조 27)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李恒福이 찬한 『文獻書院記』에 의하면 李誠中이 한산군수로 부임하여 기린산 기슭의 목은 이색의 묘소 아래에 묘우를 짓고 ‘효정사’라는 편액을 걸었다는 기록을 보아 실제 창건시기는 이성증이 한산군수로 재임하던 1580년대 초반으로 보여진다. (충청남도, 『충남의 서원사우』, 1999, p.603.)
- 35) 五賢書院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 五賢을 제향하여 건립되었다. 홍가신은 아산의 향현으로 1605년(선조 38)경 개성유수에서 체임된 이후 아산의 시골집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홍가신은 일찍이 대관으로 있을 때 이이와 성혼을 공격하였다. 추측컨대 아마 퇴계를 비롯한 오현을 중사하는 아산의 분위기는 이 시기 홍가신이 내려와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원 명칭이 『列邑院宇事蹟』과 『書院可攷』에는 ‘五賢書院’이라고 되어 있으나, 『東國院宇錄』과 『增補文獻備考』에는 ‘仁山書院’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열음원우사적』에 실려 있는 「牙山縣書院事實成冊」이 1759년에 작성된 점에 비춰볼 때, 원래 ‘오현서원’이라고 불리다가 후에는 지명을 따라 ‘인산서원’이라고 불리게 된 듯하다. (『충남의 서원사우』, 1999, pp.213~214.)
- 36) 1586년 팔봉서원이 세워져 李耜의 위판을 봉안했다. 서원은 충주에 있는데 1582년 봄 많은 선비들이 夢庵의 遺址 북쪽에 院宇를 건립하였다. 감사 金宇宏과 목사 李選, 劉漢忠, 吳澐, 金偉가 서로 이어가며 조성했다. 廟宇는 崇德, 강당은 好懿, 동재는 明誠, 서재는 敬義라 이름하고, 이자를 주향으로, 灘叟를 병향했다. 원호를 溪灘 또는 劍巖이라 일컬었다. 蘇齋가 기문을 撰했다. 임진 병화에 파훼되었다가 난 후 중건하였다. 임자년에 蘇齋를 병향하고, 그후 사림이 청액을 아뢰어 八峯으로 사액되었다. (『十四年丙戌 八峯書院成 奉安位版院在忠州 壬午春 州之居士 營建院宇于夢庵遺址之北 監司金宇宏及牧使李選劉漢忠吳澐金偉 相繼助成 廟宇曰崇德 講堂曰好懿 東齋曰明誠 西齋曰敬義 先生主享 灘叟並享 院號溪灘又稱劍巖 蘇齋撰記 壬辰兵燹被燬 亂定重建 壬子 又以十清蘇齋並享 其後士林陳疏請額 賜額八峯』, 李耜, 『陰崖集』, 「연보」)
- 37) 1602년(선조 35)에 鄭逮가 충주목사로 부임하자 이곳 유림의 건의로 기존의 白雲書堂을 운곡서원으로 개편하고 朱子의 위패를 모셨다. 그 뒤 1661년(현종2)에 정구를 추가 배향하였으며, 1676년(숙종 2)에 ‘雲谷’이라 사액되었다.
- 38) 조호익이 평안도 강동에 귀양을 가서 高芝山 아래에 成材書堂을 열고 강학하였는데, 퇴계를 모신 서원을 건립하려고 경영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호익 사후 관서 사람들이 성재서당 오른쪽에 祠宇를 짓고 퇴계를 주벽으로 하고 조호익을 배향하였다. 1672년 사액을 청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芝山集』 附錄 卷1, 「年譜」; 附錄 卷3, 「清溪書院請額訴」)

〈표 3〉 광해군대까지의 서원 건립에 참여한 퇴계 문인 현황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계
				임란이전	임란이후		
경기	전체			5	3	3	11
	퇴계문인			3			3
충청	전체		1	7	3	7	18
	퇴계문인			2	2	1	5
전라	전체		1	16	4	5	26
	퇴계문인		1	2			3
경상	전체	1	9	20	11	8	49
	퇴계문인		9	15	4	1	29
강원	전체		1			2	3
	퇴계문인		1			1	2
평안	전체		1	2	1	1	5
	퇴계문인			1			1
함경	전체		2		1	1	4
	퇴계문인						
황해	전체		1	5	2	1	9
	퇴계문인						
계	전체	1	16	55	25	28	125
	퇴계문인		11	23	6	3	43

〈표 4〉 퇴계 문인 관여 서원 비율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계
			임란이전	임란이후		
개소 (퇴계문인/전체)	0/1	11/16	23/55	6/25	3/28	43/125
비율		69%	42%	24%	7%	34.5%

중종 연간에 건립된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서원으로 건립되어 퇴계의 청원으로 소수서원으로 사액되었다. 당시 퇴계문인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계가 낙향한 후 본격적으로 후학을 양성한 이래로 그의 문인들의 참여가 급증하였다. 실제 퇴계문인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명종~선조(임란이전)대를 보면 당시 건립된 서원 71개소 가운데 34개소에 관여하였다. 명종 대에는 16개소 중 11개소에 관여하여 69%에 이른다. 이들이 관여한 서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 9개소, 강원도·

전라도 각 1개소씩이다. 이 시기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에 건립된 모든 서원에 퇴계와 그 문인들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조 대에는 80개소 가운데 29개소에 참여하여 36%의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참여율을 보면 55개소 중 23개소에 관여하여 42%로 나타난다. 반면 임란이후에는 25개소 가운데 6개소에만 관여하여 24%에 해당하고, 광해군대에는 더욱 낮아져서 23개소 가운데 3개소에만 관여하여 7%의 참여율을 보인다. 이처럼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퇴계문인들의 서원 건립 참여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임란으로 초토화된 조선을 재건하는데 朝野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상황과 17세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많은 수의 퇴계문인들이 사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며, 동시에 서원에 대한 관심이 퇴계학파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시의 정국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명종 대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한 사림파는 선조가 즉위하면서 새로운 집권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선조 초반의 동서분당을 시작으로 사림 세력은 분열하고, 임란직전 정권을 장악하였던 퇴계문인 중심의 남인세력은 전시 정국을 운영한 후 전란의 종식과 더불어 몰락하였다. 아울러 서원 건립에 적극적이었던 퇴계 문인들이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문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경상도를 중심으로 일부 제자들만의 참여가 확인된다. 이 시기 주목되는 인물이 寒岡 鄭述이다. 그는 임란이후 충청도 운곡서원, 경상도 도동서원·임천서원의 건립에 관여하였으며, 복인정권 하에서 퇴계 문인들을 영도하면서 퇴계의 4高弟 가운데 일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건립된 서원은 줄어들었지만 전후 복구 과정에서 기존의 서원을 重建하는 경우도 있었다. 1606년(선조 39) 경상감사 柳永詢은 전란으로 소실되었던 천곡서원(성주), 금오서원(선산), 쌍계서원(현풍), 남계서원(함양), 덕계서원(진주)을 중건하였음을 알리며, 편액을 다시 내려주기를 청하였다.<sup>39)</sup> 이처럼 각 고을에서는 관민이 협력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원

39) 『선조실록』 39년(1605) 12월 26일.

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기존에 세워졌던 서원을 증진한 경우를 감안하면 임진왜란 이후에도 서원 건립의 열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퇴계문인들이 건립에 참여한 서원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표 5>와 같이 삼남지방의 서원 건립이 두드러지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황해도 순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다.

<표 5> 지역별 퇴계 문인의 서원 건립 참여율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평안	함경	황해	계
개소	3/11	5/18	3/26	29/49	2/3	1/5	0/4	0/9	43/125
비율	27.2%	27.7%	11.5%	55.2%	66.6%	20%	0%	0%	

특히 경상도 지역은 전체 125개소 가운데 49개소로써 약 39.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49개 서원 가운데 퇴계문인이 직간접으로 건립에 관여한 서원은 29개로 55.2%를 차지한다. 이것은 경상도에 문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것과 비례한다. 실제 명종연간 경상도에 건립된 서원은 9개소인데 이들 모두에 퇴계 및 그의 문인들이 건립에 관여하였고, 선조연간에는 31개소 중 19개소가 퇴계문인들에 의해 건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많은 퇴계문인들이 생존해 주로 활동하던 임진왜란 전까지를 두고 보면 경상도에서 건립된 30개 서원 가운데 24개소에 퇴계와 그 문인들이 관여하였는데, 무려 70%에 이른다. 즉 경상도 지역의 서원 건립에 있어 퇴계문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퇴계문인이 건립에 관여한 서원의 비율이 경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경기도는 11개소 가운데 3개소(27%), 충청도는 18개소 가운데 5개소(27%), 전라도는 26개소 가운데 3개소(11.5%), 평안도는 5개소 가운데 1개소(20%)이며, 함경도와 황해도에는 퇴계문인들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

에서는 퇴계문인들이 건립에 관여한 서원의 건립 시기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경기도와 전라도에서 퇴계문인들이 관여한 서원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 시기이다. 충청도의 경우도 임란이전에 2개소가 건립되었다. 즉 서원 건립 초기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퇴계문인들에 의한 서원건립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서원의 전국적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퇴계문인들의 서원 건립이 각 지역에 있어 서원의 정착 및 확산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퇴계문인들이 조선에 서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그것의 정착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퇴계문인들이 주로 활동 하였던 임란이전까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건립된 서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에 이들이 관계하고 있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의 참여는 과반을 넘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상도에 비해 퇴계문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부분 임란 이전에 관계한 경우로서 서원의 정착·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문인들의 서원 건립 활동

『도산급문제현록』에 실린 문인 중 서원 건립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모두 56명이다. 이들 가운데 5개소의 서원 건립에 관여한 문인이 2명이며, 4개소에 관여한 문인은 2명, 3개소에 관여한 문인은 3명, 2개소에는 12명, 마지막 1곳씩의 서원 건립에는 모두 37명이 관여하였다.<sup>40)</sup> 단순히 건립에 관여한 서원 수가 많다는 것이 퇴계의 서원건립을 충실히 계승했다거나 또는 서원 건립에 열의를 더 가졌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단 1곳의 서원 건

40) 5개소 權文海·鄭述, 4개소 朴承任·李德弘, 3개소 權好文·金宇顥·金功, 2개소 琴蘭秀·琴輔·金隆·金復一·金誠一·柳雲龍·李叔樸·李楨·趙穆·曹好益·黃應奎·許擘, 1개소 具鳳齡·權春蘭·琴應商·琴應夾·奇大升·金克一·金富倫·金富儀·金富弼·金生溟·金彥璣·金宇宏·金應生·金就礪·南彥經·南致利·盧遂·朴士燾·朴淳·卞成溫·孫英濟·辛乃沃·申湜·申元錄·吳澐·尹根壽·李誠中·李光友·李庭檜·張壽禧·鄭允良·鄭琢·崔運遇·崔應龍·許忠吉·洪可臣·黃俊良 등이다.

립에 관여했지만 실제 서원 건립이나 퇴계가 추구했던 서원관의 실현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퇴계문인들이 서원건립에 나섰을 때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 고자 한다.

### (1) 지방관으로서 참여

서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막대한 물력이 소모되는 서원의 건립과 향후 운영에 있어서 지방관의 역할은 상당히 컸다. 서원 건립 부지 및 건축자재의 확보에서부터 인력의 동원 등에 이르기까지 서원 건립 과정에서 지방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향중 사림들은 서원 건립을 위해 지방 관에게 인적·물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방관 입장에서도 향촌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재지사족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한편으로는 ‘興學’이라는 수령의 책무와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었다.<sup>41)</sup> 서원 건립에 관여한 56 명의 퇴계문인 가운데 관직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면 다음 <표 6>과 같이 21 명이 확인된다.

<표 6>仕宦하여 서원 건립에 참여한 문인 현황

이름	서원	시기	지역	건립 당시의 관직
權文海	陶山書院	1574(선조7)	경상 예안	안동부사
	廬江書院	1573(선조6)	경상 안동	안동부사
	吳山書院	1587(선조20)	경상 인동	대구부사
	鼎山書院	1577(선조10)	경상 예천	안동부사
	忠賢書院	1580(선조13)	충청 공주	공주목사
金功	三溪書院	1588(선조21)	경상 봉화	호조참판
金誠一	景賢書院	1584(선조17)	전라 나주	나주목사
金宇宏	八峯書院	1582(선조15)	충청 충주	충청감사
金宇顥	道峯書院	1574(선조7)	경기 양주	부수찬

41)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p.21.

이름	서원	시기	지역	건립 당시의 관직
	三溪書院	1588(선조21)	경상 봉화	안동부사
	川谷書院	1573(선조6)	경상 성주	부수찬
南彦經	道峯書院	1573(선조6)	경기 양주	양주목사
朴淳	嵩陽書院	1575(선조8)	경기 개성	좌의정
朴承任	沂川書院	1580(선조13)	경기 여주	여주목사
裴三益	禮林書院	1567(명종2)	경상 밀양	밀양교수
孫英濟	陶山書院	1574(선조7)	경상 안동	예안현감
申湜	文巖書院	1612(광해4)	강원 춘천	춘천부사
吳澐	八峯書院	1582(선조15)	충청 충주	충주목사
柳雲龍	吳山書院	1585(선조18)	경상 인동	인동현감
尹根壽	德川書院	1576(선조9)	경상 진주	경상감사
李誠中	文獻書院	1594(선조27)	충청 서천	한산군수
李楨	西岳精舍	1560(명종15)	경상 경주	경주부윤
	玉川書院	1564(명종19)	전라 순천	순천부사
鄭述	雲谷書院	1602(선조35)	충청 음성	충주목사
	臨川書院	1607(선조40)	경상 안동	안동부사
許曄	玉山書院	1572(선조5)	경상 경주	大司成
	道峯書院	1574(선조7)	경기 양주	부제학
許忠吉	伊山書院	1573(선조6)	경상 영주	榮川군수
黃應奎	仙巖書院	1577(선조10)	경상 청도	청도군수
	紫溪書院	1576(선조9)	경상 청도	청도군수
黃俊良	白鶴書院	1555(명종10)	경상 영천	신녕현감

이들 가운데 중앙에서 관직을 맡고 있던 인물은 4명으로 김륵, 김우옹, 박순, 허엽이 그들이다. 먼저 김륵은 호조참판으로 있으면서 1601년(선조 34) 權撥을 제향하는 「三溪書院奉安文」을 지었다. 그리고 1605년(선조 38)에는 안동부사로 있으면서 廬江書院을 중수했다.<sup>42)</sup> 다음 김우옹은 부수찬으로 있으면서 1573년(선조 6) 11월 30일 晝講에 입시하여 천곡서원의 賜額頒書를 청하였고<sup>43)</sup>, 또 1574년(선조 7) 9월에는 승지 鄭琢과 함께 도봉서원을 높이

42) 金玊, 『栢巖集』, 年譜.

43) 金宇顯, 『東岡集』, 年譜.

고 권면하는 筭子를 올렸다. 이후 10월 13일 侍講에서는 사액을 청하였다.<sup>44)</sup> 좌의정 박순은 1575년(선조 8) 여름 서경덕의 증직을 청하고, 송도에 崧陽書院을 건립할 것을 창의하였다. 허엽은 대사성으로 있으면서 1574년(선조 7) 『玉山書院記』를 지었으며, 이어 도봉사원의 원규를 정하였다. 이들은 중앙 고위관직을 맡고 있으면서 지방에서의 서원 건립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던 경우이다.

중앙관료가 아닌 지방관의 신분이었던 인물은 17명이다. 이들이 지방관으로서 서원건립에 나섰던 구체적 행적은 자료의 개인별 편차가 심하다. 문집이나 서원기 등을 통해 구체적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편적 사실만이 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李楨(1512-1571) : 경주부윤으로 나가서는 서악정사를, 순천부사로 부임해서는 옥천서원을 건립하였다. 서악서원은 1561년(명종 16) 경주부윤 이정(1512-1571)의 주도에 건립되었는데, 처음에는 서악정사라 이름 하였다가, 1623년(인조 1) 서악서원으로 사액되었다. 당시 그는 서악정사 건립과 향사, 건물의 액호 문제, 성리학 관련 도서관행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도산서당을 방문하거나 서신왕래를 통해 퇴계의 의견을 물어 처리했다.<sup>45)</sup> 또 순천부사로 재임시에는 金宏弼의 유문과 사적을 수집, 정리하여 퇴계의 교시를 받아 『景賢錄』을 편간하고, 1564년(명종 19) 김굉필을 제향하는 옥천정사로 건립되었다. 당시 이정은 정사 건립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퇴계의 자문을 구해 堂齋號를 정했는데, 퇴계는 이를 직접 명명해 써 주었다. 그리고 서적과 노비를 갖추어 교육과 운영의 기반을 닦는데도 도움을 주었다.<sup>46)</sup>

② 金誠一(1538-1593) : 나주목사 재임시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 동방오현을 향사하는 경현서원을 건립하였다. 그 규제는 일체 백록동서원의 고사를 따르게 하였으며, 한가할 때는 諸生들과 더불어 경서의 뜻을 강론하고, 勤學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인재를 양성하는 방도를 다하였다.<sup>47)</sup>

44) 金宇頤, 『東岡集』, 年譜 ; 『선조실록』, 선조 7년(1574) 10월 13일. 그리고 『東岡集』에는 양주에 서원을 중첩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하지 말기를 청하는 「玉堂請勿禁楊州書院疊設筭」가 실려 있다.

45) 이수진, 「구암 이정의 가계와 생애 및 '퇴남'과의 관계」, 『안동사학』 제9-10집, 2005.

46) 寄大升, 『高峰集』 권2, 「玉川書院記」.

③ 柳雲龍(1542-1607) : 1585년(선조 18) 인동현감으로 나가 冶隱 吉再를 제향하는 吳山書院을 건립했다. 『오산서원기』에는 인동현감 유운룡이 길재의 묘를 수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더불어 묘소 앞 吳泰山 아래에 터를 정하고 院宇를 건립했다. 1588년(선조 21) 3월에 준공하고, 4월 14일에 경내 諸生이 모여 길재를 봉향했다. 오산서원이 낙성되자 유운룡은 관내 제생들을 이끌고 강학하였으며, 여러 서원 원규와 오례의를 참조하여 學規를 정했다.<sup>48)</sup> 한편 오산서원 건립 과정에는 달성군수 권문해, 성주목사 柳夢鼎, 亞使 李熹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였다.<sup>49)</sup>

④ 金宇顥(1540-1603) : 1588년(선조 21) 안동부사로 재임시 안동부 사람들이 총재 권벌을 제향하는 三溪書院을 건립하려 함을 알고 그것을 권면하고 칭찬했다. 그리고 安養廢寺田과 加飛谷書堂에 속한 公須田을 삼계서원에 이속시켜 주었다.<sup>50)</sup>

⑤ 南彥經(1528-1594) : 양주목사로 부임하여 1573년(선조 6) 도봉산 寧國寺 옛 터에 조광조를 제향하여 道峯書院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이가 지은 「도봉서원기」에 의하면 1573년 겨울에 목사 남언경이 이곳을 찾아보고 조광조의 유적을 회상하고는, 향유들과 함께 노력하여 이듬해 여름 옛 절터에 禪院을 지었다. 그러나 목수의 役事만이 대강 완공되었을 뿐 나머지 모든 일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남언경은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후임으로 온 목사 李齊閔과 또 그 뒤를 이은 李廷蕪이 사업을 계승하였다. 그래서 6년째 되는 1579년(선조 12) 봄에 비로소 준공하였다고 전한다. 이어 成渾이 사액을 청하여 건립되던 해에 道峯으로 사액되

47) 金誠一, 『鶴峰集附錄』 권1, 「연보」, ‘十二年甲申先生四十七歲春 勅大谷書院(州素稱多士 未有藏修之地 先生親相地於城西五里錦城之麓 以祀寒暄一蠹靜庵晦齋退溪五先生 使學者知所師宗 其規制一依白鹿洞故事 暇則與諸生講論經義 課其勤怠 以盡其作成之方)’.

48) 柳雲龍, 『謙菴集』 年譜.

49) 柳雲龍, 『謙菴集』 卷5, 「吳山書院記」.

50) 權機, 『冲齋集』, 「年譜」, ‘神宗萬曆十六年戊子 士林建書院于先生(權機)故宅西山之外(士林唱議爲俎豆崇奉之舉 各出財力 時東岡金文貞公宇顥知本府 樂聞而勸成之 以縣南安養廢寺田及加飛谷書堂屬公水田屬書院 凡營建經紀 致力尤多)’; 金宇顥, 『東岡集』, 「年譜」, ‘十五年丁亥先生四十八歲冬 拜安東府使 十六年戊子先生四十九歲春 赴任(先生以約己奉公 愛民興學 爲爲政之本 公暇率鄉子弟 講學論禮 府人士欲爲權冲齋機立院 先生獎成之 土田之屬于公者 皆歸於院 府人士至今追思不忘云)’.

었다.<sup>51)</sup>

⑥ 申湜(1551-1623) : 춘천 文巖書院의 건립에는 신식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1610년(광해군 2) 관동을 순찰하는 길에 들린 춘천에서 유생 몇 명이 찾아와서 춘천이 퇴계의 外貫임을 사유로 서원 건립을 요청하였다. 이에 춘천부사 柳希聃과 상의하여 서원을 설치토록 허락하고, 노비 약간 명을 주어 서원건립에 대한 일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1612년(광해군 4)에 춘천부사로 다시 춘천에 오게 된 신식은 이때까지 서원을 건립하지 못한 것을 보고, 다시 安崇讓·李靑 등과 상의하여 강변의 文巖 위에 터를 정하고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1615년(광해군 7)에 신식이 '상량문'을 지은 것<sup>52)</sup>으로 보아서 그 해에 완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건립된 문암서원은 그 규모가 서울에 있는 성균관과 같다고 전한다.

⑦ 權文海(1534-1591) : 안동부사 재임시 여강서원의 건립에 직접 관여하였다. 여강서원은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으로서 지역 사림을 위시한 퇴계문도가 주도가 되어 건립된 것이다. 권문해는 1573년(선조 6) 안동부사로 부임해 그 해 3월부터 여강서원 건립에 관여했다. 그는 4월에 廬江에 가서 폐사(白蓮寺)의 材瓦를 철거했고, 이후 1574년(선조 7) 묘우, 재, 당이 완성될 때까지 수차례 현장에서 직접 서원 건립을 감독했다.<sup>53)</sup> 공주목사로 부임해서는 공암서원의 건립을 위해 재정 지원을 했다.

⑧ 孫英濟(?-1588) : 예안현감으로 있으면서 도산서원을 건립할 때 녹봉을 내어,

51) 『陶山及門諸賢錄』, '公晚歸嘗牧陽州 營建靜菴書院于道峯'.

趙光祖, 『靜菴集』, 「年譜」, '神宗萬曆元年癸酉 建道峯書院於楊州卽道峯山寧國寺舊基 先生少時 愛其泉石 往來棲息 立朝之後 亦乘公退 命駕遊焉 至是 牧使南彥經創始之'; 成渾, 『牛溪集』 권6, 雜著, 「議政府右參贊白公行狀」, '…先是楊州牧使南彥經, 立文正公書院于道峯山下, 公欲自詣闕申請從祀及賜額'; 李珥, 『栗谷全書』 권13, 「道峯書院記」, '書院之建 本爲藏修 而兼舉崇德報功之典 … 萬曆癸酉之冬 牧使南侯彥經 往觀其洞 慨想遺躅 咨詢鄉士 議作瞻慕之所 衆志克合 乃卽寺址 營建祠宇 因設書院 鄉人聳身 百工勤力 越明年甲戌之夏 祠院告功 祠宇在北 輔以東西齋書 院在南中 設講堂 翼以兩夾室 前廊枕溪 廊側有門 因地形也 木役粗完 凡百未訖 而南侯以疾去官 繼牧是州者 李公齊閔 李侯廷毓 踵其緒不替 於是廩土之具 藏書之室 坱祀之廚 次第諸事 越六年己卯之春 始克斷手 其將落成也'.

52) 원영환, 「강원지방의 서원 연구-문암서원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8; 정경세, 『愚伏先生文集』 卷16, 「文巖書院上梁文(乙卯爲春川府伯申叔正作)」.

53) 權文海, 『草澗集』, 「年譜」.

자금을 보조하였다. 이에 金富倫이 ‘공사 시작할 땐 재물로 보조했고, 일을 보살핌에 심정을 다했다’고 시를 지어 손영제의 노력을 찬하였다.<sup>54)</sup>

㉑ 尹根壽(1537-1616) : 경상감사로 재임시 金山廢寺와 眞興廢寺의 토지를 德山書院과 陶山書院에 분속시켜 서원 건립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케 하였다.<sup>55)</sup>

㉒ 裴三益(1534-1588) : 1565년(명종 20) 밀양 교수로 나아가 김종직을 제향하는 禮林書院의 건립에 관계하였다. 그는 1566년(명종 21) 정월 퇴계에게 편지하여 김종직을 立祠하는 일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sup>56)</sup> 이것은 ‘점필재의 행실은 후세에 의논이 없을 수 없다’고 한 남명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퇴계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물음에 대해 퇴계는 ‘남명의 비판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김종직이 綱常을 扶植함이 많으니 서원을 건립하고 사당을 세우는 일에 무리가 없다’고 답하며<sup>57)</sup>, 서원을 완성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1567년(명종 2)에 김종직을 제향하였다.

㉓ 黃俊良(1517-1563) : 1551년(명종 6) 신녕현감으로 부임해 白鶴書堂을 창건하여 도서를 비치하고 논밭을 장만하였다.<sup>58)</sup> 덧붙여 1560년(명종 15) 7월 성주 목사 재임시에는 鹿峰精舍와 孔谷書堂을 건립하여 사림의 독서처 및 강학의 장소를 건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당시 吳健이 성주 교수로 왔으므로 서로 뜻을 모아 유생교육에 노력했다. 녹봉정사는 황준량과 오건 및 성주 사람들이 1561년(명종 16) 팔거현의 폐사지에 건립한 것인데, 퇴계는 녹봉정사 건립을 칭찬하며 황준량의 부탁대로 편액을 써 주었다.<sup>59)</sup> 그리고 성주 동쪽 공곡이란 곳에 여러 학생들

54) 『陶山及門諸賢錄』, ‘甲戌 建陶山書院 公傾捧助資 竭心殫力終底 有成雪月金公詩云 起工隨物力敦事盡心情’

55) 『德川書院誌』, ‘監司尹公 以金山眞興廢寺土地 分屬德山與陶山 以備院中需用之資’

56) 裴三益, 『臨淵齋集』卷5, 年譜, ‘正月上書退溪先生 論估畢齋立祠事’.

57) 李滉, 『退溪先生文集』卷35, 「答裴汝友書」, ‘估畢翁果有如南冥所云 然亦甚有扶植處 何可深斥 作院立祠 正不可不爾也 幸勿疑貳 勸卒成之爲佳’.

58) 『陶山及門諸賢錄』, ‘宰新寧 創白鶴書院 藏書置田’; 黃俊良, 『錦溪集』卷9 附錄, 「行狀」, ‘其在新寧 歲值不稔 視民之飢 若己飢之 賑恤得宜 民以蘇息 前政連負 公能節縮補填 數充則焚其券 尤留意學校 增新文廟 力加勸導 又就古縣 勸學舍一區 扁爲白鶴書院 藏書置田 士心興慕’.

59) 『退溪先生文集』卷20, 「答黃仲舉」, ‘鹿峯精舍事 甚善甚善 彼中士人 乃發如此之願 慕將由使君與教官倡作之力耶 勝於此間之俗 遠矣 扁額當依示 但浩然樓然樓二字 相接呼之 音不響亮 作養浩樓何如’.

이 서당 세우기를 바랐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공곡서당을 세웠다.<sup>60)</sup> 한편 당시 성주에는 전임목사 盧慶麟이 성주지방의 사람과 협력하여 건립한 영봉서원의 제향 문제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었는데, 퇴계도 기문을 쓴 것을 계기로 시비에 말려들어 있었다. 이에 황준량도 퇴계와의 사이에서 영봉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61)</sup>

⑫ 許忠吉(1540-?) : 1572년(선조 5) 榮川郡守로 재임시 이산서원에 퇴계를 처음으로 봉안했다. 또 박승임이 보낸 성학십도를 이산서원에서 간행하였다.<sup>62)</sup>

⑬ 朴承任(1517-1586) : 1578년(선조 11) 9월 여주목사로 재임시 沂川書院을 세웠고 金安國의 사당을 건립하였다.<sup>63)</sup>

⑭ 鄭述(1543-1620) : 충주목사로 부임해 기존의 운곡서당을 고쳐 朱子를 제향한 운곡서원을 건립하였다.<sup>64)</sup> 안동부사로 나가 있던 1607년(선조 40) 고을 선비들이 김성일을 향사하는 臨川鄕社를 건립하고 김성일의 위판을 봉안했는데, 이때 정구는 고을 수령으로서 글을 지어 묘에 제사했다. 임천향사는 1618년(광해군 10) 임천서원으로 승격되었는데, 정구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 하였다.<sup>65)</sup>

⑮ 金宇宏(1524-1590)과 吳澐(1540-1617) : 각각 충청감사와 충주목사로서 八峯書院의 건립에 관여하였다. 팔봉서원은 1582년(선조 15) 충주지역 선비들이 건립하였는데, 1586년(선조 19)에 李耜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당시 감사 김우굉과 목사 李選, 劉漢忠, 오운, 金偉가 서로 이어가며 이를 조성했다고 한다.<sup>66)</sup>

⑯ 李誠中(1539-1593) : 한산군수로 재임시 문헌서원을 건립하였다. 『증보문헌

60) 『退溪先生文集』卷48, 「星州牧使黃公行狀」, 「州東有地曰孔谷 因諸生願立書堂 公欣然營構 扁曰孔谷書堂」.

61) 영봉서원의 위차 시비 전말은 정만조, 「퇴계 이황의 서원론」, 『한우근박사정년기념논총』(1981)이 참고 된다.

62) 『도산집문제현록』, 허충길조.

63) 朴承任, 『嘯臈集』, 「行狀」, 「(萬曆六年)九月復陞通政 除驪州牧使 創書院 建慕齋金先生廟」.

64) 『雲谷書院誌』, 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03; 『列邑院宇事蹟』, 운곡서원조.

65) 金誠一, 『鶴峰集附錄』卷1, 年譜.

66) 李耜, 『陰崖集』, 「年譜」, 「十四年丙戌 八峯書院成 奉安位版院在忠州 壬午春 州之多士 營建院宇于夢庵遺址之北 監司金宇宏及牧使李選劉漢忠吳澐金偉相繼助成」; 吳澐, 『竹牖集』, 年譜.

비고』에는 문헌서원의 건립을 1594년(선조 25)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성중이 건립한 문헌서원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던 것을 이 시기에 移建한 사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sup>67)</sup> 실제 창건 시기는 이성중이 한산군수로 재임하던 158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⑰ 黃應奎(1518-1598) : 청도군수 재임시 1576년(선조 9) 김일손을 제향하는 紫溪祠를 서원으로 陞院시키고, 「자계서원기」를 썼다. 1577년(선조 10)에는 기존의 鄉賢祠를 이진하여 서원으로 승격하고 仙巖書院으로 개칭하였다.

퇴계문인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조선에 서원이 소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로서 지방관으로 부임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 서원을 소개하고, 나아가 향인들이 서원 건립에 나서도록 독려했다.<sup>68)</sup> 특히 지방관이라는 위치를 적극 활용해 서원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서원 부지를 제공하거나 권문해·신식·남언정, 서원 운영을 위한 토지를 마련하였으며[김우옹·윤근수·황준량, 건립 자금을 내놓기도 했다]손영제. 건립 과정에서 관력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권문해]. 또한 서원이 완성된 후에는 서원의 운영에도 적극 관여하여, 원규를 제정하고 직접 서원 강학을 주도하기도 했다.[김성일, 유운룡]그 밖에 향인들의 서원 건립을 권면하거나[김우옹], 기존의 향현사를 서원으로 승격시키기도 했다.[황응규·정구] 이처럼 지방관으로 나간 퇴계문인들은 사람의 건립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립을 주도하거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퇴계 문인들이 건립에 참여한 43개 서원 가운데 지방관으로서 관여한 곳

67) 『文獻書院誌』, 沿革, “判書李誠中爲韓山郡守時立廟于麒麟山下 扁以孝靖 享稼亭牧隱兩先生 宣祖二十五年壬辰亂灰燼 二十七年甲午移建于韓山枯村” ; 충청남도, 『충남의 서원사우』, 1999, p.603.

68) 이 과정에서 이정은 경주 서약정사 건립시 비방을 받기도 했고, 제향인물의 선정을 두고서는 스승인 퇴계와 의견을 달리하기도 했다.(『退溪先生文集』 卷20, 「答黃仲舉書」) 그렇지만 이정이 건립한 서약정사는 경주지역 최초의 서원이었으며, 경상도 열읍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이후 경주지역의 사론을 주도해 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가 순천부사 재직시 설립한 옥천서원은 전라도 지역 최초의 서원이었다.

이 22개소로 51.2%를 차지한다.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1550년대에 1개소, 1560년대에 3개소, 1570년대에 8개소, 1580년대에 6개소, 그리고 1600년대 이후 4개소이다.<sup>69)</sup> 퇴계 생전에 서원 건립이 이루어진 경우는 서악정사와 옥천서원, 백학서원, 그리고 예림서원 등 4곳이다. 그리고 퇴계가 사망한 후인 1570~80년대에 걸쳐 14개소의 서원이 건립되었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봉화, 인동, 밀양, 진주, 경주, 청도, 대구, 안동, 영천, 영주), 전라도(나주, 순천), 충청도(공주, 충주, 서천, 음성), 경기도(여주, 양주), 강원도(춘천) 등 삼남 지방을 비롯해 경기도와 강원도를 아우르고 있다.

여기서 이들이 서원건립에 나선 시기와 그 지역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이들에 의해 건립된 서원은 주로 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정이 건립한 서악서원은 경주지역 최초의 서원으로 이후 옥산서원이 건립되기까지 향론의 형성과 결집의 구심점으로 기능했다. 옥천서원은 전라도 최초의 서원으로 경상도 풍기에서 시작된 서원제가 전라도 지역에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강릉 오봉서원은 강원지역에서 가장 먼저 건립되었으며, 경기도·충청도 지역에서 퇴계문인들에 의해 건립된 서원도 그 지역 서원들 중 시기적으로 대부분 앞자리에 놓인다. 즉, 백운동서원 건립과 퇴계의 사액청원에서 비롯된 조선 서원이 점차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가던 시기에 퇴계문인들의 서원 건립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관으로 부임한 문인들은 퇴계의 서원보급에 공감하고 부임지에서 서원 건립에 나섰다, 이들에 의해 전국 각 지역으로 서원제도가 확산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퇴계문인들은 새로운 서원 건립에 나서기도 했지만,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서원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원경제에 있어서 전답, 노비, 院屬 등과 함께 중요한 것이 국가 또는 지방관, 향인들에 의한 서책, 魚

69) 1550년대 백학서원, 1560년대 예림서원·서악서원·옥천서원, 1570년대 도산서원·여강서원·정산서원·도봉서원·이산서원·선암서원·자계서원, 1580년대 오산서원·충현서원·경현서원·팔봉서원·삼계서원·기천서원, 1590년대 이후 문암서원·문헌서원·운곡서원·임천서원 등이다.

鹽 등 서원 소용의 각종 현물기부였다. 서원에서 사용되는 잡물은 屬店, 屬寺 또는 원속 등을 통하여 서원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방관의 기부와 부조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sup>70)</sup> 서원경제에 있어서 지방관의 기부와 부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관으로 나간 퇴계문인들은 서원 건립에 나섰음은 물론 서원 운영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2) 향인으로서 참여

퇴계문인들은 지방관으로 부임한 상황에서 서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원을 건립한 경우도 많았다. 다음의 <표 7>은 이를 정리한 것으로 모두 40명의 문인들이 25개소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다.

<표 7> 문인들의 거주지에 건립한 서원 현황

서원	지역	시기	문인
鏡光書堂	안동	1570(선조3)	權好文, 辛乃沃(안동)
曲江書院	홍해	1607(선조40)	曹好益(영천)
金烏書院	선산	1570(선조3)	崔應龍(선산)
濫溪書院	함양	1552(명종7)	朴承任(영주)
德川書院	진주	1576(선조9)	李光友(합천)
道東書院	성주	1605(선조38)	鄭述(성주)
筆巖書院	전라 장성	1590(선조23)	卞成溫(호남)
道峇書院	영천	1613(광해5)	金就礪(안산)
臨臯書院	영천	1553(명종8)	金應生, 盧遂, 鄭允良(영천)
氷溪書院	의성	1556(명종11)	申元錄(의성)
臨川書院	안동	1607(선조40)	金玠(영주)
淸溪書院	평안 강동	1577(선조10)	曹好益(영천)

70)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p.205.

서원	지역	시기	문인
易東書院	예안	1568(선조1)	琴蘭秀, 琴輔, 琴應商, 琴應夾, 金富倫, 金富儀, 金富弼, 金生溟, 朴士燾, 李德弘, 趙穆(예안), 李叔樑(영천)
研經書院	달성	1563(명종18)	李叔樑(영천)
川谷書院	성주	1568(선조1)	鄭述(성주)
五峯書院	강원 강릉	1556(명종11)	崔運遇(강릉)
五賢書院	충청 아산	1610(광해2)	洪可臣(호서)
玉洞書院	청송	1602(선조35)	李庭檜(청송), 鄭琢(안동, 예천)
龍山書堂	안동	1576(선조9)	具鳳齡, 權春蘭(안동)
陶山書院	예안	1574(선조7)	權好文, 柳雲龍(안동), 琴蘭秀, 琴輔, 李德弘(예안), 金隆(영주)
伊山書院	영주	1558(명종13)	金隆, 金玟, 朴承任, 張壽禧(영주), 李德弘(예안)
紫溪書院	청도	1576(선조9)	鄭述(성주)
鼎山書院	예천	1577(선조10)	趙穆(예안), 金復一(안동), 朴承任(영주)
廬江書院	안동	1576(선조9)	權好文, 金克一, 金復一, 金誠一, 金彦璣, 南致利(안동)
迂溪精舍	영주	1570(선조3)	李德弘(예안)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퇴계문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을이나 인근 고을의 서원 건립에 참여하고 있었다. 상기 40명의 퇴계문인 중 조호익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자기 고을이나 인근 고을의 서원 건립에 참여하고 있다.<sup>71)</sup> 퇴계도 직접적으로 건립에 관여한 것은 역동서원(예안), 이산서원(영주), 영봉서원(성주) 등 지역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또 역동과 이산서원 같이 퇴계가 건립에 관여한 서원은 해당 지역 내 문인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역동서원에는 금난수·금보·김부륜·김생명 등 예안지역 문인들이 모두 가담하였고, 이산서원의 건립에는 박승임·장수희 등 영주지역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이렇게 지방 향인의 위치에서 서원 건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주하는 지

71) 영천에 살고 있던 조호익은 흥해 곡강서원 건립에서 회재봉안문과 상향문을 지으며 관여했고, 평안도 강동의 청계서원은 그가 귀양 간 상황에서 세운 것이다.

역의 강학·장수를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 퇴계를 제향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 있다. 거주지의 문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서원을 건립 사례로는 구봉령(용산서원), 권호문(경광서원), 최응룡(금오서원), 김응생·노수정·윤량(임고서원), 신원록(빙계서원), 장수희(이산서원), 이숙량(연경서원), 정구(도동서원) 등이 해당한다. 문인의 입장에서 스승인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는 사례로는 도산서원과 여강서원, 옥동서원이 대표적이다. 도산서원 건립에는 권호문, 금나수, 금보, 김룡, 유운룡, 이덕홍이 참여하였으며, 여강서원 건립에는 권호문, 김극일, 김복일, 김성일, 김언기, 남치리가 가담했다.

예안 도산서원은 관직에서 물러난 퇴계가 생전에 寓居하며 강학하던 도산서당 및 농운정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퇴계가 돌아간 후 권호문, 금나수 등 퇴계문인들은 1574년(선조 7) 퇴계를 제사하는 尙德祠 건립을 논의하고, 이듬해 여름 서원을 낙성했다. 이어 1576년(선조 9) 2월 퇴계의 위판을 봉안했다. 이때 조목은 봉안문과 축문을 기초했으며,<sup>72)</sup> 안동부사 권문해는 인적·물적 지원을 하였다. 안동 여강서원 건립은 당시 안동부사 권문해의 적극적 지원 아래 김언기, 권호문, 김복일 등이 주도했다. 이들은 1573년(선조 6) 역동서원에서 퇴계문집을 교정한 후 여강서원의 건립을 논의했다. 이에 여강서원은 1575년(선조 8) 안동부의 동쪽 여산촌에 있는 백련사의 옛터에 창건되었으며, 이듬해 봄 퇴계를 봉안했다. 당시 권호문은 ‘여강서원상량문’을 지었으며, 퇴계를 입향하는 의례와 절차를 정하는 논의에도 참여했고, 서원이 완성된 후에는 제생을 이끌고 강학했다. 김언기는 서원이 낙성된 후 초대 산장을 맡았으며, 당시 안동부사인 권문해에게 조정에 건의하여 서적과 토지, 노비의 지급과 함께 사액을 받을 수 있도록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복일 역시 안동부사에게 올린 글에서 여강서원이 사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에게 요청하였다. 남치리는 원규를 지었다.<sup>73)</sup> 한편 이산서원은 퇴

72) 권好文, 『松巖集』, 年譜; 琴蘭秀, 『惺齋集』, 年譜; 琴輔, 『梅軒集』, 行狀; 金隆, 『勿巖集』, 年譜; 柳雲龍, 『謙庵集』, 年譜; 趙穆, 『月川集』, 年譜.

73) 『永嘉誌』, 廬江書院條; 權好文, 『松巖集』, 年譜; 金復一, 『南嶽先生文集』, 「廬江書院呈文」; 金彦璣, 『惟一齋先生實記』 卷1, 「上府伯權草濶文海書」; 南致利, 『賁趾集』, 年

계의 깊은 관심 속에 제향자 없이 건립되었던 서원인데, 퇴계가 사망한 후 김룡, 김륵, 박승임, 이덕홍 등의 적극적 주도 아래 퇴계를 제향 했다.

이외에도 대구 연경서원은 1563년(명종 18) 지역 사람들의 공의로 건립이 논의되어 이듬해 3월에 상량하였고, 1565년(명종 20) 10월에 완공되었다. 이숙량은 고을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서원건립을 주관하였으며, 서원이 완공된 뒤에는 서원 건립의 내력을 써서 퇴계에게 기문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숙량은 「연경서원기」에서 당시 서원 건립에서 고을 수령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많은 서원이 尊賢을 내세워 건립되고 있지만 향인들이 스스로 강학의 장소를 구하기 위해 서원을 건립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것도 도의를 강마하고 풍속을 격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sup>74)</sup> 여기에서 서원 건립에 있어 지방관의 원조와 제향인물의 선택 못지않게 향중 사람의 건립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퇴계문인들은 지방 사람을 위한 강학의 장소이자 도의를 강마하고 풍속을 격려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원을 인식했다. 즉 성리학적 질서를 향촌에 구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위한 공간으로서 서원을 선택한 퇴계의 생각에 공감하고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향인으로서 이들은 스승인 퇴계의 서원 건립을 지원하거나, 또는 그 자신들의 강학장수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고자 했다. 또 퇴계가 사망한 후에는 스승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에 앞장섰다.

한편 필암서원, 청계서원, 오봉서원, 오현서원의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은 모두 경상도, 특히 경상좌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퇴계문인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자기 지역의 서원건립에 적극 동참한 문인들은 주로 경상좌도 지역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상도 특히 경상좌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퇴계문인임을 자처한 인물들은 대부분 퇴계가 관직에 나아가 있을 무렵 교유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 문인들

譜.

74) 李叔樑, 『梅巖集』, 「研經書院記」, ‘是豈皆出於守令之建立 豈必皆主於尙賢而設置 鄉人之能自奮發 而爲立講學之所者 亦或有之 其爲講劇道義 激勵風俗 豈日少補之哉’.

의 경우 퇴계가 사망한 후 전개된 동서분당과 남북대립 등 복잡한 당쟁 속에서 동문으로의 결속력과 동질성을 점차 상실해 가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sup>75)</sup>

이상에서 살펴본 건립주체에 대한 분석 외에도 퇴계문인들이 관여한 서원에는 어떤 인물이 제향 되었는지, 퇴계가 생각한 선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인들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서원은 43개소인데, 그 중 제향인이 없는 서원은 9개소이다.<sup>76)</sup> 제향인이 있는 34개 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모두 30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퇴계 문인들이 관여한 서원의 제향인물

제향인물	개소	서원
李滉	7	陶山書院(예안), 廬江書院(안동), 鼎山書院(예천), 景賢書院(나주), 玉洞書院(청송), 文巖書院(춘천), 五賢書院(아산)
李彦迪	5	水溪書院(의성), 玉山書院(경주), 景賢書院(나주), 曲江書院(홍해), 五賢書院(아산)
金宏弼	5	迎鳳書院(성주), 玉川書院(순천), 景賢書院(나주), 道東書院(현풍), 五賢書院(아산)
鄭汝昌	3	濼溪書院(함양), 景賢書院(나주), 五賢書院(아산)
趙光祖	3	道峯書院(양주), 景賢書院(나주), 五賢書院(아산)
朱子	3	迎鳳書院(성주), 雲谷書院(음성), 忠賢書院(공주)
鄭夢周	2	臨臯書院(영천), 崧陽書院(개성)
吉再	2	金烏書院(선산), 吳山書院(인동)
金安國	2	水溪書院(의성), 沂川書院(여주)
金宗直	2	金烏書院(선산), 禮林書院(밀양)
孔子	1	五峰書院(강릉)
程子	1	迎鳳書院(성주)
薛聰	1	西岳書院(경주)
金庾信	1	西岳書院(경주)

75) 황위주, 「서울 경기지역의 퇴계문인과 그 성격」, 『퇴계학과 한국문화』 33,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3.

76) 伊山書院(영주), 研經書院(대구), 白鶴書院(영천), 仙巖書院(청도), 鏡光書院(안동), 靑城書院(안동), 迂溪書院(영주), 周溪書院(안동), 淸溪書院(강동).

제향인물	개소	서원
崔致遠	1	西岳書院(경주)
禹倬	1	易東書院(예안)
徐敬德	1	崧陽書院(개성)
曹植	1	德川書院(진주)
金誠一	1	臨川書院(안동)
金駟孫	1	紫溪書院(청도)
李存吾	1	忠賢書院(공주)
成悌元	1	忠賢書院(공주)
李穆	1	忠賢書院(공주)
李耜	1	八峰書院(충주)
李延慶	1	八峰書院(충주)
權檉	1	三溪書院(안동)
金麟厚	1	筆岩書院(장성)
李穀	1	文獻書院(한산)
李穡	1	文獻書院(한산)
曹好益	1	道峯書院(영천)

제향인 없이 건립된 9개의 서원 중 이산서원(영주)의 건립에는 ‘제향시설이 없어도 서원의 규모를 갖추었으므로 서원으로 이름해야 한다’는 퇴계의 의지가 직접 작용했다. 또 연경서원(달성) 역시 문인 이숙량이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퇴계의 자문을 구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서원에서의 존현에 대한 퇴계 및 그 문인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제향시설 없이 건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경광서원(안동), 청성서원(안동), 우계서원(영주), 주계서원(안동)은 모두 퇴계문인에 의해 제향시설 없이 서당 또는 정사의 형태로 건립되었다가, 건립을 주도하였던 인물을 사후에 제향하여 서원으로 승원된 경우이다.<sup>77)</sup> 이처럼 존현보다는 강학·장수처로서의 교육을 강조한 퇴

77) 鏡光書院(안동): 권호문, 신내옥 등에 의해 경광서당으로 건립되었다가 사후 권호문이 제향됨; 靑城書院(안동): 권호문에 의해 청성정사로 건립되었다가 사후 권호문이 제향됨; 迂溪書院(영주): 우계정사로 건립되었다가 사후 이덕홍이 제향됨; 周溪書院(안동): 구봉령에 의해 용산서당으로 건립되었다가, 건립자인 구봉령이 사후 제향됨.

계의 서원관은 이산원규에도 들어나며, 그 문인들에게 이어져 제향시설이 없어도 서원이라 명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sup>78)</sup>

한편 위 <표 8>에서 정리된 제향인물을 살펴보면, 3개소 이상의 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이황<sup>79)</sup>·이언적·김굉필·정여창·조광조 등 5명이다. 이들은 사람들이 東方五賢으로 추송하던 인물들로서 1570년(선조 3) 이후 문묘종사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들의 문묘종사운동은 사림의 도학적 정통성을 인정받아 그 집권의 명분을 확립하려는 사림계의 정치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sup>80)</sup>, 퇴계문인들도 같은 시기 이들 5현을 제향하는 서원을 가장 많이 건립했음이 확인된다. 특히 경현서원과 오현서원은 이들 5현을 제향하였다.

다른 제향인에는 중국계 인물로 공자, 주자, 정자가 있다. 중국 인물이 제향된 서원은 강릉의 오봉서원과 성주의 영봉서원, 그리고 음성의 운곡서원이다. 서원 건립 초기부터 지역과 관련이 있는 儒賢을 종사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봉서원의 경우 강릉과 관련한 유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자를 제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봉서원의 경우에는 제향인물을 둘러싼 장기간의 분쟁을 겪었던 곳으로서 천곡서원으로 改號한 후 道學을 기준으로 해서 주자와 정자, 그리고 김굉필을 제향했다.

다음으로 김종직, 김일손, 서경덕, 조식, 김인후, 권벌, 김안국은 모두 조선 전기의 도학자로서 명망이 높았으며, 사림파와 긴밀한 관련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김종직과 김일손은 길재로부터 연원하는 사림파의 嫡傳으로 이해되었으며, 서경덕과 조식은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 화담학파와 남명학파를 형성하였다. 김안국은 김굉필의 문인으로 도학에 통달하여 至治主義 유학을 선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제향인 중 前朝 인물로는 김유신, 최치원, 설총, 정몽주, 길재, 이곡, 이색,

78) 白鶴書院(영천)과 仙巖書院(청도)은 제향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며, 淸溪書院(강동)은 조호익이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의 건립을 도모했으나 완성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이다.

79) 이황은 사후에 제향인이 없던 이산서원과 연경서원에 제향되었다.

80)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pp.180~181.

우탁 등이 있다. 정몽주, 길재, 이색, 이곡, 우탁은 고려조 인물로 성리학의 수용과 연구에 있어 후학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길재는 사림파의 적통을 얘기할 때 첫머리에 드는 인물이고, 우탁의 경우에는 퇴계가 그를 제향하는 역동서원의 건립을 발의하기도 했다. 예외적으로 김유신, 최치원, 설총이 제향된 곳은 서악정사인데, 퇴계문인인 이정이 경주부윤으로 나가 건립한 것이다. 서악정사의 건립 과정에서 이정은 스승인 퇴계와 제향인물을 두고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정으로서는 경주지역의 인물인 신라 무열왕, 설총, 김유신, 최치원 등을 제향하려 했으나, 퇴계는 이들을 제향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서원보급운동의 초기 단계에 있어 퇴계와 그 문인들 간에 제향인물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준다.<sup>81)</sup>

이상에서 퇴계문인들의 서원에서의 존현에 대한 생각과 실제 그들이 건립한 서원의 제향인물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산서원, 연경서원 등 제향시설이 없이 건립된 서원의 존재에서 존현보다는 강학장수를 우선시한 퇴계 서원관의 일면과 더불어 그 생각이 문인들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원 건립에 祀賢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퇴계문인들은 道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퇴계의 생각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하여 서원을 세워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퇴계 이황은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욕적인 신진사람들에게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시켜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다가올 사림의 시대를 준비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서원에 주목했으며 그의 문인들과 더불어 서원 보급에 노력하였다. 실제로 퇴계는 백운동서

81) 조준호, 「퇴계 이황의 서원건립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2, 2006, pp.133~135.

원의 사액을 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산서원, 영봉서원, 역동서원의 건립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문인들이 관여한 임고서원(영천), 오봉서원(강릉), 서악정사(경주), 연경서원(달성), 옥천서원(순천), 예림서원(밀양), 남계서원(함양) 등의 건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퇴계 문인들은 출세주의·공리주의에 매몰된 관학에 대한 비판 위에서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서 서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스승인 퇴계의 서원 보급에 동참하였다. 또한 그들은 향촌 사림의 입장에서 성리학적 향촌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었으며, 이에 새로운 향촌 사림의 구심체로서 서원을 인식하고 건립에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뿐만 아니라 지방관으로 부임해서도 서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다. 특히 지방관으로 나간 문인들의 서원건립이 두드러진다. 모두 17명의 문인들이 지방관으로서 22개소의 서원건립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부임지에서 서원을 설립하는 논의를 주도하거나, 향인들의 서원 건립을 독려·권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또 건립 후에는 서원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다하고, 강학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서원의 운영에도 적극적이었다. 참여도의 차이는 있지만 초기 서원건립에 있어 지방관의 역할이 상당하였음을 고려하면 각 지역으로 부임해 나간 이들의 서원 건립 노력은 조선 서원의 확대·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지방 향인의 위치에서도 퇴계 문인들의 서원 건립 참여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들은 서원 건립의 뜻을 세우고 지방관의 지원을 이끌어 내었으며, 그 자신들도 건립비용을 부담하고 건립 상황을 감독하였다. 또 건립 후에는 서원에서의 강학활동에도 충실히 참여하였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두 56명의 문인들이 43개소의 서원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보면 전국적으로 건립된 서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에 이들이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지역적으로 경상도 지역에는 광해군대까지 건립된 서원의 55.2%에 퇴계문인들이 관여하였으며, 임란이전까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경상도 지역

의 서원 건립에 있어 퇴계문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상도에 비해 퇴계문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부분 임란 이전에 관계한 경우로, 조선 서원이 점차 발전해 가던 시기에 그 정착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퇴계문인들의 서원 건립은 퇴계의 서원관을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퇴계는 서원을 참다운 성리학 공부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림에 의한 강학, 장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院儒 스스로의 분발과 정진을 강조하였고 이록과 부귀를 피하는 공부, 특히 서원에서 과거 시험공부를 경계했다. 퇴계문인들 역시 과거급제를 위한 공부 일변도로 치닫고 있던 당시의 현실출세주의에 비판적 견해를 가졌으며, 이에 퇴계가 생각한 서원의 존재목적에 공감해 서원 건립에 동참하였다. 이들이 건립한 서원들에서는 퇴계가 지은 「이산원규」를 모본으로 하였으며, 성리서의 강론에 주력하였다. 또한 서원의 제향시설에 대해 제향인물과 사묘를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퇴계의 생각이 그 문인들에게도 계승되었다. 그 결과 연경서원과 같이 제향시설이 없이 건립되는 서원도 확인된다.

---

 참고문헌
 

---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列邑院宇事蹟』, 『俎豆錄』, 『書院可攷』, 『東國院宇錄』, 『增補文獻備考』, 『永嘉誌』, 『陶山及門諸賢錄』, 『臨臯書院誌』, 『五峯書院實記』, 『藍溪書院誌』, 『德川書院誌』, 『文獻書院誌』, 『雲谷書院誌』, 『退溪先生文集(李滉)』, 『竹老集(申活)』, 『梅軒集(琴輔)』, 『香湖集(崔雲遇)』, 『梅巖集(李叔梁)』, 『臨淵齋集(裴三益)』, 『介庵集(姜翼)』, 『晦堂集(申元錄)』, 『草澗集(權文海)』; 『白沙集(이항복)』, 『陰崖集(李耜)』, 『芝山集(曹好益)』, 『栢巖集(金功)』, 『東岡集(金宇顥)』, 『高峯集(奇大升)』, 『謙菴集(柳雲龍)』, 『鶴峯集(金誠一)』, 『靜庵集(趙光祖)』, 『牛溪集(成渾)』, 『栗谷全書(李珥)』, 『愚伏集(鄭經世)』, 『竹牖集(吳滢)』, 『冲齋集(權櫟)』, 『嘯阜集(朴承任)』, 『賁趾集(南致利)』, 『松巖集(權好文)』, 『국역 聯芳世稿』, 『寒岡集(鄭述)』, 『惟一齋先生實記(金彥璣)』, 『開巖集(金宇宏)』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 한국사연구지원보고자료집 6, 1999.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200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서, 2004.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순목, 『한국서원교육제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1986.

김중석, 「도산금문제현록과 퇴계 학통제자의 범위」, 『퇴계문화의 인물과 사상』, 예문서원, 2000.

박양자, 「퇴계의 서원교육의 특성」, 『퇴계학과 남명학』, 지식산업사, 2001.

설석규, 「16세기 전반 정국과 儒疏의 성격」, 『대구사학』 44, 1992.

송공섭, 「퇴계의 서원교육론 고찰」, 『한국의 철학』, 경북대 퇴계연구소, 1974.

송용재, 「대전-충남의 폐원우」, 『훼손서원조사보고』,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3.

송준식, 「남명학파의 서원건립 운동」, 『남명학연구』 15,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03.

원영환, 「강원지방의 서원연구-문암서원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사연구』 3, 199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정책과 서원의 설립 실태」, 『역사학보』, 2004.

이태진, 「사림과 서원」,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84.

-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전용우, 「호서사림의 형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정만조, 「퇴계학파의 서원(교육)론」, 『퇴계학과 남명학』, 지식산업사, 2001.
- 정순목, 「한강 정구의 교학 사상」, 『退溪門下の 인물과 사상』,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예문서원, 1999.
- 조준호, 「퇴계 이항의 서원건립활동과 서원론의 실현」, 『역사문화논총』 2, 2006.
- 황위주, 「서울 경기지역의 퇴계문인과 그 성격」,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3.

## Seowon Establishment Activities of the Toegye's Students

Kwon, Shi-Yong\*

This study is focused on Seowon(書院) establishment activities of the Toegye's students(退溪門人) involved in distributing Seowon based on the Toegye's theory of Seowon. Toegye intended to prepare for the coming era of Sarim(士林) by teaching Sung Confucianism to new powers in Sarim and establishing Sung Confucian(性理學) order in the local areas. He considered Seowon system as a distinctive means for his intention and strove to distribute Seowon along with his fellow scholars. This study indicates that 56 students of Toegye's participated in Seowon establishment in 43 places. Thi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half of the total number founded nationwide before the Imjin War(壬辰倭亂). In addition, it was proved that the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eowon establishment in Kyeongsang area(慶尙道).

Toegye's students made efforts to found Seowon not just at the very places where they lived but where they served as local officials and the latter, especially, came to remarkable results showing that 17 students as local officials founded Seowon in 22 places. They initiated the discussion about founding Seowon, encouraged local people to join the establishment activity, and provided them with administrative, financial support. They kept on

---

\* Institute for Research in Collaborationist Activities, senior researcher/ shiyongs@naver.com

supporting after completing Seowon through taking part in academic trainings(講學) and engaging in running Seowon. These facts tell us that they did play an essential role in introducing and spreading Seowon in the early Chosun Dynasty. In conclusion, Seowon establishment activities of the Toegye's students made its way to succeeding and developing the Toegye's theory of Seowon which was aimed at the academic training and moral cultivation of Sarim.

keyword : Lee Hwang(李滉), Seowon Establishment(書院普及), Toegye's students(退溪門人), Sarim(士林), Neo-Confucianism(性理學)

이 논문은 2019년 5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18년 6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 칠곡 인동장씨 정사·서당·서원 건립 활동과 성격

이해준\*

- 
1. 머리말
  2. 克明堂 張乃範과 不知巖精舍
  3. 晩梅堂 張慶遇와 花山書堂
  4. 後代 追崇과 花山書院
  5. 맺음말
- 

## 〈국문요약〉

정사·서당, 그리고 서원·사우는 향촌사회의 지성들이 접촉·교류하면서 학문전통과 지성사적 활동을 한 곳이며 자연·학연을 배경으로 여론과 공론 결집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이후 19세기 전반에는 문중중심의 경쟁적 성격도 강하게 지니게 된다.

본고가 주목하는 칠곡 인동장씨의 사례는 이러한 향촌사회의 사족 활동과 지역·학연의 문중 인물배출과 사회사적 활동 양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이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不知巖精舍, 花山書堂, 花山書院은 인동장씨 가문의 克明堂 張乃範(1563-1640)과 그의 아들 晩梅堂 張慶遇(1581~1656)의 유서가 서린 유적들로 향촌사회에서 자연과 학맥, 지성사적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진 조선후기 300여 년 간의 다양한 활동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부지암정사, 화산서당과 화산서원의 창건·운영과정을 통하여 여헌 장현광과 장내범·장경우 부자와 학연, 또한 서당과 사우, 서원의 연계성을 밝힐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칠곡 인동장씨의 사례를 통하여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학맥과 문중활동의 연계와 교류, 사회사적 성격을 한 사례로서 확인, 엿볼 수가 있다.

키워드 : 인동장씨(仁同張氏), 장내범(張乃範), 장경우(張慶遇), 부지암정사(不知巖精舍), 화산서당(花山書堂), 화산서원(花山書院)

---

\* 공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leehj@kongju.ac.kr

## 1. 머리말

서원과 사우는 지역의 지성들이 출입하고 접촉·교류한 상징적 기구로 지역의 학문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곳으로 사족들의 유대와 결속력을 보여주며, 지연·학연을 배경으로 여론과 공론 결집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이후 19세기 전반에는 문중중심의 경쟁적 성격도 강하게 지니게 된다. 조선후기 서원 남설은 향촌사회구조상 사족들이 차지하는 지위가 변화되는 것과 더 크게 관련된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서원들은 자신들의 종래 지위를 유지 혹은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건립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것이 바로 향촌세력(가문, 성씨, 문중)의 실체라 할 것이다.<sup>1)</sup>

본고가 주목하는 칠곡 인동장씨의 사례는 이러한 향촌사회의 문중 인물배출과 사회사적 활동 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아닌가 싶다. 칠곡군 석적읍 중리 진실은 인동장씨의 집성촌으로 서원과 서당, 재실 정자 등의 유교 문화경관이 집중된 곳이다<sup>2)</sup>. 그리고 필자가 본고에서 주목하는 不知巖精舍, 花山書堂, 花山書院은 인동장씨 가문의 克明堂 張乃範(1563-1640)과 그의 아들 晩悔堂 張慶遇(1581~1656)의 유서가 서린 유적들로 향촌사회에서 지연과 학맥, 지성사적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진 조선후기 300여 년 간의 다양한 활동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1) 이해준, 2000, 「조선후기 문중서원의 개념과 성격문제」, 『한국중세사론총』, 이수 건교수정년논총; 이해준, 2003,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 48집, 한국역사연구회

2) 花山書院, 花山書堂, 如此亭, 繼山齋, 永思齋, 枕流亭, 眞佳齋, 鳳陽齋가 그것으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문중의 유풍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화산서원과 더불어 여차정은 만회당의 차남인 南坡公의 강학지소이며 繼山齋는 晩悔堂 張慶遇의 3남인 參判公 원의 재실이고, 枕流亭은 參判公의 아들인 병사공 宇相의 정자로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永思齋는 만회당의 2남인 南파공의 3남 羽瀾의 재실로서 지파자손들의 공동회합장소, 제사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경지 정리로 鳳陽齋는 없어졌다.

1610년 克明堂 張乃範 등이 고을 선비들과 함께 부지암의 동남쪽 언덕 위에 旅軒 張顯光(1554~1637)을 위해 창건한 不知巖精舍는 정사의 이름을 여현이 지었을 뿐만아니라 旅軒의 학문이 구체적인 저술로 드러나는 모태이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대표적인 강학처이었다. 花山書堂은 晚悔堂 張慶遇(1581~1656)이 장수강학처로 그가 71세 되던 해인 1651년(효종 2)에 건립한 것이다. 그러다가 1853년 사우를 창건하고 花山書院으로 이름을 바꾸어 晚悔堂을 제향하기에 이른다. 물론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10여 년만인 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훼철되고 강당만 남아 전해 왔다. 이 유서를 이어 2007년에는 현재의 화산서원으로 복원하고 克明堂 張乃範(1563-1640)과 晚悔堂 張慶遇(1581-1656)를 제향하고 있으며 종중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종중회의를 개최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화산서원은 명실상부한 만회당 종중의 정신적 구심처이었으며,<sup>3)</sup>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0호로 지정(1989년 5월 29일)된 화산서당은 건물을 영남대학교 민속촌으로 이전 복원하였다<sup>4)</sup>.

본고에서 다루는 不知巖精舍, 花山書堂, 花山書院의 창건·운영은 조선후기의 향촌사회 사족활동과 그 모습을 전해주는 자료로서 여현 정현광과 장내범 장경우 부자와 학연, 그리고 서당과 사우, 서원의 연계문제, 나아가 향현사인 소암서원, 문중서원인 옥계사, 그리고 동락서원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부족하지만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조선후기 칠곡지역 인동장씨의 활동과 그 구체적인 유적으로 이들 不知巖精舍, 花山書堂, 花山書院의 사회사적 성격을 개관하고자 한다.

3) 화산서원, 2008, 『화산서원지』

4) 칠곡군 석적읍에 위치해 있던 화산서당은 주변지역의 개발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전 후보지 지역주민의 반발로 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2009년 인동 장씨 문중과 영남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교내 민속촌(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민속원)에 이전 복원하였다.

## 2. 克明堂 張乃範과 不知巖精舍

克明堂 張乃範(1563-1640)은 부친의 명으로 11세에 旅軒 張顯光(1554~1637)에게 수학한 인물로 旅軒에게 극명당이 최초의 제자인 셈이었다. 18세에는 寒岡 鄭述의 문하에서 학문의 폭을 더욱 넓혔고 특히 예학에 밝았다고 전한다.

극명당은 어린 나이에 부친이 돌아가시자 모든 상례를 여헌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金垓의 막하에서 整齊將으로 참여하여 군량미의 조달과 군수물자 지원에 크게 활약하였다.<sup>5)</sup>

극명당은 36세 되던 1598년에 인동에서 남쪽으로 30여리 떨어진 礮溪洞(칠곡군 석적읍 반계리)에 정자를 짓고 礮溪精舍라 하고 당호를 克明堂이라 하였다. 이 당호가 나중에 호가 되었다. 그의 11대손 張永文이 지은 「礮溪精舍記文」에 의하면 “반계동의 앞은 큰강(낙동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첩첩이 둘러싼 봉우리들이 좌우에 울퉁불퉁 솟아있는 골이 깊고 으스스한 곳으로 맑은 시내가 흐르니 진정으로 은자가 소요하면서 즐길 곳이다. 또 礮溪라는 이름은 강태공이 낚시질하던 곳과 같으니 기이하다”고 하면서 물과 산이 잘 어울리는 승경을 묘사하면서 선생을 강태공과 같은 은자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의 성취에 대하여는 “당시 스승께서 칭찬하셨고 마음 맞는 벗들도 의지하고 중히 여기며 추앙하였으니 그 세운 뜻의 고원함과 지키는 바가 확고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6)</sup>.

克明堂 張乃範은 39세(1601년) 때 아들 張慶遇를 시켜 입암에 우거하던 여헌 선생을 모셔왔다. 여헌 선생은 한해 겨울을 이 정사에서 지내면서 찾아오는 친구들을 영접하고 문안하는 제자들을 맞이하였다. 극명당은 난리 후 아직 안정되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선생을 극진히 받들어 모시고 많은 손님들

5) 張悌元, 『深谷先生集』 卷2, 雜著, 「倡義條約」.

6) 張永文은 또 극명당이 이 정사에 기거하면서 藏修하는 모습을 “안으로는 스스로에게 있는 덕을 더욱 밝히고 밖으로는 옛사람의 정취에 가탁하여 그 道에 自適하면서 金丹으로 養生하였다”고 한다.

을 정성껏 접대하였다.<sup>7)</sup>

그리고 1610년에는 克明堂 張乃範 등이 고을 선비들과 함께 낙동강변 부지암의 동남쪽 언덕 위에 旅軒 張顯光(1554~1637)을 위해 不知巖精舍를 창건한다. 정사의 이름은 여현이 명명한 것으로, 부지암정사는 旅軒 張顯光의 학문이 구체적인 저술로 드러나는 모태이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대표적인 강학처이었다. 克明堂 張乃範은 부지암정사 건립에 성의를 다하였고 당시 부지암정사 건립에 깊이 관여한 문인들을 ‘樑頌十五賢’이라 칭하는데 그중 대표적 인물로 극명당은 거론된다.<sup>8)</sup>

여현이 세상을 떠난 후 1655년(효종 6) 부지암정사 자리에 克明堂 張乃範의 아들 晚悔堂 張慶遇에 의하여 旅軒 張顯光을 제향하는 不知巖書院이 세워졌고, 1676년(숙종 2)에는 ‘東洛書院’으로 사액되기에 이른다. 동락서원은 선현 제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다가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현재 복원된 동락서원의 오른쪽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不知巖精舍는 동락서원이 훼철된 뒤인 1885년에 중건되었으나 이후 퇴락을 거듭하자 1932년 사당을 복설하였고, 곧이어 1934년에 晚悔堂 張慶遇(1581~1656)를 함께 제향하기 시작하였고, 1975년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9)</sup>

그리고 극명당은 1634년(인조 12) 난리에 소실된 반계동 종가를 중창하기

7) 극명당 장내범은 한평생 벼슬한 일이 없다. 오직 향곡에서 학문하고 덕을 쌓으면서 담박한 일생을 사셨다. 1606년(선조 39) 44세의 나이로 才行과 德望이 특출하여 천거되었고 1622년(인조 원)에도 천거되었으나 벼슬을 제수 받은 일은 없다. 은덕처사로서 일생을 살면서 선생의 명에스러운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나라에서는 선생의 덕을 기려 공조참판의 증직을 내렸다

8) 극명당은 1611년에는 오산서원 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한다. 한편 극명당은 이때에 旅軒 張顯光의 지시로 自醒亭 張光翰과 함께 족계를 복원하고 27조의 조문을 확정하여 문중에 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족계는 임진왜란 전에 竹亭 張潛과 판서 張烈(여현의 부)에 의해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었는데 난리로 인하여 死文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9) 동락서원은 낙동강이 바라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세워져 있으며 정면 3칸·측면 1칸 규모의 팔작지붕 문루인 遵道門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 21호로 지정된 강당 건물인 中正堂을 비롯하여 사당인 景德廟, 동·서재인 權執齋와 允懷齋, 신도비각 등이 있다. 유물로는 장현광의 유품 및 문집 7권 등이 있다.

도 한다. 여헌 선생은 증창기문에서 “우리 종가가 임진왜란에 불탄 것이 지금 40년이 되었다 중손 乃範이 그 타다 남은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옛 기초를 다시 축조해서 기둥을 세우고 상량을 하였다” 고 하였다. 이 기문을 통해 克明堂 張乃範이 종가가 왜란으로 불탄지 40년 만에 복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종가 증창과 함께 극명당은 종인들을 모아서 극명당의 20대조인 시조 삼중대광공을 제향한다.

### 3. 晩悔堂 張慶遇와 花山書堂

晩悔堂 張慶遇(1581~1656)는 조선 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仁同, 자는 泰來, 호는 晩悔堂이며, 克明堂 張乃範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한산이씨로 진위장군 李雲培의 딸이다. 여헌 장현광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는 10여세의 나이로 할머니를 모시고 금오산·청송 등지를 전전하면서 피란하였다. 1608년 난 후 학교를 부흥시키고자 「학교의식」을 지어서 학교교육의 지침으로 삼았다.

寒岡 鄭述가 반대파의 모해로 관직을 삭탈 당하자 경상도내 유생들을 권유하여 함께 辨誣疏를 올렸으며, 1621년(광해군 13) 인목대비의 폐모론이 일어나자 영남 유생들과 상소하여 이를 반대하였고, 이이첨이 권세를 잡고 국정을 어지럽게 하니 「請斬李爾瞻疏」를 올려 이이첨을 참수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1627년(인조 5)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모아 의병장이 되어 江都까지 출정하였으나 조정이 강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인동 의병장에 차정되기도 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상에 3년간 시묘하였다. 고향에 머물면서 스승 장현광의 문집인 『旅軒集』을 간행하고 『祭先儀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花山書堂을 건립하여 후진의 교육에 힘쓴 것으로 유명하다.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111번지(석적읍 유학로 87(중리))에 건립된 화산서당<sup>10)</sup>은 晩悔堂 張慶遇(1581~1656)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71세 되던 1651년(효종 2)에 세운 유적이다. 최초에는 성곡리 화산 아래로 남향 한 기슭의 계곡 폭포 옆에 건립하였다. 이곳은 밑에 50척 細瀑이 있고 그 물이 돌아나가서 못이 되었는데 만회당이 생전에 항상 애호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유상하던 곳이었다. 일향의 사우들이 초옥을 건축하여 선생의 棲息藏修의 처소로 삼았던 것이다.<sup>11)</sup>

한편 晩悔堂 張慶遇의 향촌 사족활동은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 그는 강회를 통한 다양한 강학활동과 함께 만년에 화산서당을 창설하고 다양한 향촌 사족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런가하면 향약의 실시와 不知巖精舍에 여현의 위패를 봉안하여 동락서원의 건립유서를 마련하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한다.

旅軒 張顯光 문하로 『旅軒集』에 수록된 「及門錄」에는 3백여 명을 상회하는 문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중 여현의 대표적인 문인들을 공자의 제자들을 본떠 ‘旅門十哲’, ‘旅門十賢’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부지암정사 건립에 깊이 관여한 문인들을 ‘樑頌十五賢’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앞에서 밝혔지만, 張慶遇의 경우 이들 세 곳에 모두 포함될 정도였다.<sup>12)</sup>

晩悔堂 張慶遇는 66세 되던 1646년(인조 24) 향약을 창설하고 「선약적서」를 저술하였다. 당시 향속이 점점 쇠퇴함을 보고 ‘남전여씨의 향약을 시행하면 말세에 악속이 없을 것이요, 주자의 사창법을 시행하면 흥년에 기민

10) 1989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11) 화산서당은 1853년 화산서원으로 창건되기 전까지 이후 후손들에 의하여 제향지소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종중의 모든 대소사와 종중성원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 역시 이 서당에서 개최하였다.

12) 旅門十哲: 金慶長(1597~1653)·金應祖(1587~1667)·盧亨弼(1605~1644)·柳軫(1582~1635)·申悅道(1589~1659)·李紬(1599~1669)·張慶遇(1581~1654)·鄭克後(1577~1658)·鄭四震(1567~1616)·趙任道(1585~1664)  
 旅門十賢: 權對(1592~1672)·金慶長(1597~1653)·金應祖(1587~1667)·柳軫(1582~1635)·申悅道(1589~1659)·安應昌(1593~1673)·張慶遇(1581~1654)·鄭克後(1577~1658)·鄭四震(1567~1616)·趙任道(1585~1664)

이 없으리라' 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향 사우들과 함께 상의하여 향약의 조목을 정하고 선악적(善惡)을 향당에 비치하여 권징하는 방안을 삼았다. 그 선적(善積), 악적(惡積)서문에서 만회당은

- 선적부를 비치하고 여기에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 말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만약 그 착한 마음을 끝끝내 보지하지 못하고 혹시 불선한 지경에 빠진다면 이 선적부 보기에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요.
- 악적(惡積)서문에 대략 가로되 ..... 의리를 저버릴 수 없음과 물욕을 이겨야 되다는 것을 잘 살피서 기탄하는 바가 있어야 저절로 능히 악을 하지 않게 되느니라. 그러나 세간에는 기탄하는 바 있는 이가 항상 적은 까닭에 부득이 과조를 세워서 징치하여서 기심한데 이르지 않도록 함이 이 악적(惡積)부를 비치하는 소이라. .... 해가 뜨면 양명하고 해가 지면 음특하듯이 형상이 없더라도 백성이 선행을 좋아하여 향속이 크게 변화하여 모두 함께 유신함으로써 악적(惡積)부에 기재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악적(惡積)부를 비치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라 하고 있다.

한편 75세 되던 1655년(효종 6) 9월에는 鶴沙 金應祖, 懶齋 申悅道, 聽天堂 張應一 등과 더불어 不知巖書院에 스승인 여헌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不知巖精舍는 여헌 선생이 강도하던 곳이니 서원이 없을 수 없다고 건의하여 정사의 옛터에 다시 영건하고 오산으로부터 위판을 받들어 이안하였고 아울러 眞像도 북벽에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20여 년 후인 1676년(숙종 2)에 '東洛書院' 으로 사액을 받았다. 처음 여헌을 초빙할 때 모셔온 것이나, 이처럼 서원 건립에 공이 있는 만회당은 1934년 동락서원에 추배 제향되기에 이른다.

그런가하면 만회당은 67세 되던 1647년(인조 25) 奉先儀節을 강론하여 당시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자 『봉선의절』을 정하였다. 만회당은 제수를 마련함에 있어서 혹 몸소 漁獵하기도 하여서 제사를 극력 豊潔히 하도록 힘

썼고, 세인이 時祀에 薦茶하는 외에 墓祀, 忌祭祀를 여러 자손들이 輪行하던 것을 반드시 제주 일체를 도맡아 주관하기도 하였다. 평소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상을 당해 3년간 시묘하였다. 재행이 탁이함으로써 여러 번 천거 되었으나 74세 되던 1654년(효종 5)에 처음으로 英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656년(효종 7) 10월 14일 76세를 일기로 만회당에서 졸하였다. 묘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동의 鼎山에 있으며, 묘지명은 鶴沙 金應祖가 짓고 묘갈명은 聽天堂 張應一이 썼다. 저서로 『晚悔堂集』 4권 2책이 1862년(철종 13) 간행되었으며, 정헌 이종상이 서문을 짓고 9대손 장두현이 발문을 썼다<sup>13)</sup>. 사후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에 추증되었다. 花山書院과 玉溪祠, 東洛書院에 제향되었다.

#### 4. 後代 追崇과 花山書院

인동장씨 극명당과 만회당의 후대 추승활동으로는 문중서원인 玉溪祠에 극명당, 만회당이 추배제향(1774, 1777) 되는 것과 향현사 嘯巖書院에 극명당이 제향(1803)되는 것, 그리고 화산서원의 창건(1853) 활동을 들 수 있다.

玉溪祠는 동지중추 張趾學을 중심으로 여러 종인들이 협력하여 인동장씨 대종택에서 남동쪽 옥계천 옆에 창건하여 두문동 72현 중 한 분인 고려 충신 충정공 張安世를 주벽으로 하고 그 자손 중 학행이 출중한 8명을 종향하던 문중사우이다. 한강과 여현의 문하에서 수학한 克明堂 張乃範은 쟁쟁한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학문과 덕행으로 주위에서 명성을 얻었으므로 사후 130

13) 선생은 일찍이 여러 자손들에게 “덕행과 문장과 사업을 모두 자기 분수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어찌 후세에 전할 것을 피하겠는가.” 고 하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가식이고 진실한 삶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 년이 지난 1774년(영조 50)에 玉溪祠에 추배 봉안되었다. 그리고 아들인 만회당 장경우도 1777년(정조 1) 옥계사에 추배 봉안되는데 이때 南村 宋履錫이 봉안문을 지었다.<sup>14)</sup>

한편 克明堂 張乃範은 1847년(헌종 13) 유림의 공론으로 嘯巖書院에도 제향되는데, 소암서원은 숙종 29년(1703)에 張벽, 張世徽, 朴廷奭 등 일향 사족 20여 명이 발기하여 칠곡군 기산면 평북리에 건립했던 소암사가 발전한 서원이다. 창건시에 投巖 蔡夢硯(1561-1638)과 栢浦 蔡楸(1588-1670) 부자를 제향했는데 순조 3년(1803)에 서원으로 승격하였고 헌종 13년(1847)에 극명당 장내범을 추배하였다.<sup>15)</sup>

蔡夢硯(1561-1638)은 한강의 문인으로 고매한 학문으로 유림에서 추중하였고 아들인 蔡楸(1588-1670)는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좌랑에 이르렀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각 고을로 다니면서 근왕병을 초모하였으나 굴욕적인 강화가 이루어짐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은덕자중하면서 후진을 길렀던 인물이다.

당시 추배할 때의 「사림통문」에 보면 극명당은 여헌의 뛰어난 제자라는 점과 특히 가장 먼저 수학한 제자라는 점, 효제로서 쌓은 행실은 여헌 선생도 인허하였던 바이고 고명하고 광대함은 동배들이 칭송한다고 강조한다.

한강 선생의 문하에 종유하여 예학을 더욱 밝히고 여러 현인들의 말씀을 두루 참고하여 예를 알맞고 성대히 하여 향리에서 쓰게 하니 지금 후생들이 본받고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년 동안 우러러 사모하기를 하루 같이 하여 도내에

14) 한편 만회당은 1834년 동락서원에의 추배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앞에서 만회당이 만년인 1655년 부지암정사에 여헌의 위패를 이안하고 동락서원의 유서를 만들었고 1676년(숙종 2)에 東洛書院으로 사액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1843년(헌종 9) 興海 張心學 등 유생들이 인동의 만회당 장경우를 동락서원에 배향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34년 만회당이 처음 여헌을 초빙할 때 모셔온 인연이나, 서원 창건에 공이 있다하여 동락서원에 추배되기에 이른다. 당시 고유문은 見山 張命相이 지었고, 1971년에 동락서원이 복원되자 위판을 景德廟에 함께 모시고 있다.

15) 嘯巖書院은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고종 8년(1871)에 조령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1932년 강당을 복원하여 소암서당이라 하였다.

서 공식적인 논의가 여러 번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추송하지 못하여] 선배들이 유한을 머금고 후생들이 원한을 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846년 겨울에 크게 논의가 일어나서 장차 투암 채 선생과 백포 채 선생과 함께 소암서원에 병향하고자 통문을 돌린다

통문을 받은 각 문중 각 서원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고 찬동하는 회신이 접수되어 추배가 이루어졌고, 당시의 봉안문은 古溪 李彙寧(1789-1861)이 찬하였다. 고계는 퇴계 이항의 종손으로 가학을 계승하였던 당대의 이름 있는 학자이며 특히 성리학 연구에 전심하였고 밀양부사, 동래부사를 역임하였으며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화산서원 창건도 1853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신이 되는 화산서당의 창건과 에 대하여는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화산서당은 晩悔堂 張慶遇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만회당이 71세 되던 1651년(효종 2)에 세운 유적으로 일향의 사우들이 초옥을 건축하여 선생의 棲息藏修의 처소로 삼았던 곳이다. 그 후 화산서당은 사림의 여러 의견에 따라 1840년(헌종 6) 석적읍 중리에 옮겨 세웠다. 강당을 낙성(상량문, 장석우 찬)하면서 고을 사림들이 선생의 장수지소였던 화산서당을 제향의 장소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묘우를 세우기엔 터가 너무 좁아 수궁거리인 석적면 중리로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사우 건립은 시일이 좀 지난 1853년에야 이루어졌고, 사우건립과 함께 화산서원으로 승격시키면서 만회당 장경우를 제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제향 후 20년도 채 안되어 화산서원은 1871년(고종 8) 서원훼철령에 의해 훼철되었다. 이때 사우는 훼철되었고 강당만은 보전되어 화산서당의 면모가 이어지게 되었다.<sup>16)</sup>

화산서당은 선생이 생전에 藏修하던 곳으로 그 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16) 강당은 규모가 앞면 5칸·옆면 3칸이다. 가운데에 개방된 마루를 두고 양쪽으로 온돌방을 둔 형태이다. 팔작지붕으로 지붕의 처마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데, 우리나라 전통가옥 지붕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1989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창건 후 190여 년이 지난 1840년(헌종 6)에 화산서당을 이긴하면서 강당을 먼저 세웠다. 강당의 상량문은 新齋 장석우가 찬했다.

그리고 이때에 향내 사람들이 모여 만회당을 제향하는 사우의 건립이 발의되었고 자세한 저간의 사정은 알려지지 않으나,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853년(철종 4)에 사우가 완공되어 화산서원으로 명명되면서 만회당의 위판을 봉안하기에 이른다. 당시 사우 상량문도 古溪 李彙寧(1789-1861)이 찬하였다.

화산서원은 불행하게도 고종 8년(1871)에 조령에 의해서 훼손되어 자손들이 몹시 애통해 하고 사립들도 매우 애석하게 여겨왔다. 선생의 학문과 덕행으로 보아 마땅히 복원되어야 한다는 증론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시대적 여건과 경제적 뒷받침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가 2006년 음력 11월 17일에 “화산서원 복원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복원 취지문을 만장일치로 2007년 가을에 복원 고유제를 올리고 복원을 이루게 되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칠곡지역 인동장씨의 활동과 그 구체적인 유적으로 부지암정사, 화산서당, 화산서원을 중심으로 사회사적 성격을 개관하여 보았다.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학맥과 교육, 지성활동의 거점이 되었던 정사, 서당, 그리고 지역의 학문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서원과 사우의 모습, 특히 인동장씨들의 인물 배출과 그들의 유적들이 지닌 사회사적 의미를 사족간 유대와 결속을 인동장씨의 사례로 살핀 것이다. 부지암정사, 화산서당과 화산서원의 창건·운영은 조선후기의 향촌사회 사족활동과 그 모습을 전해주는 자료로서 여현 장현광과 장내범·장경우 부자와 학연, 그리고 서당과 사우, 서원으로의 발전과정 등등을 엿보게 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不知巖精舍, 花山書堂, 花山書院은 인동장씨 가문의 克明堂 張乃範

(1563-1640)과 그의 아들 晚悔堂 張慶遇(1581~1656)의 유서가 서린 유적들로 향촌사회에서 지연과 학맥, 지성사적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진 조선후기 300여 년 간의 다양한 활동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1610년 克明堂 張乃範 등이 고을 선비들과 함께 부지암의 동남쪽 언덕 위에 旅軒 張顯光(1554~1637)을 위해 창건한 不知巖精舍는 정사의 이름을 여현이 지었을 뿐만아니라 旅軒의 학문이 구체적인 저술로 드러나는 모태이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대표적인 강학처이었다. 花山書堂은 晚悔堂 張慶遇(1581~1656)이 장수강학처로 그가 71세 되던 해인 1651년(효종 2)에 건립한 것이다. 그러다가 1853년 사우를 창건하고 花山書院으로 이름을 바꾸어 晚悔堂을 제향하기에 이른다. 물론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10여 년만인 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훼철되고 강당만 남아 전해 왔다. 이 유서를 이어 2007년에는 현재의 화산서원으로 복원하고 克明堂 張乃範(1563-1640)과 晚悔堂 張慶遇(1581~1656)를 제향하고 있으며 종중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종중회의를 개최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화산서원은 명실상부한 만회당 종중의 정신적 구심처이었고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20호로 지정(1989년 5월 29일)된 화산서당은 건물을 영남대학교 민속촌으로 이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부족하지만 부지암정사, 화산서당, 화산서원의 사회사적 성격을 조선후기 칠곡지역 인동장씨와 지역 사족활동과 연계하여 살펴 보았다. 이러한 칠곡 인동장씨의 사례를 통하여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학맥과 문중활동의 연계와 교류, 사회사적 성격을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동양학』 23집, 단국대동양학연구  
구소, 1993.
- 김무진, 「조선후기 서당의 사회적 성격」, 『역사와 현실』 16집, 한국역사연구회,  
1995.
- 이해준, 『조선시대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의 개념과 성격문제」, 『한국중세사론총』, 이수건교수  
정년논총, 2000.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화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  
연구회, 2003.
- 박성용, 「전통의 생산과 유교문화경관의 공간적 실천」, 『대구경북학논총』 창간  
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5.
-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 최정준, 「晩悔堂의 생애와 학문」, 『동양고전연구』 제29집, 동양고전연구회,  
2007.
- 화산서원, 『花山書院誌(증보판)』, 2007.
- 화산서원, 『克明堂先生과 晩悔堂先生』, 2008.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영남대학교 박물관, 『花山書堂 移轉 復元報告書』, 2010.
-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 The Indong Jang's monastery(精舍) · academy(書院) · school(書堂) establish activities and character of Chilgok

Lee, Hae-Jun\*

Monastery(精舍) · school(書堂) and academy(書院) · shrine(祠宇) is a place that within intellectuallies contact and at same time connect with learning tradition in rural society. School ties as a background it will concentrated the public opinion & general opinion of Political Influences. Focus of the family's competitive character became more intensionally after the late 18thcenturytoearly19thcentury.

This article focus on Indong Jang's hereditary gentry activities of Chilgok and it's a historical data about school ties families of their great talents appear successively, in the meantime that show social activities with us. This article concentrate on Pu Ji Am monastery(不知巖精舍), Hwa san school(花山書堂) and Hwa san academy (花山書院), Which is a family of Jang nea beom張乃範(1563-1640) and his son Jang kyong ou張慶遇 (1581~1656), From his testament we will know rural society's intellectuallies contact and go through with this we will clear about later 300 years of Joseon Dynasty. Through with Pu Ji Am monastery(不知巖精舍), Hwa san school(花山書堂) and Hwa san academy (花山書院) we will know Jang hyung kyang張顯光&Jang nea beom Jang kyong ou's (張乃

---

\*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honorary professor leehj@kongju.ac.kr

範·張慶遇) school tie, as well as clarify the difference of school(書堂) and academy(書院)·shrine(祠宇). Also through the example of Indong Jang's we will know later Joseon's rural society.

Key Word : Indong Jang's (仁同張氏), Jang nea beom(張乃範), Jang kyong ou(張慶遇), Pu Ji Am monastery(不知巖精舍), Hwa san school (花山書堂), Hwa san academy(花山書院)

이 논문은 2019년 5월 27일 투고 완료되어  
2018년 6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 ‘향(鄉)’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

한재훈\*

- 
- I. 서론
  - II. 유학적 실천 공간으로서 ‘향(鄉)’
  - III. ‘향(鄉)’에 대한 교화 활동: 향약(鄉約)
  - IV. ‘향(鄉)’에 대한 교화 활동: 서원(書院)
  - V. 결론
- 

## 〈국문초록〉

퇴계는 ‘鄉’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층위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우선,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 친척과 친지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도 돌아가야만 하는 곳 즉, ‘고향’의 의미로 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음으로는, 나라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곳, 그래서 문화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곳, 다시 말하면 ‘시골’이라는 의미로 ‘鄉’이라는 단어를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교화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마지막 용례는 위의 두 가지 용례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즉, 문화와 교양의 수준이 낮은 ‘시골’이기 때문에 교화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바로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당위는 더욱 절실하다. 또한 ‘鄉’이 유학자들에게는 ‘家’의 연장이면서 ‘國’으로 나아가는 연결체적 성격을 갖는 곳으로 이해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조선향약’의 실질적 물꼬를 튼 것은 퇴계의 「鄉立約條」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후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이를 굳이 ‘鄉約’으로 명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권도적 내용은 생략하고 징벌적 내용으로만 채움으로써 일반적인 향약의 체제를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명목상으로도 내용적으로든 ‘鄉’단위의 교화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과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鄉’의 교화와 관련하여 퇴계가 주목한 것은 오히려 ‘書院’이다. 퇴계가 남긴 여러 서원의 記文 등을 살펴보면, 퇴계는 교육을 시행하는 근본 이유가 ‘좋은 나라’를 구현하는 데 있음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으로 ‘선비들의 기풍 변화’와 ‘아름다운 풍속’을 들었다. 즉, 좋은 나라[國]는 결국 아름다운 풍속을 가진 고을[鄉] 또는 집안[家]을 전제로 가능하며, 그것은 다시 그것을 만들어갈 주체인 선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서원의 존재 이유와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주제어: 退溪 李滉, 鄉, 鄉約, 「鄉立約條」, 書院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kjydist@daum.net

## I. 서론

性理學은 儒學을 개창한 孔子에 관한 기록인 『論語』와 공자의 도를 전승한 孟子의 저술인 『孟子』와 더불어 『禮記』에 수록된 「大學」과 「中庸」 두 편을 表彰하여 四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리학적 유학 공부의 정식 커리큘럼으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朱子(朱熹: 1130-1200)는 四書 모두에 주석을 한 四書集註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성리학적 프리즘을 통해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었다. 주자는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학』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자신이 이 책에 쏟은 열정이 『資治通鑑』을 완성한 溫公(司馬光: 1019-1086)이 “나의 평생 정력이 이 책에 다 들어있다”고 한 말에 견줄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sup>1)</sup>

주자는 『禮記』 속에서 「大學」이라는 편을 독립시키고 『大學章句』와 『大學或問』을 통해 자신의 성리학적 이론체계에 따라 『大學』을 새롭게 해석하는 토대를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자는 기존의 해석들과 다른 독창적인 견해를 개진하였을 뿐 아니라, 「大學」의 원문에 대해 ‘錯簡’의 혐의를 두어 글의 순서를 재편하였고, 심지어는 ‘闕文誤字’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원문을 수정하는 실험을 감행했다. 물론 주자는 자신의 실험이 도망갈 수 없는 ‘僭踰’의 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이러한 실험이 ‘修己治人’과 ‘化民成俗’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확신 또한 있었다.<sup>2)</sup>

『대학』에 투영된 ‘수기치인’과 ‘화민성속’에 대한 성리학적 목적의식은 『대학』의 三綱領 중 하나인 ‘親民’을 ‘新民’으로 수정해서 해석한 데 잘 드러난다. 원래 『예기』 속 「大學」의 ‘親民’은 대상으로서 ‘民’과 그에 대한 주체로서 ‘君’이 전제된 수직적 통치논리 위에서 설정된 것이었다. 이는 그에 앞서

1) 『大學章句』「讀大學法」: “溫公作『通鑑』, 言‘平生精力盡在此書’, 某於『大學』亦然.”

2) 『大學章句』「序」: 極知僭踰無所逃罪, 然於國家化民成俗之意, 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

제시되어 있는 ‘明明德’이 이미 ‘君’의 실천덕목으로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과 호응한다. 이러한 의미구조로 세팅된 ‘親民’을 주자가 굳이 ‘新民’으로 수정한 데는 「大學」을 기존의 사회적·문화적 문법으로 읽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의도는 주자 자신이 ‘新民’이라는 수정된 입장을 천명해놓고도 정작 ‘民’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新人’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자는 ‘君’에서 ‘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己’에서 ‘人’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大學」의 綱領을 해석하고 싶었던 것이다.<sup>3)</sup>

주자는 ‘親民’을 考證이나 訓詁의 입장에서 ‘新民’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性理學의 이론적 토대 위에 구축된 철학적 문제의식에 따라 제기된 일종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魏·晉시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士’계층의 사회적·문화적 주체의식이 결합된 사고의 경학적 선언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자의 ‘新民(新人)’ 해석은 세상을 이끌어갈 역할주체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긴밀한 함수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은 주자의 성리학을 학습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본 논문은 ‘鄉’이라는 특수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退溪(李滉:1501-1570)의 이해와 실천을 ‘수기치인’과 ‘화민성속’이라는 성리학적 기조 위에서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기획을 한 까닭은 우선 ‘수기치인’과 ‘화민성속’이라는 구도에서 ‘鄉’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대응에 관해 검토하고 싶은 개인적 호기심이 있기도 했지만, ‘鄉’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대응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대체로 향촌지배층의 정치공학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한 학술적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이에 관해서는 한재훈, 「朱子の ‘新民’ 해석과 ‘道統論’의 함수 관계」, 『공자학』22, 2012 참조.

## Ⅱ. 유학적 실천 공간으로서 ‘향(鄉)’

퇴계는 ‘鄉’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층위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sup>4)</sup> 우선,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 친척과 친지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도 돌아가야만 하는 곳 즉, ‘고향’의 의미로 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관직에 종사하고 있던 퇴계는 세밀에 고향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고 자신의 심정을 「歲季得鄉書書懷」라는 장편의 시에 담았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나온다.

고향에서 온 여러 장의 편지, 한 글자 한 글자 친척과 친지들의 글씨네. …… 평안들 하시다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만, 기쁨이 크니 도리어 울적해지네. …… 달리는 듯 시간은 멈추지 않아,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 객지의 잠자리는 근심이 많아, 꿈속의 혼은 번번이(고향으로) 날아가네. …… 벼슬에 대한 생각이 야 쉽게 사그라지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막을 수가 없네. …… 5)

산 설고 물 설은 객지에서는 언제나 고향이 그리웠다. 그곳에는 혈육을 나누었거나 술한 시간을 함께 한, 내 삶에서 도려낼 수 없는 그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온 편지에 그들이 쓴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은 마치 그들과 대면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다. 편지를 통해 다들 평안하다는 소식에 몹시 기뻐하다가, 문득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외떨어져 있는 객지의 신세가 더욱 울적하게 다가온다. 하물며 거기에 세밀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더해지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배가 된다.

시에는 ‘鄉書’와 ‘鄉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4) 물론 아래에서 살펴볼 ‘鄉’에 대한 인식은 퇴계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유학자(성리학자)가 ‘鄉’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실천적 대응을 보여주었는가를 퇴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5) 『退溪全書』卷1, 「歲季得鄉書書懷」: “鄉書十數紙, 字字親舊筆. …… 豈不喜平安, 喜多情轉鬱. …… 馳光忽不淹, 逼此歲除日. 客枕多憂思, 魂夢輒飛越. …… 宦情易成歇, 鄉心不可遏. …… ”

宦情과 대비된 鄉心이다. 퇴계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까닭은 관직생활 때문이다. 혹여 관직생활에 연연하거나 골몰하여 열중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미 관직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렸거나 염증을 느껴 초탈해 있다면 벼슬살이 때문에 객지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 때문에 도리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욱 가눌 수 없을 것이다.

퇴계가 鄉心을 宦情과 대비하여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향은 무의미한 방황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안식처이다. 그래서 퇴계의 글들에는 下鄉, 歸鄉, 還鄉 등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표현들이 많이 발견된다. 퇴계의 대표적인 상소문 중 하나인 「戊辰六條疏」에도 “신은 초야의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재능도 없고 쓸모도 없기에 나라를 섬기는 것도 형편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와 죽기를 기다렸더니...”<sup>6)</sup>라는 언급이 있다.

이렇듯 고향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鄉은 내 삶이 시작된 곳이자 추억이 있는 곳이며 그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운 곳이다. 그래서 객지의 방황을 끝내고 안식을 취하고자 할 때 돌아가게 되는 곳이며,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곳이다.

다음으로 鄉은 나라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곳, 그래서 문화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곳, 다시 말하면 ‘시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먼저 ‘鄉村’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1569년 퇴계는 이조판서에 제수되자 이를 거두어줄 것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린다. 이 글에서 퇴계는 자신에게 이조판서가 제수되게 된 것은 자신이 오랜 기간 鄉村에 살다보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명을 철회해달라고 말하고 있다.<sup>7)</sup> 이때 퇴계는 鄉村이라는 말 앞에 ‘遠外’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鄉村의

6) 『退溪全書』卷6, 「戊辰六條疏」: “臣以草野微蹤, 散材乏用, 事國無狀, 歸鄉俟死. ……” 퇴계는 같은 책 卷7, 「乞致仕歸田劄子二【二月二十九日】」에서 “乞解職歸鄉”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7) 『退溪全書』卷8, 「吏曹判書病告乞免狀一【己巳正月六日】」: “近年長在遠外鄉村, 一時人才物論矇然不知東西, 莫大重任, 如臣庸謬, 加此老昏沈痼, 豈敢忝竊曠廢, 以累聖治.”

지역적 궁벽성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즉, 鄕村은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상호간에 정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라는 뜻이다. 퇴계가 鄕을 ‘의약품조차 변변히 없는 곳’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8)</sup>

유사한 의미로 ‘鄕里’라는 단어도 있다. 鄕村과 마찬가지로 鄕里라는 단어 역시 자체로는 ‘고향 마을’ 또는 ‘시골 마을’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이 어떤 말들과 함께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계는 鄕里라는 단어를 道理나 事理에 어두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맥락에서 사용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퇴계는 鄕里를 ‘진부한 사람[陳人]<sup>9)</sup>, 흔해빠진 사람[常人]<sup>10)</sup>을 지칭할 때 수식어로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sup>11)</sup>,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낙네’<sup>12)</sup>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sup>13)</sup> 등의 표현과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퇴계는 ‘鄕曲’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sup>14)</sup>

세 번째로 ‘鄕’은 교화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로 언급되었다. 퇴계가 언급한 鄕法과 鄕禮 또는 鄕儀 등이 모두 이와 같은 교화의 필요성 측면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다.<sup>15)</sup> 이러한 이해는 우선 위에서 예시한 두 번째 의미와

8) 『退溪全書』 卷9, 「答宋台叟【丙辰】」: “滉積聚痞脹, 往往劇甚, 鄕無醫藥, 坐待天之所處如何, 不能深以爲憂.”

9) 『退溪全書』 卷9, 「答任方伯【丁未】」: “如滉上負國恩, 下媿時賢, 直作一鄕里之陳人, 枉過了一生, 緣病至此, 浩嘆奈何?”

10) 『退溪全書』 卷9, 「答宋台叟【庚申】」: “滉積衰積病, 心昏目昏, 椎鈍日甚, 爲一鄕里常人, 壘政疲氓, 時復顧念, 平昔無一事滿人意者.”

11) 『退溪全書』 卷22, 「答李剛而【丁卯】」: “欲揀鄕里人子有至性而不識理者以死傷生, 故垂此大訓耳. 令公平生所學何如, 乃不念此, 而欲躬蹈之耶?”

12) 『退溪全書』 卷22, 「答李剛而【庚午】」: “彼鄕里一婦失行與否, 是何等一塵穢事.”

13) 『退溪全書』 卷30, 「答金而精」: “不知今世何等人, 乃違聖典與時王之制, 出禪服而廬衰經耶? 此必鄕里自好者徑情直行之爲耳.”

14) 『退溪全書』 卷6, 「戊辰辭職疏一」: “臣自少鄙拙愚駘, 無鄕曲之譽, 而夙嬰疾病, 晚出仕路.” 같은 책, 卷48, 「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龔巖李先生行狀」: “滉生長鄕曲, 公不以爲無似, 每加誨借, 扶几從游者不知其幾.”

15) 『退溪全書』 卷23, 「與趙士敬」: “先王設鄕法 鄕禮之意, …… 不復問古義如何 鄕禮如何, …… ” ; 卷38, 「答趙起伯問目【戊辰】」: “夫先王所以立鄕法 鄕禮, 必以序齒, …… 自作一行, 以壞亂鄕儀, 蔑棄聖教乎?” ;

관련성을 갖는다. 즉,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이라는 의미의 鄉은 문화와 교양의 수준이 필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시 윤리와 도덕으로 상징되는 인간다운 삶의 결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鄉이 아무리 교화가 필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굳이 이 문제를 고민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이유가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곳은 첫 번째 용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내 ‘고향’이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며, 내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교화에 개입해야 할 이유 역시 강력하게 제기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유학자들이 ‘鄉’을 ‘家’의 연장이며, ‘家’에서 ‘國’으로 나아가는 연결체적 성격을 갖는 곳으로 이해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퇴계는 鄉을 “父兄과 宗族이 계시는 곳”<sup>16)</sup>이라고 언급함으로써 家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鄉을 이해하였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유학의 학문적 실천 범주를 이야기하면서 家와 邦國 사이에 鄉을 배치함으로써 鄉에 대한 교화가 齊家와 治國 사이를 연결시켜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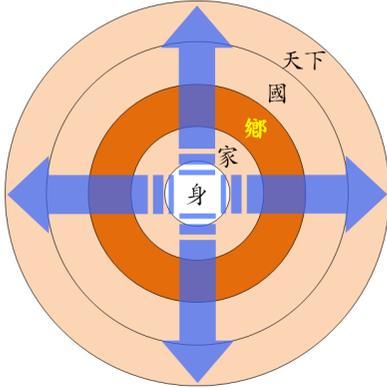
퇴계의 이와 같은 인식은 그의 후학들에 의해 좀 더 정리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旅軒(張顯光: 1554-1637)은 ‘鄉’을 邦國京都의 외부에 있으며 比閭族黨의 상위에 위치한다고 규정하면서, 聖인들이 鄉을 중시한 이유에 대해 “위에서 시작된 교화는 이곳을 통해 아래로 퍼져나가고, 아래에서 형성된 풍속은 이곳을 통해 위에 믿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sup>18)</sup> 順庵(安鼎福: 1712-1791)은 “궁하여 아래에 있는 君子는 修身·齊家를 한 경험을 鄉里에까지 확산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9)</sup>

16) 『退溪全書』 卷27, 「答烏川諸君」: “夙聞鄉黨, 爲父兄宗族之所在, 不可不敬謹自處.”

17) 『退溪全書』 卷49, 「晦齋李先生行狀」: “本之於身心性情, 而行之於家鄉邦國.”

18) 『旅軒集』 卷9, 「鄉射堂記」: “余惟古之所謂鄉者, 在邦國京都之外, 居比閭族黨之上. 教化之由於上者, 從此而宣於下; 風俗之成於下者, 階此而孚於上, 此聖人所以致重於鄉.”

‘鄉’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유학의 실천철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君子에 대한 子路의 질문을 받은 孔子는 ‘자기를 닦고’ [修己, ‘타인을 편안하게 하며’[安人],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安百姓]는 동심



원(同心圓)형 파장논리로 답을 하고 있다.<sup>20)</sup> 즉, ‘修己’에 의한 파장이 동심원을 그리듯 ‘安人’으로 확장되고, 다시 ‘安百姓’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사람이 곧 ‘君子’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동심원형 파장논리는 유학의 실천철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구도로서, 孟子의 ‘親親-仁民-愛物’의 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21)</sup> 특히

성리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 『大學』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이런 측면에서 보면 家와 國을 연결하는 鄉을 유학의 실천 공간으로서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뿐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 Ⅲ. ‘향(鄉)’에 대한 교화 활동: 향약(鄉約)

鄉에 대한 대표적인 교화 활동으로는 아무래도 ‘鄉約’의 제정과 시행을 들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향약은 형태도 다양했으며 그에 따라 규약의 내

19) 『順庵集』 卷15, 「廣州府慶安面二里洞約」: “窮而在下之君子, 或推其修齊之餘, 及於鄉里, 以淑諸人.”

20) 『論語』「憲問」: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人.” 曰, “如斯而已乎?” 曰,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21) 『孟子』「盡心上」: 孟子曰,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22) 『大學』: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용 역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향약에는 이른바 『呂氏鄉約』의 4대 덕목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었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되었다.<sup>23)</sup>

『여씨향약』은 북송시대 橫渠(張載: 1020-10770), 明道(程顥: 1032-1085), 伊川(程頤: 1033-1107) 등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한 呂氏 형제들(呂大忠·呂大防·呂大鈞·呂大臨)이 향촌사회를 도학(성리학)적 관점에서 교화할 목적으로 창안한 것이며, 이를 남송시대 주자가 『增損呂氏鄉約』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조선시대 향약의 보급은 중종대 慕齋(金安國: 1478-1543)가 이 『증손여씨향약』을 언해하여 보급한 것을 계기로 크게 확산되었다.<sup>24)</sup>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에서는 이른바 ‘조선향약’<sup>25)</sup>이 출현하게 된다. ‘조선향약’의 출현은 성리학자들이 향약을 통해 鄉을 교화하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에 동의하면서도, 기존에 『증손여씨향약』을 답습하여 조선에 이식하려던 수준을 넘어서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16세기 조선이 성리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로 연결되는 예교질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재해석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일반적으로 ‘조선향약’의 실질적 물꼬를 튼 것은 퇴계의 「鄉立約條」(이하에서는 「약조」라고 한다)라고 본다. 그러나 퇴계의 「약조」는 鄉約이라기보다는 鄉憲 또는 鄉規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되었다.<sup>26)</sup> 이러한 지적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약조」가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23) 이수환, 「조선전기 선비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 『퇴계학과 유교문화』56, 2015, 55~56쪽.

24) 윤인숙, 「조선전기 향약의 구현을 통한 ‘사문화’의 확산-김안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81, 2013, 19~20쪽.

25) 유흥렬, 「조선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9집, 1938.

26) 김명진은 퇴계의 「약조」에 대해 “오히려 李太祖의 鄉憲에 더 가깝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김명진, 「예안향약에 관한 소고」, 『정법논총』 13, 1978, 24쪽.) 김용덕은 “鄉規라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덕, 『향정연구』, 한국연구원, 1978, 38~41쪽.)

향약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약조」는 『증손여씨향약』에서 제시한 4대 덕목 모두를 반영하지 않고 罪過에 대한 罰則만 세워놓았다는 점,<sup>27)</sup> 그로 인해 다른 향약들에 비해 내용이 매우 간략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학자에 따라서는 「약조」의 이런 특징이 중국의 향약과 무관한 우리 풍토에 알맞은 ‘조선향약’의 출현을 보여준다는 역발상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sup>28)</sup>

흥미로운 것은 조선시대에는 퇴계의 「약조」를 향약으로 이해하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鄉禮合編』을 편찬하도록 명하고 이 책을 간행할 때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酒禮鄉約綸音」이라는 글까지 직접 쓴 正祖는 『弘齋全書』에서 퇴계의 「약조」를 「禮安鄉約」이라 명시하고 이를 栗谷(李珣: 1536-1584)의 「石潭鄉約」과 비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안향약」은 간이하고 질박한 데 비해 「석담향약」은 복잡하고 섬세하다”는 평가 함께 “이것으로 두 분 先正의 규모와 기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sup>29)</sup> 이는 이른바 「예안향약」이 간이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향약으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향약을 제정한 퇴계의 학문적 특징과 연계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順庵 역시 퇴계의 「예안향약」을 울곡의 「社倉鄉約」, 寒岡(鄭述: 1543-1620)의 「月朔講契」, 朽淺(黃宗海: 1579-1642)의 「木川洞約」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鄉約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sup>30)</sup>

그동안 퇴계의 「약조」를 다룬 연구들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약조」본문의 내용이나 체제상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 「鄉立約條序」는 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인용되었을 뿐, 그

27) 이우성, 「퇴계선생의 예안향약과 〈향좌〉문제」, 『퇴계학보』68, 1990.

28) 황병근, 「예안향약을 통해서 본 퇴계의 향민자치관」, 『퇴계학의 현대적조명』1, 1987, 60쪽.

29) 『弘齋全書』 卷169, 『日得錄』9, 政事4: “李文純「禮安鄉約」簡而質, 李文成「石潭鄉約」縝而纖, 此可以觀兩先正規模氣象.”

30) 『順庵集』 卷15, 「廣州府慶安面二里洞約」: “我東先輩之居是鄉也居是洞也, 多有傲而行之者, 若退溪之「禮安鄉約」, 栗谷之「社倉鄉約」, 寒岡之「月朔講契」, 黃朽淺「木川洞約」等類, 皆是也.”

전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향약에 관한 퇴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조」 본문보다 오히려 「약조」의 서문인 「향립약조서」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향립약조서」에 鄉이 갖는 공간적 의미는 물론 그것이 교화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그런 교화를 담당할 주체와 방법 등 향약과 관련한 퇴계의 근본 사유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예안향약」의 내용은 물론 성격과 체제까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하에서는 「향립약조서」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려고 한다.

「향립약조서」는 크게 ①「古者鄉大夫之職 ~ 而爲之勸懲也哉」, ②「今之留鄉即古鄉大夫 ~ 嗚呼其亦重矣」, ③「吾鄉雖壤地褊小 ~ 將無所不至矣」, ④「故崇政知事龔巖先生 ~ 久遠而無弊也」, ⑤「或者以不先立教 ~ 所以不得不立也」의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古者鄉大夫之職 ~ 而爲之勸懲也哉」<sup>31)</sup>에서 퇴계는 鄉大夫나 士가 자신들이 거처하는 鄉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옛날古’이라는 이상적 모델 속에서 추출하여 제시하고, 오늘날에도 이 모델을 참고하여 그와 같은 전통을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퇴계는 “선비士는 家에서 닦은 것이 鄉에 드러난 뒤에 國에 천거될 수 있다”고 하면서 “孝悌忠信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길의 가장 큰 본질이며, 家와 鄉黨은 그것을 실행하는 터전”이라고 언급한다. 이런 언급을 통해 퇴계는 학문적 실천이 家에서 國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중간단계에 鄉이 있으며, 鄉을 교화하는 주체로서 鄉大夫나 선비士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今之留鄉即古鄉大夫 ~ 嗚呼其亦重矣」<sup>32)</sup>에서 퇴계는 留鄉所를 둔 이유

31) 『退溪全書』卷42, 「鄉立約條序附約條」: 古者鄉大夫之職, 導之以德行道藝, 而糾之以不率之刑; 爲士者, 亦必修於家著於鄉而後, 得以賓興於國, 若是者何哉? 孝悌忠信, 人道之大本, 而家與鄉黨, 實其所行之地也. 先王之教, 以是爲重, 故其立法如是. 至於後世, 法制雖廢, 而彝倫之則固自若也, 惡可不酌古今之宜, 而爲之勸懲也哉?

32) 『退溪全書』卷42, 「鄉立約條序附約條」: 今之留鄉, 即古鄉大夫之遺意也. 得人則一鄉肅然, 匪人則一鄉解體, 而況鄉俗之間, 遠於王靈, 好惡相攻, 強弱相軋, 使孝悌忠信之

를 ①에서 이야기한 옛날 鄉大夫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옛날의 향대부이든 현재의 유향소이든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통해 鄉의 풍속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교화의 필요성과 그것을 책임지고 수행할 주체에 관한 퇴계의 생각이다. 그래서 퇴계는 “(제대로 책임질) 사람을 얻으면 온 고을이 숙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 고을이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퇴계는 鄉에 교화가 필요한 중대한 이유로 王의 교화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鄉大夫나 留鄉所로 대표되는 鄉의 교화 책임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③「吾鄉雖壤地褊小 ~ 將無所不至矣」<sup>33)</sup>에서 퇴계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 고향吾鄉’<sup>34)</sup> 禮安에 대해 서술한다. 퇴계는 먼저 예안이 비록 자그마한 고을이지만 예전부터 文獻의 고장으로 불렸을 뿐 아니라, 훌륭한 학자나 관료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 鄉風이 아름다웠다는 점을 기술한다. 그런 다음 근래에 고을의 훌륭한 어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자 習俗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쯤에서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퇴계는 鄉 차원에서 「약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배경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념해야 하는 것은 禮安이 과거에 아름다운 鄉風을 일구었던 이유와 그것이 변질된 이유 모두를 퇴계는 역시 ‘사람’의 있고 없음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

道, 或尼而不行, 則棄禮義捐廉恥日甚, 流而爲夷狄禽獸之歸, 此實王政之大患也, 而其糾正之責, 乃歸之鄉所, 嗚呼其亦重矣.

33) 『退溪全書』 卷42, 「鄉立約條序附約條」: 吾鄉雖壤地褊小, 素號文獻之邦, 儒先輩出羽儀王朝者, 前後接踵, 觀感薰陶, 鄉風最美. 頃年以來, 運值不淑, 達尊諸公, 相繼逝沒, 然猶有故家遺範, 文義蔚然, 以是相率而爲善國, 豈不可也? 柰何人心無恆, 習俗漸訛, 清芬罕聞而藜茅間作, 茲不防遏, 厥終將無所不至矣.

34) 퇴계가 자신의 고향인 예안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伊山書院記」에 ‘吾鄉’이라는 표현과 「易東書院記」에는 ‘우리 예안’이라는 뜻의 ‘吾禮’라는 대표적이며, 이밖에 「漢城寓舍 盆梅贈答」이라는 시의 설명 부분에 ‘我鄉’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④「故崇政知事龔巖先生 ~ 久遠而無弊也」<sup>35)</sup>에서 퇴계는 자신이 「예안향약」으로 불리게 될 「약조」를 짓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전직 관료이자 당시 예안지역의 대표적 원로였던龔巖(李賢輔: 1467-1555)이 ③과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約條를 제정하여 풍속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미처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러자 주위의 鄉丈들이 퇴계에게 농암의 유지를 완성하라고 요청하여 자신이 부득이 「약조」를 짓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퇴계는 「약조」가 본래 농암의 우려에서 비롯되었고, 자신은 주변의 요청으로 농암의 유지를 받들어 완성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퇴계는 농암의 여러 아들들이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鄉丈들이 자신에게 일을 맡긴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힘으로써 이 「약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마치 농암과 그 자식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sup>36)</sup>

⑤「或者以不先立教 ~ 所以不得不立也」<sup>37)</sup>에서 퇴계는 「약조」의 내용과 구성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약조」가 왜 勸導에 관한 내용은 배제하고 懲罰적 내용들로만 채워지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퇴계가 「약조」에서 일관되게 주목하는 것은 孝悌忠信이 家-鄉-國 단위에 실천되는 것이다. 퇴계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孝悌忠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 때문만은 아니고, 오히려 仁義禮智라는 선한 본성을 타고 난 인간의 자기실현이라는 유학의 존재론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35) 『退溪全書』卷42, 「鄉立約條序附約條」: 故崇政知事龔巖先生患是然也, 嘗欲爲之立約條, 以厲風俗, 鄭重而未及焉, 于今知事諸胤方居喪境內, 澁亦守病田間, 鄉丈皆欲令我輩數人, 遂成先生之志, 委責甚至, 辭不獲已, 乃相與商議, 而舉其梗概如此, 復以徧示鄉人, 而審可否然後乃定, 庶幾期行於久遠而無弊也.

36) 그런데 퇴계의 문인인 惺齋(琴蘭秀: 1530-1604)는 「退溪先生鄉立約條後識」에서 “퇴계선생이 鄉風이 滄薄해지는 것을 걱정해서 約條를 지어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다.(『惺齋集』卷2, 「退溪先生鄉立約條後識」: “退溪先生悶鄉風之滄薄, 著成「約條」.”)

37) 『退溪全書』卷42, 「鄉立約條序附約條」: 或者以不先立教, 而徒用罰爲疑, 是固然矣, 然而孝悌忠信, 原於降衷秉彝之性, 加之以國家設庠序以教之, 無非勸導之方, 奚待於我輩別立條耶? 孟子曰: 「道在邇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人人親其親長其長, 而天下平。」此孔子所謂至德要道, 而先王之所以淑人心也. 自今以往, 凡我鄉士本性命之理, 遵國家之教, 在家在鄉, 各盡夫彝倫之則, 則斯爲王國之吉士; 或窮或達, 無不胥賴, 非唯不必別立條以勸之, 亦無所用罰矣. 苟不知出此, 而犯義侵禮, 以壞我鄉俗者, 是乃天之弊民也, 雖欲無罰, 得乎? 此今日約條之所以不得不立也.

이다. 국가 차원의 교육은 바로 이 부분을 순방향적 측면에서 勸導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鄕 단위에서 제정하는 「약조」에 勸導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은 중복의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에 대한 침범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퇴계는 보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鄕에서 마련한 「약조」에는 義와 禮를 침범하여 鄕俗을 붕괴시키는 자들을 역방향적 측면에서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퇴계는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본성의 사회적 실현인 효제충신을 진작하기 위한 권도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향속을 어지럽히는 데 대한 징벌은 향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교육이 주도적인 것이라면 향 차원의 약조는 보조적인 것이라는 성격 규정의 의미도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향립약조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읽어낼 수 있다. 먼저, 퇴계는 「약조」(또는 향약)에 대해 시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퇴계는 “오늘 이후로 우리 고을의 선비들이 性命의 이치에 근본을 두고 국가의 교화에 따라 家에서나 鄕에서나 각각 彝倫의 법칙을 극진히 한다면 나라의 吉士가 될 것이며, 窮할 때나 達할 때나 이에 의거하지 않음이 없다면 약조를 별도로 세워 권도를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징벌을 사용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비들이 인간 존재와 윤리적 당위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만 진다면 권도든 징벌이든 향 차원에서 「약조」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퇴계는 굳이 ‘鄕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퇴계 이전부터 이미 조선에는 ‘향약’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던 것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추진되다가 도리어 역풍을 맞게 되었다. 향약뿐만 아니라 그런 양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 士禍라는 참극으로 이

어졌다. 퇴계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깊이 유념했고, 그럴 빌미가 될 만한 일  
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했다.<sup>38)</sup> 따라서 勸導라는 주도적 교화는 국가의 교  
육에 맡기고 鄉俗을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 懲罰하는 보조적 교화수준에서  
「약조」를 제정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퇴계가 書院을 통해 바람직한 학풍을 되살려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이유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퇴계는 그것이 鄉  
約으로 불리든 約條로 불리든 그런 제도적 고안물보다 鄉을 교화할 주체인  
‘사람’에 훨씬 큰 관심을 두었다. 家-鄉-國으로 연결되는 단위별 사회에서 다  
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순방향적 교화의 책임은 1  
차적으로 國學이나 鄉校 등 국가의 공적 교육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국학이나 향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교육  
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 교육을 진작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 IV. ‘향(鄉)’에 대한 교화 활동: 서원(書院)

퇴계는 당시 영남 지역에 세워진 서원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그 숫자도 가장 많다고 남 얘기하듯 했지만,<sup>39)</sup> 그 중심에  
퇴계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서원의 확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까닭이 향교가 학문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원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 학문을 실현해보고자 했  
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바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다시 이에 관한 논의를 하

38) 퇴계가 禮書를 남기지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퇴계가 예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한재훈, 「퇴계 예학 관련 문헌자료의 전개양상」, 『퇴계학논집』17, 2015, 2장 참조.

39) 『退溪全書』卷42, 「易東書院記」: “書院之制, 近作於東方, 而嶺南州郡之建置者, 比諸道諸邑, 爲最先而居多焉.”

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장에서는 서원을 진흥하고자 애썼던 퇴계의 목적을 鄕 단위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준 ‘수기치인’과 ‘화민성속’의 일환이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퇴계는 白雲洞書院에 賜額을 해줄 것을 청하기 위해 方伯인 沈通源에게 올린 글에서 國學과 달리 郡縣의 학교인 鄕校는 교육이 붕괴되어, 선비들이 鄕校에 출입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하면서, 鄕 단위의 교육을 다시 되살릴 희망이 書院에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직 書院에서의 교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 盛興한다면 學政의 잘못된 부분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고, 학자들이 依歸할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선비들의 기풍도 따라서 크게 변할 것이고 習俗은 날로 아름다워져서 王化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니, 그것이 聖治에 기여하는 바 작지 않습니다.<sup>40)</sup>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퇴계가 향교가 아닌 서원에서 교육의 희망을 찾고 있다는 점이 아니고, 교육을 되살려내야 하는 이유에 관한 퇴계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퇴계는 교육을 시행하는 근본 이유가 王化와 聖治로 표현된 이른바 ‘좋은 나라’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으로 ‘선비들의 기풍 변화’와 ‘아름다운 풍속’을 들고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좋은 나라(國)는 결국 아름다운 풍속을 가진 고을(鄕) 또는 집안(家)을 전제로 가능하며, 그것은 다시 그것을 만들어갈 주체인 선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와 직결된다는 말이 된다.

『伊山書院記』에서 퇴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三代의 배움은 모두 인륜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후세에 성왕이 나오지

40) 『退溪全書』 卷9, 「沈方伯通源○己酉」: “滉竊見今之國學, 固爲賢士之所關, 若夫郡縣之學, 則徒設文具, 教方大壞, 士反以游於鄕校爲恥, 其刊敝之極, 無道以救之, 可爲寒心. 惟有書院之教, 盛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士風從而丕變, 習俗日美, 而王化可成, 其於聖治, 非小補也.”

않고 옛 도가 붕괴되어 文詞와 科擧, 利祿만을 익히고 사람의 心術은 궤멸시키면서 광란의 물결 속으로 내달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안으로 國學과 밖으로 鄉校 모두가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배움과 관련하여 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뜻있는 선비들이 긴 한숨을 내쉬며 서책을 부둥켜안고 산속이나 물가로 숨어들어 서로 배운 것을 강론하면서 도를 밝히고 이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타인을 완성시킨 이유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書院이 등장한 것은 형편상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높이 평가할 만한 사건이었다.<sup>41)</sup>

여기에서 퇴계는 국가가 교육의 방향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와 배우는 사람들이 배움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글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분류해보면 三代, 人倫, 사람의 心術, 뜻있는 선비, 자신의 완성과 타인의 완성, 書院 등이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後世, 文詞, 科擧, 利祿, 광란의 물결, 國學과 鄉校 등이 또 하나의 범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윗글을 정리하자면, 三代로 상징되는 이상적인 시대에는 人倫으로 대변되는 도덕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후세로 내려오면서 國學이나 鄉校 할 것 없이 利祿으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느라 科擧와 文詞를 익히는 데만 치중하고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배반했다. 그래서 학문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뜻있는 선비들이 국학이나 향교가 아닌 書院이라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퇴계의 이러한 진단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륜’이다. 앞에서 거론했던 ‘효제충신’을 포함하여 퇴계가 말하는 ‘인륜’이란 단순히 부자와 군신, 장유 등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퇴계가 말하는 ‘인륜’은 우주자연으로 소급해서 찾아낸 인간 존재에 관한 이해

41) 『退溪全書』卷42, 「伊山書院記」: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至於後世, 聖王不作, 古道崩滅, 而文詞科擧利祿之習, 潰人心術, 馳狂瀾而莫之回, 則內而國學, 外而鄉校, 皆昧然莫知其教, 漠然無事乎學矣。此有志之士所以發憤永嘆, 抱負墳策, 而遁迷於山巖藪澤之中, 相與講所聞, 以明其道, 以成己而成人, 則書院之作於後世, 勢不得不然, 而其事之可尙爲如何哉?”

와 그로부터 연역된 수많은 행위규범의 당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요로부터 시작된 학문의 목적과 방법 일체와 연관된 광범위한 것이다. 「開寧鄉校聖殿重修記」에서 퇴계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三代之 배움은 모두 人倫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인륜을 밝힌다는 것은 곧 正道를 밝히는 것이다. 덕성을 기르고 근본을 세우는 것은 『小學』에 달려 있고, 규모를 넓히고 줄기를 뺏어나가게 하는 것은 『大學』에 달려 있다. 三書(『論語』·『孟子』·『中庸』)와 五經으로 이것을 충실하게 채워나가고, 다양한 역사서와 여러 사상들을 통해 이를 폭넓게 넓혀나간다. 正學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正道가 여기에 있다. 스승이 무엇을 가르칠지, 선비가 무엇을 배울지, 鄉인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각각 그 바름을 얻게 된다.<sup>42)</sup>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륜’이라는 개념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보다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고려된 의미로 이해될 때 비로소 퇴계가 왜 교육과 학문의 목표로서 이것을 중시하였는지 나아가 이 ‘인륜’을 밝히는 것에서 서원이 등장하게 된 이유까지 찾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퇴계는 「易東書院記」에서 서원이 세워진 本意와 서원에서 수행해야 할 實事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학문을 하는 주체로서 인간 존재와 그가 배워야 하는 학문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서원이라는 학문 공동체의 유익한 점 등에 관해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어서, 지혜롭다고 더 풍부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더 모자란 것도 아니다. 성현의 말씀은 사람들을 깨우쳐주지만 책속에 펼쳐져 있는 것이어서, 그 옛날 처음 나와 지금에 빠짐없이 갖추게 되었다.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구하기만 하

42) 『退溪全書』 卷42, 「開寧鄉校聖殿重修記」: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人倫之明, 卽正道之明也. 養德性而立根本, 在乎『小學』; 廣規模而達幹支, 在乎『大學』; 充之以三書五經, 博之以諸史百家. 正學不外於是, 而正道其在於斯. 師之所以教, 士之所以學, 鄉人之所以奉行, 由是而各得其正焉.”

면 알지 못할 이치가 없으며,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행하기만 하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도이다. 엉성하게 시작하여 정밀한 경지에 이르고, 얇은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라. 배운 것을 익히는 기쁨과 벗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스승의 가르침은 때마침 내리는 비와 같고 제자들은 썩처럼 성장한다. 노니는 모습은 의젓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은 성실하다. 평소에는 仁을 품고 義를 안더니, 벼슬에 나아가서는 임금을 높이고 백성들을 보호한다. (서원을 세운) 本意와 (서원에서 해야 할) 實事란 이런 뒤에야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退溪는 「迎鳳書院記」에서도 서원이 등장하게 된 원인을 앞서 살펴본 것들과 유사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서원의 등장을 家의 塾, 黨의 庠, 州의 序와 같은 사회 단위별 교육 체제의 붕괴에 대한 대안적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4)</sup> 그러면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書院이 家塾이나 黨庠과 그 제도는 비록 같지 않지만 추구하는 의의는 같으며, 風化에 관계됨이 대단히 크다. 그러므로 도를 아는 선비와 치세를 원하는 군주가 서원의 진흥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45)</sup>

규모와 성격 등의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書院이 추구하는 바는 家塾이나 黨庠이 추구하는 바와 같다고 퇴계는 말하고 있다. 家塾, 黨庠, 州序, 國學 등은 『禮記』 『學記』에 나오는 고대의 교육 기구들로, 이를 통해 추구하

43) 『退溪全書』 卷42, 「易東書院記」: “道之大原, 出於天而具於人心者, 知非豐而愚非畜; 聖賢之言, 諭諸人而布在方策者, 昔始至而今悉備, 人病不求耳, 求則無不知之理; 人病不踐耳, 踐則皆可行之道. 由切磋而致磋磨, 入門牆而觀堂奧. 習悅而朋樂, 雨化而莪長. 濟濟乎其遊息, 亶亶乎其成立. 居則懷仁而抱義, 出則尊主而庇民焉. 所謂本意與實事者, 於是乎可得而言矣.”

44) 『退溪全書』 卷42, 「迎鳳書院記」: “昔在三代之隆, 教法極備, 家有塾, 黨有庠, 州有序, 國有學, 蓋無適而非學也. 降及後世教壞而學崩, 則國學, 鄉校, 僅有文具, 而家塾, 黨庠之制寥寥焉, 至使篤志願學之士, 抱墳策而無所於歸, 此書院之所由以起也.”

45) 『退溪全書』 卷42, 「迎鳳書院記」: “夫書院之與家塾, 黨庠, 制雖不同, 義則同歸, 其有關於風化也甚大, 故知道之士, 願治之主, 莫不於是而拳拳焉.”

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化民易俗’이다.<sup>46)</sup> 그렇다면 書院이 추구하는 바 역시 ‘化民易俗’이라는 점을 퇴계는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변역시킨다’는 뜻의 ‘화민역속’은 유학이 상정한 동심원형 파장의 구도에 대입하면 家를 너머 鄉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고대에는 학습 연령기에 따라 家와 黨, 州에 설치된 교육 기구들에 차례로 진학하게 함으로써 한 개인을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시켜나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화민역속’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데 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었던 것이다. 국학과 향교의 교육이 이미 이러한 방향에서 이탈한 현실에서 퇴계가 서원을 통해 무엇을 희망했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글에 나타난 퇴계의 다음 언술은 이를 보다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을 테지만 낮은 수준의 사람들도 吉人和 修士가 되는 데 문제가 없어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을 때는 집안을 반듯하게 하고 풍속의 표상이 되며,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하리니, 이리하여 서원을 세우고 선비를 양성하는 본의에 저버림이 없을 것이다.<sup>47)</sup>

굳이 서원을 세운 본의가 단순히 고을 한복판에 있는 향교에서 산수 좋은 한적한 서원으로 교육공간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비를 양성한다는 것 또한 과거공부를 하던 것으로부터 성리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변경되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聖人이라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누구나 吉人和 修士가 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퇴계가 꿈꾸었던 서원 교육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적 성취에 목적

46) 『禮記』「學記」: “古之教者, 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 比年入學, 中年考校. 一年視離經辨志, 三年視敬業樂羣, 五年視博習親師, 七年視論學取友, 謂之小成. 九年知類通達, 強立而不反, 謂之大成. 夫然後足以化民易俗, 近者說服而遠者懷之, 此大學之道也.”

47) 『退溪全書』卷42, 「迎鳳書院記」: “高者可入室而升堂, 下者猶不失爲吉人脩士, 處則正家而表俗, 出則匡國而濟時, 斯無負立院養士之本意矣.”

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엔 집안을 반듯하게 하고 풍속의 표상이 될 주체를, 관직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할 주인공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원을 세우고 선비를 양성하는 본의가 여기에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鄉’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을 ‘수기치인’과 ‘화민성속’이라는 성리학적 문제의식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퇴계가 鄉을 家의 연장적 성격과 함께 家와 國의 연결고리로 이해하면서 鄉에 대한 교화의 필요성을 매우 중시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퇴계뿐만 아니라 다른 성리학자들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鄉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제기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향약이며, 이른바 ‘조선향약’의 선화로 평가 받는 퇴계의 「향립약조」는 성리학자로서 그가 ‘수기치인’과 ‘화민성속’을 실천적으로 수행한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 퇴계는 鄉의 교화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로서 ‘향약’ 그 자체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런 제도적 장치보다는 이른바 ‘鄉賢’으로 부를 수 있는 교화의 주체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런 이유로 그는 굳이 ‘향약’이라는 이름을 채택하지 않고 ‘약조’라고 했고, 그것을 제정하게 된 배경도 자신의 문제의식에서라기보다는 농암의 유지를 계승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또한 앞서 신진사류들이 지치주의를 내세우면서 급진적인 변혁을 시도하다가 사화라는 참극을 초래한 트라우마는 퇴계로 하여금 향약의 제정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

修己에서 治人으로 나아가야 하고, 治人의 또 다른 표현인 化民成俗의 일

환으로 鄕에 대한 교화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향약과 같은 제도적 측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화 주체의 양성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기치인과 화민성속의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그는 서원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과거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기존의 향교가 아닌 성리학적 목적에 충실한 교육과 학문을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공부의 장이라는 점에서 서원은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이에 더하여 서원은 鄕 단위에서 화민성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으로 퇴계는 이해했다.

---

참고문헌

---

『論語』

『孟子』

『大學』

『禮記』

『退溪全書』

『惺齋集』

『旅軒集』

『順庵集』

『弘齋全書』

김용덕, 『향청연구』, 한국연구원, 1978.

김명진, 「예안향약에 관한 소고」, 『정법논총』 13, 1978.

유홍렬, 「조선향약의 성립」, 『진단학보』 9, 1938.

윤인숙, 「조선전기 향약의 구현을 통한 ‘사문화’의 확산-김안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1, 2013.

이수환, 「조선전기 선비들이 추구한 유교적 이상사회」, 『퇴계학과 유교문화』 56, 2015.

이우성, 「퇴계선생의 예안향약과 〈향좌〉문제」, 『퇴계학보』 68, 1990.

한재훈, 「朱子の ‘新民’ 해석과 ‘道統論’의 함수 관계」, 『공자학』 22, 2012.

한재훈, 「퇴계 예학 관련 문헌자료의 전개양상」, 『퇴계학논집』 17, 2015.

황병곤, 「예안향약을 통해서 본 퇴계의 향민자치관」, 『퇴계학의 현대적 조명』 1, 1987.

## Toegye'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Hyang(鄉)

Han, Jae-hoon\*

Toegye used the word 'Hyang(鄉)' in many ways. He used the word to mean "hometown," or "countryside." He also used the word to mean an area that needed to be enlightened, which was linked to the two preceding cases.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last example is closely related to the academic purpose of the Confucian scholar. Because he thought he should cultivate himself(身) as a scholar first and then have a good influence over Hyang(鄉) beyond his family(家).

In Joseon, it initially took a way of imitating China's Hyangyak(鄉約). Then, gradually, they began to develop Hyangyak(鄉約) that were suitable for Joseon society. A case in point is the "Hyang-lip-yak-jo(鄉立約條)" created by Toegye. Based on this, many researchers say that the beginning of independent Hyangyak(鄉約) in Joseon's society is from Toegye. However, as well as not naming his own "Hyang-lip-yak-jo(鄉立約條)," the structure of the content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l Hyangyak(鄉約). Therefore, the argument that the Toegye tried to make a difference in the Hyang through the Hyangyak(鄉約) should be put on hold.

Regarding the issue of cultivating hyang, it was Seowon(書院) that the

---

\* Research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 kjydist@daum.net

Toegye took note. Toegye made great efforts to build and spread Seowon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called Hyanggyo(鄉校). It was not just for educational environment or for curriculum changes. Toegye wanted to cultivate scholars who nurtured themselves first through education in Seowon and then had a good influence on others. He was convinced that hyang can be enlightened through scholars who can have a good influence on others.

Key words: Toegye, Hyang, Hyang-yak, Hyang-lip-yak-jo, Seo-won.

이 논문은 2019년 5월 29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6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6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채광수\*

- 
- I. 머리말
  - II. 영남 노론계 가문의 분포 현황
  - III. 영남 노론계 서원의 건립 추이
  - IV. 맺음말
- 

## 〈국문요약〉

영남의 노론은 크게 전통적인 노론 사족 가문과 노론을 표방하며 등장한 신향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대략적인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은 1738년(영조 14) 정언 이수해가 안동 김상헌 서원 재 건립을 요청한 상소에서 영남 내 대표적인 서인 명문가들을 언급한 내용을 통해 일단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영남 최고의 노론 명문인 덕수이문 일원으로 열거한 대개의 가문들과 긴밀한 혼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가문의 통혼권 특징을 요약하면, 17세기에는 기호지역 서인 가문들과 주로 혼인하면서도 영남지역 사족가문과도 혼인을 매개로 노론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18세기에도 앞 시기와 유사한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통혼권이 더 확대되어 영남지역 내 가문들과의 혼인 비중이 높아졌다. 즉 영남 내 同色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검토할 영남 노론계 서원 건립 흐름도 바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18세기 영남 사회의 변화 속에 관권의 비호를 받은 신향 세력의 부상도 큰 몫을 차지했다.

조선후기 영남 서인계 원사는 노론계 60개소[당파, 문중], 소론계 2개소, 노·소론계 공존 1개소로 총 63개소이다. 이들 가운데 중간에 승원한 곳이 대다수였으며, 지역별로는 38개 군현에 분포했고, 좌도가 우도에 비해 앞서 있었다. 건립 시기는 18세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부·상주목·경주부·성주목 대응에 그 숫자가 높게 나왔다. 이중 사액 원사는 6개소이고, 대원군 원사 획철 당시에는 2개만이 존치되었다.

영남 노론계 원사 제향인의 성격은 ①당파 ②문중 인물 ③총절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①이 핵심이다. 당파 관련 인물은 노·소론 분당 이전 서인계 인물 6명, 노론계 29명, 소론계 5명, 기타 1명

---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 corhkdn911@ynu.ac.kr

순이었다. 이들의 제향 배경을 점검한 결과 지방관 15개소, 유배 관련 14개소, 장루지지(杖屨之地) 5개소, 은거 2개소, 문인·입향조·지명·처향 각 1개소, 미상 5개소로 확인이 되었다. 합천 출신 윤봉구 문인 최남두를 제외하면 영남인은 전무했다. 제향인은 송시열 제향 원사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이와 주자 ⇨ 김상헌·김창집·윤봉구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문종관련 인물을 제향 한 노론계 서원은 14개 가운데서 16개소가 건립되었으며, 충절인을 제향 한 원사는 5개소가 건립이 되었다.

키워드 : 영남, 노론, 가문, 서원, 18세기

## I. 머리말

조선후기 영남에는 남인 뿐 아니라 노론의 존재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남 노론의 분포와 형성 과정 및 정치·사회적 활동에 대해 막연하게만 인식하고 있어 그 실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영남지역 노론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노론계 서원과 가문 두 범주에서 진행이 되었다. 앞에서는 노론계 서원 건립, 출향 시비 및 주도 세력의 존재 등 남노간의 대립적 관점<sup>1)</sup> 또는 기존서원의 노론화를 개별 서원 중심으로 다루었고,<sup>2)</sup> 뒤에서는 특정 개별 가문 심화 연구 또는 가문 내 당색의 분화를 검토<sup>3)</sup>한 성과물이 제시 되어있다.

- 
- 1) 정만조, 「英祖 14年の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蕩平下 老·少論 紛 爭의 一端-」 『조선시대 서원연구』, 1997. ; 이수환, 「寧海 仁山書院의 設立과 毀撤」 『대구사학』 제63집, 2001. ; 김학수, 「노론의 대 남인 분열-통합책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2003. ;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사회적 성격」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성과 정치적 성격』, 2007. ; 김성운,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의 동향-철종대 金洙根서원 건립과 고종 대 屏虎保畝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15호, 2009 ; 김형수, 「1738년(영조 14) 安東 鶴東書院의 存置와 지방관의 역할-『法城日記』를 중심으로-」 『영남학』 제17호, 2010 ;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영남학』 제64호, 2018. ; 채광수, 「1728년 무신난과 居昌 褒忠祠 건립의 성격」, 『역사교육논집』 제70집, 2019.
  - 2)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瀟溪書院 연구」, 『남명학연구』 제26집, 2008. ; 채광수, 「조선후기 경상우도의 노론계 서원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68집, 2018.
  - 3)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23, 2002. ; 이재철, 「朝鮮後期 大邱地域 西人勢力의 動向」, 『대구사학』,

일반적으로 영남의 노론은 남인정권이 붕괴되는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을 기점으로 신생노론이 만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728년(영조 4) 무신난 이후 집권 노론의 회유책과 이간책으로 신출노론에 대한 우대 및 기존 남인계의 노론화를 통해 자파 세력이 부식·확대되어 갔다는 것이 정설이다.<sup>4)</sup> 여기에 남인계 가운데서는 노론화한 계열이 초기에는 서애·우복계에 집중되었다가 현종~숙종 조를 거치면서 한강·여헌계로 까지 확산된 것으로 표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sup>5)</sup> 그러나 영남 노론 가운데 노론이 된 사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영남 노론계 諸 가문과 서원을 중심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먼저 1738년(영조 14) 정언 이수해가 안동 김상헌 서원 재 건립 상소에서 언급한 영남의 대표적인 서인계 명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德水李門을 축에 두고 혼반관계를 위주로 노론계 가문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건립이 된 노론계 서원의 현황을 비롯해 건립 시기·지역·주체, 제향 인물의 성격 등을 고찰해 볼 것이다.

## II. 영남 노론계 가문의 분포 현황

-선산부 덕수이씨 가문을 중심으로

영남의 노론은 크게 전통적인 노론 사족 가문과 노론을 표방하며 등장한 신향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대략적인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은 1738년(영조 14) 정언 이수해가 안동 김상헌 서원 재 건립을

제76집, 2004. 김학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족가문의 學派·政派의 분화와 그 존재양상 -松堂門人 久庵 金就文(1509~1570) 가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8, 2010. ; 신주엽, 「17-18세기 대구지역 서인계 사족의 활동 -沃川全氏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7, 429~430쪽.

5) 김학수, 「앞의 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요청한 상소에서 영남 내 대표적인 서인 명문가들을 언급한 내용을 통해 일단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증 영의정 홍익한과 상신 洪漚 후손은 순흥, 문헌공 정여창 후손은 함양, 문장공 曹偉 후손은 金山, 문정공 윤두수 후손은 대구, 靑陽君 심의겸 후손은 밀양, 대사간 김취문·평정공 이약동·문대공 김응기·승지 박수홍 후손은 선산, 節士 趙旅·판서 成泳 후손은 상주, 충신 하위지 후손은 榮川, 進善 신석번 후손은 함창, 대사성 신민일 후손은 예천에 있습니다. 이 모두 두드러지게 일컬을 만하며 지금 조정에서 관직이 높은 자로 영남감사 尹陽來도 대대로 영남 사람입니다. 아는 바가 이와 같으며 신이 모르는 자 또한 그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뚜렷이 드러난 사람이 이와 같으며, 군현에서의 명망과 향당에서의 어짐으로는 김산의 曹·鄭씨, 산음의 배·민씨, 의령의 권·강씨, 대구의 쏠·우씨 또 어찌 모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sup>6)</sup>

위에서 소개한 가문 중 소론계로 알려진 순흥부의 홍익한의 후손을 제외하면 모두 노론을 지향했다. 특히나 발언의 당사자 이수해가 속한 선산부 덕수이문은 영남 노론의 출발이자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언급한 대개의 가문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 즉 혼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가문에 대한 추적은 영남 노론의 분포와 형성과정을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덕수이문을 정리한 뒤 위 인용문 중 이들과 혼인 범위에 포함되는 가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不食之報<sup>7)</sup>로 불린 덕수이문은 율곡의 아우 이우가 처향인 선산부에 정착한 이래 영남 최고의 노론 명문으로서 명성을 유지했다. 율곡의 후손인 만큼 당색의 정체성은 흔들림 없이 명확했다. 이우는 내외 관직을 거친 다음 만년에 낙동강 변에 매학정을 수리해 ‘玉山主人’이라 자처하며 여생을 보냈고, 명필로 이름을 떨친 장인 黃耆老가 딸 1명만을 둔 까닭에 妻材를 고스란히 상

6)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7월 22일 재인용.

7) 불식지보 : 父祖의 음덕으로 자손이 잘 되는 보응을 뜻한다.

속을 받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후손들이 영남에 세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sup>8)</sup>

특히 소과를 28명 배출하여 선산부 내 선산김·전주최씨 다음으로 많은 수를 배출했으며, 문과는 6명으로 선산김·밀양박·전주최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였다.<sup>9)</sup> 시기적으로 보면 영조 대에 소과에 12명 입격, 문과에 4명이 급제해 그 비중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점은 노론 우위 정권에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덕수이문의 문과 급제자를 중심으로 그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문과 급제자인 이우의 증손 李東溟효종 3년 급제는 승지·예조참의·경주부윤 등을 지내며 윤선도 논핵, 송준길의 효종 묘정 제향 상소, 1694년(숙종 20) 인동향전 배후자로의 지목<sup>10)</sup> 등 노론계 활동으로 명성을 떨치다가 기사환국 때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지 부령에서 죽었다. 이동명과 교유한 송시열은 “남쪽의 선비들로 한번 변하여 선하게 된 사람이 지금 수천에 이르도록 많게 된 것은 오로지 이군이 교화해 이끈 덕분이다”고 할 만큼 당론이 분명했다<sup>11)</sup>. 그래서 노론 선봉으로 맹활약한 鄭澥가 신도비를 지은 것이다.

이수해는 1725년(영조 1) 문과 급제 후 대개 언관직에 종사하며 노론 준론계로서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그는 관직 초기인 1729년(영조 5) 주서 시절 정미환국 후 소론계가 주도한 숙종실록 개수를 비판했다가 당수를 즐겨하는 무리로 낙인찍혀 강진으로 유배되었다.<sup>12)</sup> 그 뒤에도 1734년(영조 10) 탕평파의 한축인 좌의정 서명균 탄핵<sup>13)</sup>, 1738년(영조 14) 김상헌 서원 재건

8) 그래서 이우 후손들이 외손봉사로 황기로의 제사를 모셨다. 이우 손자 대에 노비 136口, 논 16석 7斗 5升, 밭 75석에 이를 정도로 재산을 보유했는데 鄭葵陽의 상당 부분은 외조부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본 이우 가문의 역사와 향촌생활사」, 『이창용교수 기증유물도록』, 2008, 145쪽.

9) 소과 : 선산 김 59명 · 전주 최 33명 · 덕수 이 28, 문과 : 선산 김 16명 · 밀양 박 8명 · 전주 최 7명이다.

10) 社)울곡연구원, 『덕수이씨세계열전 - 이동명』, 2013, 162쪽.

11) 또한 송시열은 영해부사 때 탄핵받아 낙향한 이동명을 위해 “마지못해 벼슬하다 늙어서는 돌아오고 돌아와서 즐거워한다”고 한 주자의 글을 인용해 「歸樂堂記」를 지어주었다.

12) 『영조실록』 권21, 영조 5년 3월 25일.

과 휘철자 처벌 상소, 1740년(영조 16) 유봉휘·조태구 삭탈관직 및 이광좌의 파직을 요구했다. 그래서 자파 인사로부터 시비를 변별하고, 지론이 굳세며 엄준한 식견과 사려가 밝은 인물로 평가받았다.<sup>14)</sup> 그의 동생 李德海도 1744년(영조 21)에 출사해 정언, 진주·안주목사, 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754년(영조 30) 영의정 이천보가 특별히 칭찬하며 이덕해를 의주부윤<sup>15)</sup>에 천거했고, 이어 이천보와 사촌인 이조판서 李鼎輔가 1764년(영조 40) 사간에 擬望한 일이다. 이러한 천거 역시 혼반과 연결고리가 확인이 된다. 이덕해와 이천보 양측의 외조부가 김장생의 증손 김만중·만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과 재종제 사이인 李益海는 1773년(영조 49) 주서와 형조참의 등을 지냈다. 관료 기간 중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는 않으나 출사 이전 송시열의 문묘종사 등 노론계를 지지하는 상소에 연명한 것이 확인이 된다. 특히 1754년(영조 30) 9월 3일 영남에서 21번째 올린 소두 李昇海가 그의 친동생이다.<sup>16)</sup> 또한 김창집의 증손인 金履長이 외조부이기도 하다.

李敬彬은 문과 급제 4년만인 1777년(정조 1) ‘丙申獄事<sup>17)</sup>’에 연루된 흥계희의 증손 洪相簡과 친구라는 이유로 제주목 대정현에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경빈 보다는 그의 증조부 李晉華를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진화는 비록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고명한 학자이자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사승관계가 명확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의 스승 권상하는 “경전의 뜻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매번 이진화가 생각이 난다”며 그의 학자적 자질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손에서 작성된 우율·사계

13) 『영조실록』 권37, 영조 10년 1월 24일. 노론 준론계에서는 충역과 시비가 구별되지 않은 탕평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어서 출사도 거부했다.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 少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역사학보』 111, 1986.

14) 社)울곡연구원, 앞의 책, 2013, 176쪽.

15) 『영조실록』 권82, 영조 30년 8월 16일.

16) 『승정원일기』 61책, 영조 30년 9월 3일. 이익해는 仲父 李廣淵에 출계하면서 법적으로는 사촌지간이며, 李益洙로 개명을 한다.

17) 흥인환이 정조를 시해하려다 주살된 사건이다.

문묘종사 疏本을 두고 “영남의 사기가 점진하는 것도 세도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것이 누구의 힘이겠는가”라며 칭송해 마지않았다. 영남에서는 권상하의 고제를 상징하는 ‘江門八學士’의 일원으로 18세기 전반기 영남지역 노론 공론을 주도한 동문 성만징과도 친밀한 교유를 맺고 있었다. 또한 향촌에서는 ‘仁人君子’로 추앙 받으며 효자 정려 및 가문 내 후학을 양성했고, 남인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했다.<sup>18)</sup>

이 가문의 마지막 문과 합격자인 李宅彬은 1803년(순조 3) 등과하는데 두드러진 행적은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1786년(정조 9) 안동부 김상헌을 제향한 서간사 청액 製疏 참가가 확인되는 만큼 여타의 활동상을 짐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sup>19)</sup> 이들 문과 급제자 외에 음직으로 출사한 인사도 12명<sup>20)</sup>이나 더 있고, 서자 계통에서는 무과로 사환했다.

사실 이 가문을 보다 주목해야 할 이유는 노론 명문가와의 혼인이 즐비하다는 점에 있다. 조선시대 혼인은 양반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인 만큼 상대방의 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우의 5대손이자 이수해의 부친인 李廣義는 1730년(영조 6) 손자 采澗春彬의 좋은 혼처를 얻기 위해 매파에게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俞持平 덕에 혼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이러한 성향이 묻어있다.

베풀어 주신 자비를 엎드려 입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한미함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따님을 저의 손자인 채필의 짝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이에 선인의 예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폐백을 드리는 예를 행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경술년 11월 13일 덕수 이광의가 두 번 절하고 올립니다.<sup>21)</sup>

실제로 혼사가 이루어진 유지평 덕은 유척기와 사촌이며 우참찬을 지내는

18) 社)울곡연구원, 앞의 책, 2013, 201쪽.

19) 『西礪建院事實略』

20) 李瑀·李景節·李稹·李增華·李廣義·李廣矩·李昇海·李祥海·李善海·李福海·李亨彬·李철.

21) 전경목, 앞의 논문, 2008, 156쪽, 婚書 재인용.

俞敏基를 말한다. 노론 명문가와 혼반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17세기 ~ 18세기를 대상으로 이 가문의 통혼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래 <표-1>과 같다.<sup>22)</sup>

<표-1> 덕수이문 혼인 성관 현황

구분	혼인 성관과 횡수	계
17C	은진 송 6, 청주 한 4, 광산 김·남양 홍 각3, <b>창녕 성</b> ·평산 신 각2, 경주 노·달성 서·동래 정· <b>밀양 박</b> ·반남 박· <b>선산 김</b> · <b>성주 이</b> ·진천 송·청송 심·함양 박·홍양 이 각1	혼인성씨 : 17 혼인횡수 : 31
18C	<b>선산 김</b> 6, 안동 김 4, <b>청송 심</b> 4, 경주 김·은진 송 각3, 고성 남·광산 김·밀양 박·연안 김·인동 장·진천 송·창녕 조·창원 황·청주 정·풍천 임 각2, 기계 유·김해 허·남양 홍·동래 정·반남 박· <b>성주 이</b> ·신천 강·안동 권· <b>창녕 성</b> ·청풍 김·파평 윤·평산 신· <b>하동 정</b> ·한양 조 각1	혼인성씨 : 29 혼인횡수 : 54

※ 이탤릭체 진한 성관은 이수해가 언급한 제 가문임.

통혼권의 특징을 요약하면, 17세기에는 기호지역 서인 가문들과 주로 혼인하면서도 영남지역 사족가문과도 혼인을 매개로 노론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18세기에도 앞 시기와 유사한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통혼권이 좀 더 확대되어 영남지역 내 가문들과의 혼인 비중이 높아졌다. 즉 선산김씨를 비롯한 영남 내 同色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시작은 이우의 아들 이경절이 공조참의와 황해감사 등을 지낸 광산김씨 金顯男의 딸을 처로 맞이하면서 그 단초를 열었다. 반면 이집과 이교는 지역 내 혼인을 통해 재지적 기반을 강화시켰다. 장남은 서인의 鼻祖 심의겸의 종손자 응고 심광세(沈光世)의 여식 청송심씨와 혼인했고, 차남은 초취로 밀양 박씨 朴弘慶, 재취로 성주이씨 李垣祖와 혼인했으며, 장녀가 예천의 鵝洲申門에 출가해 시택이 노론으로 밀착되는 일정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서인 가

22) 17세기는 이우의 아들부터 5대손 '廣'항렬까지이고, 18세기는 '海'항렬부터 '彬'항렬까지로 한정했으며 서자계통은 제외했다.

문으로 상주목에 이거한 창녕성씨 가문에 3녀와 4녀를 시집보내 영남 내 서인 세력과의 족적 연대감을 높여갔다.

이러한 혼인 기조는 17·18세기 내내 지속 되는데 본고가 주목하고 있는 영남을 위주로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단 기호지역과 주목되는 혼인은 家格을 조감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먼저 짚고 넘어간다.

17세기 이 가문의 혼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이집의 손자 李增華와 이진화가 송시열의 당질이자 호서산림으로 이름난 송기후(宋基厚)의 딸들과 중첩적 혼인을 맺고 있다. 이어 이증화의 아들 이광연은 인경왕후의 오빠 金鎭龜와 翁媯가 되었으며, 종형 이광의도 권상하의 동생 權尙游를 사위로 들였다. 이러한 혼맥은 서인 핵심 정파와 학파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가교가 되어 주었다.

한편 18세기 이 가문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혼사는 이수해의 동생으로 송화현감을 지낸 이선해의 사위 洪樂倫이다. 흥낙륜의 부친은 國舅 흥봉한이며, 혜경궁 홍씨가 바로 그의 누이다. 따라서 이 혼인은 가문을 고양시키고 자부심을 가지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게도 家禍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선해는 1776년(정조 원년) 병신옥사 당시 인척관계인 흥인한의 당여로 지목 받아 ‘犯上不道’라는 죄명을 입고 伏誅<sup>23)</sup> 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이경빈이 바로 그의 아들이다. 그래서 향촌 내 남인 측으로부터 역적 가문이라는 비난까지도 받았던 것이다.<sup>24)</sup>

이외 안동김씨 김상용·尙寬 형제와 종방 金尙騫의 후손들과 4차례의 혼인이 형성이 된다. 이중 이경빈과 李尙彬이 김상용의 증손 金時燾과 영의정을 역임한 김수흥의 손자 金貞謙의 딸과 혼인했다. 그리고 권상하의 고제 중한 사람인 윤봉구의 아우 윤봉오와의 혼인도 눈에 띈다.

이제 덕수이문과 혼인한 영남지역 가문에 대해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자. 이수해의 인용문 내 덕수이문과 혼인한 가문은 9개이다. 선산김씨 김

23) 『정조실록』 권1, 정조 대왕 행장

24) 노상추 저·정혜은 외 번역, 「1776년 8월 초7일(병오)」, 『국역 - 노상추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384쪽, 2017.

응기·김취문 家 7회, 청송심씨 심의겸 家 4회, 밀양박씨 박수홍 家·창녕성씨 성람 家 각 3회<sup>25)</sup>, 벽진이씨 이약동 家·평산신씨 신민일 家·창녕조씨 조위 家 각 2회, 하동정씨 정여창 家 1회로 파악 되었다.

가장 많은 횃수를 보이고 있는 선산부의 선산김씨일선김씨는 金澍의 후손 김응기 계열[文戴公派]과 김취문의 차남인 金宗儒 계열[學生公派] 2개 가문이 대표적이다<sup>26)</sup>.

전자는 종종 연간 좌의정에 올라 명재상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응기를 파조로 하는 문중이다. 김응기는 1392년(공양왕 4) 성절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고려 멸망 소식을 듣고 ‘충신불사이군’이라는 편지를 보낸 후 귀국하지 않은 김주의 현손이다. 이 문중에서는 1630년(인조 8) 일향사림의 공론과 선산부사의 지원으로 김주를 모시는 月巖書院을 건립하였다.<sup>27)</sup> 6년 뒤에는 사육신 하위지와 생육신 이맹전의 추향이 이루어졌다. 추향 후 이맹전의 7대손으로 김장생의 문인이며 송시열과 교유한 李尙逸이 서원 운영에 간여하면서 이 무렵부터 문대공파는 노론으로 경도된 것 같다. 주의를 끄는 이상일은 바로 인용문의 벽진이씨 평정공파 이약동의 來孫이다.

이후 월암서원은 노론이 된 문대공파 중심으로 운영되어져 가자, 이들과는 불연한 籠巖派는 별도의 內格廟를 세워 서로 다른 활동 공간과 노선을 유지하며 김주에 대한 현양사업을 아래의 <표-2>와 같이 진행했다.<sup>28)</sup>

25) 상주목에 세거하는 창녕성씨는 성영의 동생인 성람을 파조로 하는 廳竹公派이지만 중앙정계에 더 알려진 성영을 의도적으로 내세웠다. 김학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족가문의 學派·政派的 분화와 그 존재양상 -松堂門人 久庵 金就文(1509~1570) 가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8, 2010, 65쪽.

26) 현재 김주의 후손들은 선산김씨와 구분해서 일선김씨로 호칭하고 있다.

27) 일선지 편찬자 崔暉이 감영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고, 향사축문은 정경세가, 묘우 편액 ‘來格廟’는 여헌 장현광이 지었다. 선산부사 趙纘韓도 건립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월암서원복원추진위원회, 『月巖書院誌』, 2011.

28) 월암서원의 사당의 본 명칭은 내격묘였으나 사액 당시 ‘尙義祠’로 하사가 되자 농암파에서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別廟號’로 내격묘를 걸었다.

〈표-2〉 농암 김주 현양 사적 현황

派	현 양 내 용
문대공파	월암서원 · 1686년 : 청액상소문 - 金相玉(송시열 문인·김종유 증손) 월암서원 · 향사 축문 - 撰 이병모, 詩 - 李緯, 閔遇洙 등
	1668년 : 三仁錄 - 序 송시열, 跋 李尙逸
	1669년 : 神道碑 - 비문 권상하, 書 金構, 篆 민진원
	1696년 : 遺墟碑 - 부사 金萬增 건립
	1763년 경 : 荷潭說辨 - 黃仁儉
	1797년 : 贈諡 - 諡狀 閔鍾顯, 李亨元
	1801년 : 遯荊錄 - 序 宋煥箕, 跋 金羲淳
凡 농암파	內格廟·봉안문(1694) - 權斗寅(이현일 문인), 重修還安文(1785) - 李師靖(李象靖 문인), 봉안문(1785) - 權明佑(祖 權渠, 이현일 문인), 記(1789) - 李益運(채제공 문인)
	1778년 : 籠巖先生傳跋 - 李象靖
	1780년 : 籠巖先生逸稿
	1803년 : 雙節錄

나아가 문대공파는 해평현에 있는 松山書院<sup>29)</sup>까지 출입처를 확충해 나간다. 1767년(영조 52) 금오서원 원장 이승해<sup>30)</sup>가 선산부사에게 송산서원을 위해 향축을 요청하는 등 노론화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만큼 1776년(영조 52) 김응기와 재종질 金振宗을 어려움 없이 추향할 수 있었다. 이점은 이 시기 선산지역의 노론세력의 증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후자인 김취문 가문은 16세기 중후반 선산 지역의 명족이자 송당학파의 핵심 가문이었다. 그러나 아들 대에 장남 김종무계는 류성룡·장현광의 학통을 계승한 南論을 유지한 반면, 차남 김종유는 성혼의 문하를 출입하며 西論을 표방했다. 특히 김종유계에서는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도암 李緯·김원행·송능상·송치규·송래희 등의 기호지역 문인들이 연이어 배출되면서

29) 송산서원 : 1707년(숙종 33) 崔應龍과 최현을 주향으로 창건되었고, 1776년(영조 52) 이진 후 金應箕·金振宗·康惟善을 추향 한 서원이다.

30) 이승해는 이우의 7대손으로 主籙蔭를 지낸 인물이다. 장인은 대사간을 역임한 선산부의 유력한 사족인 밀양박씨 가문의 朴春普이다. 『노상추일기』 1766년(영조 42) 3월 20일.

소론이 아닌 노론으로 당색을 삼았다. 덕수이문의 혼인 대상이 후자라는 사실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김종유의 손자 金時閔은 이우의 사위 鄭維城의 딸과 혼인해 외손서가 되었고, 이우의 손자 이동유를 姪婿로 맞이하는 등 일찍이 양 가문의 사이는 돈독했다.<sup>31)</sup>

김산현에 세거한 정유성의 영일정씨 교리공과는 기호학통 문인이 배출된 전형적인 노론계 가문이다. 손위 형 鄭維翰과 아들 鄭元升이 김장생에게 급문했고,<sup>32)</sup> 손자 鄭震平은 송시열의 문인으로서 1678년(숙종 4) 蔡河徵과 함께 스승의 예론을 옹호하는 상소를 주관했다.<sup>33)</sup> 그가 선산의 가문인 밀양박씨 朴守弘의 사위가 된 것도 기본적으로 색목의 동질감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밀양박씨 경주공파 박수홍 가문의 노론화는 조부 朴希閔과 부친 朴鼎實 모두 벽진이씨 평정공파와의 連婚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부친이 평정공파의 핵심 인물인 이민선의 옹서 관계임을 고려할 때 외숙인 이상일의 영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토대 위에서 성장한 그는 성균관 수학 시절 인목 대비 폐모론에 반대하다 삭직 당한 바 있고, 1618년(광해군 10) 등과 후에도 원종 추송 반대로 인한 유배형, 병자호란 때 척화 주장 등 서인계로서의 명확한 정치 노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서인계 강경파 대사간 李燾<sup>34)</sup>으로부터 “영남 인재로는 그대를 우선 생각하도다. 임금께 아뢴 곧은 말은 높은 관리 가운데 우뚝하였으며, 악을 미워하는 강한 마음은 사헌부에게 견고 하였도다”라는 호평을 받았다.<sup>35)</sup> 이는 그의 죽음을 추모한 만시 작성자들<sup>36)</sup>과 묘갈명을 지은 김상헌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효행 정려를 받은 만이 朴震煥의 혼처가 김종유의 차남 金翎의 딸이고, 묘표를 송시열이 지은 것

31) 김취문 가문의 노론화에 대한 분석은 김학수, 앞의 논문 38, 2010 참조.

32) 영남의 김장생 문인은 7명에 불과한데 이 가계에서만 2명이 배출되었다.

33) 『華陽淵源錄』

34) 李燾[1572~1646] : 성훈과 김장생 문하에서 배웠고,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을 주창하며 김상헌을 옹호했다.

35) 박수홍 저·박영호 번역, 『(국역) 蓬谷先生文集』, 「부록 挽詩」, 2013, 408쪽.

36) 작성자 40명 중 당색이 분명한 인물은 23명으로 서인계가 14명, 남인계가 8명이다. 후자는 주로 영남 출신의 관료들이다.

도 이 같은 사정에 기인한다.

그리고 박수홍을 위시해 10명의 문과 급제자 다수가 고위직에 진출하는 흐름도 당색의 후광이 동반되었기에 가능했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밀양박문을 통해 영남 노론계 가문의 정치적 입신을 목도할 수가 있다. 조선후기 영남 출신이 문과에 합격하더라도 하위직에 머물렀다는 기존 견해는 이 가문에게 만큼은 해당되지 않았다.<sup>37)</sup>

또한 당색은 향촌 내 이해관계에서도 작동되었다. 밀양박문은 1807년(순조 7)부터 1811년(순조 11)까지 4년간 선산부 안강노씨 노상추 가문 사이 발생한 산송에서 3차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소한 결과 역시 당색과 무관하지 않다.<sup>38)</sup> 노상추 가문은 9명의 무과를 배출한 조선후기 영남을 대표하는 무반가문 이다.

덕수이문 간에는 박수홍의 현손 朴龜齡이 李廣濟의 딸을 배우자로, 직계 내손이자 대사간에 오른 朴春普는 이승해의 사위, 춘보의 손자로서 풍기군수를 지낸 朴善浩는 李錄海의 여식과 혼인을 통해 서로 위상을 확인하고 세의를 다진 것이다.

한편 덕수이문은 심의겸 후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수해가 전술한 청양군 심의겸 후손은 밀양에 있다는 밀양 설은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없으나, 그의 종고조모의 부친이 심의겸의 손자 심광세이고, 선산부와 인근 고을에 세거한 심광세를 파조로 하는 응교공파와 11회 이상 혼인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밀양설은 다소 무리가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밀양설을 제기한 것은 다분히 영남 내 자파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37) 문과급제자 10명의 대표적인 관직은 ◦박수홍 : 형조참의·경주부윤, ◦朴增輝 : 청주목사·사간, ◦朴鳳齡 : 대사성·전라감사, ◦박춘보 : 대사간, ◦朴天行 : 대사간, ◦朴天衡 : 충청감사, ◦朴來謙 : 호조참판, ◦朴來萬 : 공조판서, 朴來冕 : 공조참의, ◦朴麟夏 : 공조참판을 역임했다. 이처럼 인조반정 이후 영남 출신 중앙 관료들의 당색 비율도 실증해볼 필요성이 있다.

38)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山訟)과 상언(上言), 격쟁(擊錚) -노상추가(盧尙樞家)와 박춘노가(朴春魯家)의 소송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3권』, 2008.

청송심문의 落南은 심광세의 3남 沈楸<sup>39)</sup>의 아들 沈若潢이 상주목으로 이거해 왔고, 손자 沈漳이 처향인 선산부에 각기 거주 기반을 옮기면서 부터다. 선산부에 연고가 없는 심장이 17세기 중후반 영남 서인계 영수 이상일의 孫壻가 된 배경에는 영남에 먼저 정착한 숙부 심약황의 주선에 기인한다. 이상일 ⇨ 李坡 ⇨ 李志奭 3대가 송시열과 교유했거나 동방 급제했다는 동질감, 상징성이 남다른 심의겸의 후손임이 감안되어 심약황의 조카를 선택했던 것이다.<sup>40)</sup> 본 가문에서 활동한 노론계 문인으로는 심약황의 또 다른 조카 沈灑이 송시열의 문하에, 심장의 증손 沈大之가 송환기의 문하에서 각기 수학했다. 그리고 심대지의 매제와 子婦가 덕수이문에서 入家했다.<sup>41)</sup> 이 가문은 선산부 입향이 다소 느렸음에도 영조 대 이후 문과 급제 3명, 사마시 입격 19명을 배출하며 향촌사회에서 유력한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다.<sup>42)</sup> 이처럼 선산지역은 조선후기 영남에서 노론 세력이 가장 강세를 보인 곳이다. 그 관계망의 중심에는 덕수이문이 주체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선산부 속현 해평을 관향으로 하는 서인의 거두 윤두수의 후손 대구부 해평윤씨와 영남우도를 대표하는 정여창의 후손 함양현 하동정씨 가문과 덕수이문은 한 차례씩 혼인을 맺었다. 전자가 전형적인 노론 가문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북인·남인계에서 노론화 된 가문에 해당한다.

끝으로 조려의 함안조씨는 상주목에서 잘 찾아지지 않는다. 굳이 관련자를 찾는다면 상주목을 잠시 거쳐 간 趙平을 지목할 수 있다. 그는 인조반정 후 김장생에게 출처의 의리를 질의해 김장생으로부터 “옛 성현은 道를 행할 수 있음을 안 뒤에야 그 조정에 나아가 설수 있다고 하였습니다”<sup>43)</sup>라는 답

39) 심충(1605~1666) : 1651년(효종 2) 문과에 급제 뒤 정언·장령을 거쳐 광주부윤에 부임했으나 재임 중 장물죄를 범해 유배되었다.

40) 그가 妻從祖 李尙達의 묘갈명을 소론의 거두인 고모부 趙持謙에게 부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1) 영남 이외 혼인한 이선훈의 처부 沈聖希는 이조판서 등을 지냈고, 윤증을 극히 배척한 골수 노론계 인물이다.

42) 박인호, 「조선후기 구미 사회의 변화와 갈등」, 『구미의 역사와 인물』, 2006, 209쪽.

43) 함안조씨대종회, 『咸安趙氏文籍總觀(上)』, 2015, 240쪽.

을 듣고 입문했다. 문인들 중 長者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랫동안 출입을 이어갔다.<sup>44)</sup> 이수해가 기술할 당시 상주목에 함안조씨가 세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조평이 전라도 임실현에서 사망했고, 영남 내 조려의 후손은 본향인 함안현에 望族으로 존재했으므로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우리는 조선후기 영남에 노론계 사족 가문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영남은 퇴계학통과 남론만 고수 했다거나 노론세력들을 단순히 신향세력으로 단정해 왔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수정해야할 측면이 있다. 앞으로 검토할 영남 노론계 서원 건립 흐름도 바로 이상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18세기 영남 사회의 변화, 즉 사족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향안의 파치, 자치적 성격의 향회가 부세자문기구로 전락, 관 주도의 향촌 통제책 강화 등 일련의 변화 속에 관권의 비호를 받은 신향 세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중앙과 유리되어 향권 문제에 집착한 기존 사족과 새롭게 성장한 신향 세력들 간의 향안·校院·향임 등을 둘러싼 향전이 발생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Ⅲ. 영남 노론계 서원의 건립 추이

#### 1) 노론계 서원의 현황

17세기 후반 서원은 강학·藏修 중심에서 제향위주로 전환된다. 이러한 양상은 중앙의 경우 봉당정치의 격화와 그 여파로 인한 자파세력 부식, 피화인 신원 등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서원 건립이 추진 되었으며, 향촌사회의 경우 족적기반의 중심기구로 대두되면서 서원 남설 현상이 노정된다.<sup>45)</sup>

44) 김장생, 『사계전서』, 「제47권 - 부록 - 문인록 - 趙平」.

그래서 1694년(숙종 20) 박세채의 서원폐단 지적, 1695년(숙종 21) 尹趾善의 서원 신설과 첩설 금령 강화 및 柳尙運과 남구만의 私建서원 휘철·지방관 논죄, 첩설처 사액 금지,<sup>46)</sup> 1703년(숙종 29) 민진원의 冒禁私建한 지방관 논죄와 유생 停擧 요청, 민진후의 첩설 폐단에 따른 사액 불가 건의, 1707년(숙종 33) 피역 문제 관련 원생 고강 시행 등 일련의 통제책이 제시되었다. 연이어 1713년(숙종 39)에는 1703년을 기준으로 사건서원의 조사와 금지를 하명한 ‘癸巳受教’가 있었고, 다음해에는 평안도 3개 서원을 제외하고 일체 휘철한 ‘甲午定式’ 등 서원 정비책이 시행 되었다. 특히 갑오정식은 1741년(영조 17) 단행된 원사 휘철의 기준 연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비·통제책이 과연 실효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전국의 원사 숫자는 1,700여 개소로 파악되는데 이중 영남이 747개소로 가장 많이 건립되었다. 영남을 중심으로 그 실체를 살펴보면, 1542년(중종 37)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16세기 37개소, 17세기 220개소, 18세기 93개소, 19세기 이후 100개소, 미상 297개소가 각기 건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47)</sup> 18세기는 17세기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해 어느 정도 금령의 효과가 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갑술환국으로 노론 전제정권이 확립되는 1694년(숙종 20)을 기점으로 해서 1800년(정조 24)까지를 18세기로 설정해 보면 사정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 시기 건립된 원사가 무려 196개소로 시기 미상을 배제하더라도 전체 43%를 차지한다. 여기에 1741년 휘철 당한 52개소의 원사를 포함할 경우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시기 증가 이유는 당론 격화로 인한 금령 통제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sup>48)</sup> 또 향촌에서는 처음부터 서원 건립이 아닌 사우·영당·精舍·생사당 등으로 건립한 이후 서원으로 승격시키는 편법이

45) 정만조, 앞의 책, 1997, 195~208쪽.

46)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7, 66쪽.

47) 통계 수치는 이병훈,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서원학보 제6집』, 2018에 수록된 것을 재인용하였다.

48) 정만조, 앞의 책, 1997, 290쪽.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갑오정식 이전의 20년(1694~1713) 동안을 보면, 93개소가 세워져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았다. 즉 18세기에 93개소에서 196개소로 늘어난 것이며, 나머지는 1741년 이후 정부의 대 서원 정책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 반영 된 것이다. 설정 시기에 세워진 196개소 원사 성격의 특징은 당색과 무관한 인물 제향, 절대 다수가 미 사액,<sup>49)</sup> 노론계 서원의 증감, 문중서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고을 사례가 바로 14개 원사가 건립되는 상주목이다.<sup>50)</sup>

이제 본고가 주목하는 영남 노론계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영남에 건립된 서인계 원사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본 표는 조선시대 서원 관련 관찬자료<sup>51)</sup>를 기본으로 하고, 선행연구<sup>52)</sup>에서 밝혀진 실상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단 선행연구에서는 반영하지 않은 생사당을 추가한 것은 영조와 대원군 원사 휘철 범주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며, 여타 지역과는 달리 영남지역 생사당 제향인 비율이 노론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49) 1694년(숙종 20)~1800년(정조 24) 사액된 원사는 24개에 불과하다.

50) 1694년(숙종 20)~1800년(정조 24) 상주목 원사 현황

원사명	건립연도	사액연도	제 향 인	노론계 여부
1 忠烈祠	1698		權吉·鄭起龍·金宗武·全克恒	
2 興巖書院	1702	1705	宋浚吉	노론계
3 淵巖書院	1702		朴彥誠·金彥健·康應哲·金覺·趙光璧·康用良	
4 雲溪書院	1711		成灑·申碩蕃·趙根·申碩亨·成汝燾·金三樂	노론계 문중서원
5 西山書院	1713		金尙容·金尙憲	노론계
6 玉洞書院	1714	1789	黃喜·全湜·黃孝獻·黃紐	
7 竹林鄉賢祠	1737		成灑·成獻徵·成晚徵	노론계 문중서원
8 甌淵忠烈祠	1738		尹暹·朴篋·李慶流	노론계 사우
9 洛巖書院	1745		金聃壽·金廷龍·金廷堅	
10 芝岡書院	1745		鄭國成·趙又新·趙希仁·趙挺融	
11 龜湖祠	1754		金先致·金憲·孫萬雄	
12 熊淵書院	1768		蔡貴河·蔡壽·蔡紹權·蔡得沂	
13 道安祠	1783		金宇泰·金時泰	
14 愚山書院	1796		鄭經世·鄭宗魯	

51) 앞서 각주1) 에서 제시한 관찬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52) 앞서 각주2) 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물을 반영한 것이다.

〈표-3〉 조선시대 영남지역 서인계 원사 현황

순	원사명	지역	제향인물	건립	사액	배경	비고
1	茂洞書院 (鄉賢祠)	선산	田佐命 · 李瑀 · 田胤武	1642년 (인조 20)		입향조	문중서원
2	尙德祠	대구	李翻 · 유척기 · 金羲淳 · 李存秀	1682년 (숙종 8)		지방관	
3	壯巖書院	영주	홍익한 · 윤집 · 오달제	1683년 (숙종 9)		미상	충절인
4	花巖書院	상주	金安節 · 金濤 · 成灑	1692년 (숙종 18)		입향조	문중서원
5	龍岡書院 (忠烈祠)	대구	許得良 · 許復良	1696년 (숙종 22)		생거지	문중서원
6	屏巖書院	청송	이이 · 김장생	1697년 (숙종 23)	1702년 (숙종 28)	杖屨之地	
7	寒泉祠	문경	安貴孫 · 申叔彬 · 成晚徵	1697년 (숙종 23)		생거지	문중사우
8	鶴桐書院 (忠烈祠)	의성	吳斗寅 · 李世華 · 朴泰輔	1698년 (숙종 24)		미상	충절인
9	興巖書院*	상주	송준길	1702년 (숙종 28)	1705년 (숙종 31)	치향	
10	新安影堂*	영덕	주자 · 송시열	1702년 (숙종 28)		유배 경유지	복설
11	賢巖書院 (賢巖祠)	인동	張潛	1702년 (숙종 28)		파조	문중서원
12	星川書院	안의	송준길 · 李翻 · 송명흠	1703년 (숙종 29)		은거지	
13	盤谷書院 (勝昔堂)	거제	송시열 · 金鎭圭 · 김창집	1704년 (숙종 30)	1863년 (철종 14)	유배지	
14	尙德祠	신녕	尹明運	1704년 (숙종 30)		지방관	생사당
15	竹林書院 (蓬山影堂)	장기	송시열	1707년 (숙종 33)		유배지	
16	德洞書院 (德洞祠)	대구	우현보 · 우배선	1708년 (숙종 34)		파조	문중서원
17	雲溪書院	상주	成灑 · 申碩蕃 · 金安節 · 金三樂 · 成汝樞	1711년 (숙종 37)		문중 인물	문중서원
18	雲川書院*	고령	홍익한 · 윤집 · 오달제	1711년 (숙종 37)		미상	충절인

순	원 사 명	지 역	제 향 인 물	건 립	사 액	배 경	비 고
19	老江書院 (老江影堂)	성주	송시열 · 권상하 · 한원진 · 윤봉구 · 송환기	1712년 (숙종 38)		유 배 경유지	
20	西山書院 (顯忠書院)	상주	김상용 · 김상헌 · 김조순	1713년 (숙종 39)	1861년 (철종 12)	지방관	
21	鳴泉祠*	신녕	尹明運	1714년 (숙종 40)		지방관	생사당
22	仁山書院 (鳳巖影堂)	경주	송시열	1719년 (숙종 45)		유 배 경유지	
23	新安書堂 (新安祠)	함창	송시열	1722년 (경종 2)		杖屨之地	
24	松溪影堂*	홍해	민유중	1724년 (경종 4)		유배지	
25	生祠堂*	울산	崔鎭漢	1727년 (영조 2)		지방관	소론계
26	生祠堂*	밀양	趙彦臣	1727년 (영조 3)		지방관	
27	東川祠*	청도	윤봉구	1727년 (영조 3)		지방관	생사당
28	華峯書院*	의흥	이이 · 성훈 · 김장생	1728년 (영조 4)		미상	
29	雲泉祠	경주	주자 · 송시열	1732년 (영조 8)		유 배 경유지	
30	生祠堂*	양산	李滄	1733년 (영조 9)		지방관	
31	生祠堂*	합천	李秉泰	1734년 (영조 10)		지방관	복설
32	山足影堂*	함안	趙榮福	1735년 (영조 11)		지방관	
33	竹林鄉賢祠	상주	성람 · 成獻徵 · 성만징	1737년 (영조 13)		입향지	문중사우
34	生祠堂*	군위	閔鎭綱	1737년 (영조 13)		지방관	
35	褒忠祠**	거창	이술원	1738년 (영조 14)	1738년 (영조 14)	순절지	충절인
36	餓淵忠烈祠	상주	尹暹 · 朴篋 · 李慶流	1738년 (영조 14)		순절지	충절인
37	竹溪影堂*	성주	민진원	1739년 (영조 15)		유배지	
38	愍忠祠*	대구	黃璿	1739년 (영조 15)		지방관	

순	원 사 명	지 역	제 향 인 물	건 립	사 액	배 경	비 고
39	遺愛祠*	대구	俞命岳	1739년 (영조 15)		지방관	
40	生祠堂*	대구	유척기	1739년 (영조 15)		지방관	
41	生祠堂*	경주	趙明謙	1740년 (영조 16)		지방관	
42	春川書院 (春川書堂)	지례	송시열 · 송능상	1756년 (영조 32)		杖屨之地	
43	新安影堂	단성	주자 · 송시열	1772년 (영조 48)		유 배 경유지	
44	玉溪祠	삼가	윤봉구 · 崔南斗	1776년 (영조 52)		문인	
45	章山書院 (章山祠)	경주	李奎仁	1780년 (정조 4)		태생지	문중서원
46	雲谷影堂	영양	주자 · 송시열	1781년 (정조 6)		지명	1807년 훼철
47	西礪祠	안동	김상헌	1785년 (정조 9)	1786년 (정조 10)	은거지	
48	金溪書堂	영해	송시열	1792년 (정조 16)		유 배 경유지	
49	粹德書院 (竹溪書院)	성주	김창집 · 민진원	1802년 (순조 2)	1859년 (철종 10)	유배지 賜死地	
50	雲溪祠	예안	이 이 · 김상용 · 김상헌 · 김수근	1817년 (순조 17)		杖屨之地 지방관	
51	明山書院	경주	성혼 · 윤증 · 박태보	1831년 (순조 31)		미상	소론계
52	梅江祠	선산	이이 · 이우	1843년 (헌종 9)		입향조	문중사우
53	芝山書院 (芝山祠)	청도	朴虎 · 朴之賢 · 朴太古 · 朴重采	1844년 (헌종 10)		파조	문중서원
54	杜陵祠	경주	韓汝愈	1847년 (헌종 12)		파조	문중서원
55	德林祠	영일	송시열 · 김수근	1848년 (헌종 14)		유배지	
56	蘭谷書院	울산	송시열 · 김창집 · 金濟謙	1848년 (헌종 14)		유 배 경유지	
57	仁溪書院	영해	송시열	1848년 (헌종 14)		유 배 경유지	
58	西湖書院	안동	김수근	1855년 (철종 6)		지방관	

순	원 사 명	지 역	제 향 인 물	건 립	사 액	배 경	비 고
59	鳳陽書院 (鳳陽齋)	인동	張龍翰 · 張瑠	미상		생거지	문중서원
60	鳳山書院	산청	吳國獻	미상		입향지	문중서원
61	鳳川影堂	남해	이이명	미상		유배지	
62	興禮祠	지례	송시열	미상		杖屨之地	
63	巴溪祠	의흥	朴希顔 · 朴泰彙 · 朴光輔 · 朴顯輔	미상		생거지	문중서원

( ) 陞院 前 원사명, \*1741년 휘철 원사, \*\*대원군 휘철 존치 원사

조선후기 영남 서인계 원사는 노론계 60개소(당파, 문중), 소론계 2개소, 노·소론계 공존 1개소<sup>53)</sup> 로 총 63개소이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서원 30개소, 사우 16개소, 영당 7개소, 생사당 10개소로 조사되었다. 건립 시기는 1605년(선조 38)부터 1848년(헌종 14)까지 이다. 시기별로는 17세기 8개소, 18세기 40개소, 19세기 10개소, 미상 5개소로 단연 18세기의 비율이 가장 높다. 18세기를 앞서 제시한 기준에 준하면 4개소가 더 증가한 44개소가 되며, 이는 전체 사우 숫자인 195개소에 22%를 점하는 수치이다. 이는 갑술환국 이후 노론 정권이 성립된 유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에 편승해 당파적 성향을 가진 영남 노론 세력의 성장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타 지역에 비해 남인사족의 기반이 강고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술했듯 위 표의 원사들 가운데 당초 서원으로 발의 후 건립한 경우 보다는, 중간에 승원한 곳이 대다수이다. 자료 미확인 원사를 감안하면 그 비율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액 받은 원사도 청송부 병암서원, 상주목 흥암·서산서원, 거창현 포충사, 안동부 서간사, 성주목 수덕서원 단 6개소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격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들도 병암·흥암서원과 포충사 만이 당대 사액일 뿐 1738년(영조 14) 안동부 김상헌 서원의

53) 의성현 학동서원은 인현왕후 폐위 반대 상소를 올렸다가 처벌당한 오두인(노론), 이세화·박태보(소론) 3명의 절의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후신 서간사는 정조의 남인 등용을 위한 방편<sup>54)</sup>으로서, 서산·수덕서원은 철종연간 안동김씨 세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63개 원사는 1741년에 서원 2개소, 사우·영당 각 4개소, 생사당 7개소 17개소가 훼손을 당했고, 흥암서원과 포충사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원군 원사 훼손 때 모두 사라진다.

한편 63개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주 5개소[노론 4·소론 1]·대구·상주 각 6개소, 성주 3개소, 선산·신녕·영해·울산[노론 1·소론 1]·의흥·안동·인동·청도 각 2개소, 거제·거창·고령·군위·남해·단성·문경·밀양·산청·삼가·안의·양산·영덕·영양·영일·榮川·예안·의성[노·소론]·장기·지례·청송·함안·함창·합천·홍해 각 1개소가 건립되었다. 6개소가 2읍, 5개소 1읍, 3개소 1읍, 2개소 3읍, 1개소 27읍으로 영남의 절반이 넘는 38개 군현에 분포하며, 좌도가 우도에 비교해 앞서 있다.

좌도의 건립수가 많은 이유는 우도와 대별되는 정치적 성향과 강력한 재지사족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우도는 인조반정 이후 자발적인 노론화가 진행된 반면 좌도는 여전히 남론을 고수하며 야당 세력으로 존속했기 때문이다. 즉 집권 노론층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압박 내지 회유책 일환으로 서원을 활용했고, 여기에 노론계 사족이나 신향세력이 동조하면서 상호간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sup>55)</sup>

그렇다면 38개 군현 가운데 가장 많은 원사가 건립된 순으로 상위권에 자리한 대구부, 상주목, 경주부, 성주목의 지역적 특성을 짚어보자.

먼저 영남 내 가장 많은 송시열 문인이 배출된 대구부는 17세기 중반 이후 서인세력이 비교적 일찍부터 활동한 지역 중 한곳이다. 특히 가창에 세거하며 남인계였던 옥천전씨 전유장이 서인계 감사에게 천거되는 1663년(현종 4)

54) 정진영, 앞의 논문, 2015.

55) 그러나 1725년(영조 1)~1726년(영조 2) 영남감사로 재직하며 노론 귀화책으로 유명한 趙榮福은 “舉網於洛東江 終日所獲 不過鰍魚數尾 河柳清清 川金淨淨”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좌도의 핵심 가문들은 이 정책에 동요하지 않았다. 이원균, 「영조 무신난에 대하여」, 『부대사학 제3집』, 1971, 81쪽 재인용.

을 기점으로 하여 지역 내 서인세력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옥천전문은 월배의 단양우씨, 무태의 능성구·인천채씨와 혼인을 매개로 자파 세력을 확충해 나갔다.<sup>56)</sup> 이들은 옥천전문을 위시하여 이들 간에 형성된 연계망으로 영남 서인계 원사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상덕사를 창건했고, 1728년(영조 4) 무신난 진압 이후 노론의 정치적 입장을 천명한 상징물로서 ‘平嶺南碑’가 대구부에 세워지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대구에서 서인세력이 대두된 데는 남인계였던 율곡의 경주최씨를 제외하면 향론을 주도할 만한 세력이 부재한 상황도 간과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지리적으로 호서와 접한 상주목은 일찍이 18세기 이전부터 기호학과 내지 사족과의 교류가 일찍이 있어 왔다. 상주목은 임진왜란 직후 우율의 문인 성람의 이거, 1632년(인조 10) 정경세와 송준길의 응서지간, 송시열과 권상하의 문인 배출, 노론계와의 문자 수수 및 혼반 등으로 17세기 중·후반 친서인 세력이 확대되어 나갔다. 그래서 18세기 초부터 남노간의 대립이 노정된 지역이며 영남 노론계의 으뜸 서원인 흥암서원이 자리한 곳이다.<sup>57)</sup>

이어 경주부는 17세기까지 府北의 옥산서원과 府南의 서악서원을 중심으로 남인계가 향론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노론을 표방한 세력이 서악서원·향교 등을 장악하면서 1719년(숙종 45)에는 송시열을 제향한 봉암영당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둘러싸고 정국 상황과 맞물려 남노간 치열한 갈등이 있었으며, 봉암영당은 관권의 도움으로 결국 존치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노론이 영남 내 자파를 부식하는 실체를 목격할 수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부합한 세력들은 주자와 송시열을 제향한 운천사, 문중 원사인 장산사와 두릉사까지 건립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대외적으로 1738년(영조 14) 김상헌 서원 건립에 안동 이외 지역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산서원·봉암영당 後身과 함께 노론계가 장악한 경주향교와 서악서원의 참여 양상도 주목이 된다.<sup>58)</sup> 아울러 영남에 매우 보기

56) 신주엽, 앞의 논문, 2018.

57)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 67-68쪽.

드문 소론계 서원이 있는 점도 주의를 끈다.

끝으로 한강학파의 발원지 성주목은 주로 남·북인계를 표방한 가문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재경관료를 지내다 성주 水石에 잠시 은거한 이상일과 그의 차남계열이 이 지역에 정착할 무렵부터 서인계가 확인된다. 특히 성주는 단기간에 서인계의 성장이 두드러진 현상이 목도가 된다. 1663년(현종 4) 송시열의 회연서원 방문 요청, 1712년(숙종 38) 10개 가문이 연대한 노강서원 창건, 1721년(경종 1) 유배온 민진원과의 교류, 1722년(경종 2) 김창집 사사를 추념하는 ‘受命遺墟碑’ 건립 등이 이를 대변한다. 조심스럽지만 인조반정 이후 전체 향론이 남인 단일 노선을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된다. 특히 기존 북인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대표적인 남인계 가문인 청주정씨, 성산이·여씨 등에 남노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 영남지역 절반이 넘는 38개 군현에 63개소가 건립된 영남 서인계 원사의 건립 시기는 18세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부·상주목·경주부·성주목 대응에 그 숫자가 높게 나왔다. 이중 사액 원사는 6개소이고, 대원군 원사 훼손 당시에는 2개만이 존치되었다.

## 2) 서원 제향인의 성격

일반적으로 원사의 성격은 제향인이 누구인가에 의해 좌우가 된다. 따라서 영남 노론계 원사에 대한 성격과 특징 역시 제향인 분석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영남 노론계 원사 제향인의 유형은 ①당파 ②문중 인물 ③충절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당파관련 인물 검토가 핵심이다. 먼저 당파 관련 인물은 <표-4>와 같다.<sup>59)</sup>

58) 정진영, 앞의 논문,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226쪽.

59) 위 표는 독향과 추향 구분 없이 집계한 숫자임을 밝혀 둔다.

〈표-4〉 당파관련 제향인

제향자	송시열	이이·주자	김상헌·김창집·윤봉구	김상용·김장생·민진원 박태보·성훈·이숙
원사수	14개소	각 4개소	각 3개소	각 2개소
제향자	김수근·송준길 유척기·윤명운	권상하·김희순·김제겸·김조순·김진규·이병태·민 유중·민진강·송능상·송명흠·송환기·오두인·유명 약·윤증·이세화·이이명·이존수·이 흡·조명겸· 조연신·조영복·최남두·최진한·한원진·황선		
원사수	각 2개소		각 1개소	

노론과 소론 분당 이전 서인계 인물은 6명이며, 노론계 29명, 소론계 5명<sup>60)</sup>, 기타 1명<sup>61)</sup> 순이었다. 이런 수치는 조선후기 영남지역에서 소론계 가문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맥락과 닿아있다. 노론계 내에서는 호론이 낙론보다 다수이며, 낙론계 인물은 주로 추향된 경우가 많다. 이중 송시열 제향 원사가 14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이·주자, 김상헌·김창집·윤봉구 등의 순으로 제향 되었다.

또한 이들의 제향 배경을 점검한 결과 지방관 15개소, 유배 관련 14개소, 杖屨之地 5개소, 은거 2개소, 문인·입향조·지명·처향 각 1개소, 미상 5개소로 확인이 되었다. 합천 출신으로 윤봉구 문인 최남두를 예외로 하면 영남 출신은 전무하다. 더구나 영남 출신 노론계로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명확한 제향 명분을 가진 원사는 김상헌이 은거한 안동의 서간사, 송시열의 유배지 장기현 죽림서원과 거제도 반곡서원, 송준길의 처향 상주목 흥암서원, 김창집이 사사되고 민진원이 적거한 성주목 수덕서원 5개소 정도로 국한할 수 있다. 나머지는 특별한 연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영남 노론계 원사가 지닌 특징적인 성격의 하나로는 송시열 제향 원사를 들 수 있다. 1702년(숙종 28) 영덕현 신안영당을 시작으로 1848년(헌종

60) 소론계 인물 : 성훈, 윤증, 박태보, 이세화, 최진한

61) 주자가 제향된 원사에는 4개소 모두 송시열과 합향되어 있다.

14) 영해부 인계서원까지 14개소가 건립 되었다. 시기적으로 18세기가 가장 큰 비중인데 이는 18세기 전국적으로 고조된 송시열 추송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다.<sup>62)</sup> 이중 11개소는 독향으로, 영덕·단성현의 신안영당과 영양현 운곡영당 3개소에는 주자가 제향 된 기존 원사에 추향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송시열을 제향 한 근거는 거제·장기는 유배지, 경주·단성·성주·영덕·영일·영해·울산은 유배 경유지, 지례·함창은 장리지지, 영양은 지명 부합을 내세웠다. 송시열을 제향 한 본질적 목적은 노론 전제 정권 하에서 노론의 정신적 지주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여타의 원사에 비해 철퇴의 가능성이 현격히 낮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경주부<sup>63)</sup>·성주목과 같은 대응은 물론 단성·영덕·영양·함창현<sup>64)</sup> 등 소읍에서도 크고 작은 향전이 발생해 향중 쟁단을 야기하였다. 건립세력은 초기에는 주로 대구 옥천전문이 주도했고, 중반 이후에는 신향들에 의한 제향이 빈번했다.

이어서 4개소에 제향 된 이이와 주자는 영남과 무슨 由緒로 세워졌을까? 먼저 이이는 1558년(명종 13) 장인의 근무지 성주관아에 잠시 머물렀다가 강릉부로 돌아가는 길에 도산에 있던 이황을 예방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틀간 머물며 도학을 비롯해 여러 학문들에 대해 담론하고 律詩를 올렸는데<sup>65)</sup> 이 일이 영남 내 이이의 원사 건립 명분으로 설정이 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은 예안현에 건립된 운계서원의 자료를 통해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sup>66)</sup>

1738년(영조 14) 2월 11일 안동 유생 金安侯가 예안현은 율곡이 訪道한 고장이고, 안동부는 김상헌의 고향이니 두 고을에 서원 건립의 필요성을 발의했다. 예안현 사족 權吟·沈彭老·趙重三 등이 이에 찬동한 가운데 안동의

62) 고수연, 「18世紀 初 湖西地域 書院의 黨派의 性格 -朱子·宋時烈 祭享 書院을 中心으로」 『호서사학 제29집』, 2000, 73쪽.

63) 이수환, 「18~19세기 경주 玉山書院 院任職 소통을 둘러싼 嫡庶간의 鄉戰」,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1999.

64) 채광수, 「老江書院의 연혁과 인적구성」, 『민족문화논총』 제60집, 2015. ;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영남학』 제64호, 2017.

65) 이이, 『栗谷全書 권14 - 瑣言』

66) 『雲溪祠創建事實』, 『雲溪書院重建事實』(한국국학진흥원소장)

노론계 주요 인물 安宅駿이 안동부와 예안현 양 고을에서 동시에 건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즉 예안현에는 이이를, 안동부에는 김상헌을 제향 하는 원사를 각기 건립하고자 한 것이다. 영남감사 유척기, 안동부사 어룡일, 예안현감 李梅臣의 대대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전자는 운계사라는 名號로 6월 16일 낙성식을 가졌고, 후자는 거의 완공 단계에서 경향 간 엄청난 풍파를 일으키며 휘파 당하고 만다. 이때 운계사도 김상헌 서원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1786년(정조 10) 서간사로 사액되는 추세 하에서 1817년(순조 17) 운계서원으로 복설 승원 되었다.<sup>67)</sup> 이때 이이와 함께 김상용·상헌 형제를 추향하는데 예안을 景仰하여 왕래한 곳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세도정권기 1855년(철종 6) 류성룡의 후손으로 예안현감에 재직 하던 柳祈睦에 의해 김수근 추향이 이루어졌다.<sup>68)</sup>

이처럼 이이가 이황을 내방한 것은 청송부 병암서원, 의흥현 화잠서원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다만 병암서원은 선조의 묘소가 있는 점 하나를 더 강조하였다.<sup>69)</sup> 한편 매강사는 선산부에 세거한 동생 이우의 후손들이 문중 사무를 건립하며 형제를 함께 제향 한 것으로 앞의 3개 서원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후기 주자의 위상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신성불가침 영역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원사의 제향인물 비중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송시열·이황에 이어 3번째에 위치하고 있다.<sup>70)</sup> 영남의 주자 제향 원사는 어느 지역처럼 그의 행적과 관련된 지명을 건립명분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영덕현의 주산(朱山)과 신안동,<sup>71)</sup> 단성현의 신안강, 영양현의 운곡동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先 주자 제향, 후(後) 송시열 추향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먼저 누구도 반대할

67) 복설 봉안 통문을 인근 고을에 발송했고, 영주군 壯巖書院·의성현 氷山書院·안동부 서간사·문경현 寒泉書院·영양현 雲谷影堂·영해부 仁溪書院에서 답통을 보내왔다. 『운계서원중건사실』(한국국학진흥원 소장)

68) 김성윤은 남인 핵심 가문 출신인 류기목의 탈당색적 행보를 재경 시파와의 정치적 연계성에 따른 개방적 자세와 병호보합이라는 목적을 위해 노론계 서원 건립을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성윤, 앞의 논문, 2009.

69) 박선이·송수경 번역, 『국역 - 서원등록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5, 41쪽.

70) 정현정, 「조선중기 朱子祭享 書院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2011, 93쪽.

71) 정현정, 앞의 논문, 2011, 105쪽, 『新安影堂 院記』 재인용.

명분이 없는 주자를 내세워 원사를 건립한 다음 본래의 목적인 송시열을 봉안하는 방식을 택했다. 처음부터 송시열을 제향 하는 원사 건립 추진이 쉽지 않았음을 뜻한다. 실제 영덕현 신안영당과 영양현 운곡영당에서는 송시열 추향 내지 시도의 반향으로 중앙 정부까지 비화된 향전이 발생했다.

3개소에 제향 된 인물들은 김상헌·김창집·윤봉구 3명이다. 김상헌에게 안동은 특별한 곳이다. 본향이자 은거지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원 건립 내력에 비춰 봐도 별다른 흠결이 없다. 오히려 “안동은 또 김상헌이 終身한 곳이니, 도리에 비춰볼 때 반드시 사당을 건립해야 마땅하다”<sup>72)</sup>라는 남인계 인사의 발언을 봐도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안동향안에도 그의 이름이 게재되어 있다. 이처럼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문제는 영남 남인의 최대 본거지 안동부와 예안현에 서인계 의리의 상징 인물을 제향 하는 원사 건립을 시도했기 때문에 심각한 분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달리 기호지역과 일찍이 교류하고 남·노가 공존한 상주목에는 별다른 분쟁 없이 1708년(숙종 34) 그의 제향처가 마련이 된다. 당시 김상헌은 존애원에서 도의 강마와 儒術 장려를, 김상용은 1604년(선조 37) 상주목사 시절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향 한 서산서원이 건립되었고, 1861년(철종 12) 사액 되었다.<sup>73)</sup>

김상헌의 증손자 김창집은 1721년(경종 1년) 신임사화의 여파로 거제도에 유배된 뒤 다음해 2월 29일 서울 압송 중 성주목에서 사사되었다. 이를 계기로 1726년(영조 2) 거제도 반곡서원에는 유배지, 1802년(순조 2) 성주목 죽계서원에는 사사지, 그리고 1848년(헌종 16) 울산부 난곡서원에는 아들 김제점의 유배지라는 이유에서 각기 추향되었다. 더욱이 반곡·죽계서원은 장동김씨 세도 정권의 조상 추송 분위기에 힘입어 철종연간 사액을 받았다. 반면 난곡서원은 1819년(순조 19)부터 30년 간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1847년(헌종 13) 울주부 함월산 아래 태화강 가에 송시열 주향, 김창집·제점 부자를 합

72) 『법성일기』, 「筵說」(6월 23일) 193쪽, 정진영, 앞의 논문, 2015, 257쪽 재인용.

73) 『西山書院事實』(국립중앙도서관소장)

향해 창건되었다. 다만 앞의 두 서원과 달리 사액은 없었다.<sup>74)</sup>

윤봉구의 3개 원사는 독향처·기존 서원 추향·생사당 3가지 형태로 제향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의 영남 문인 최남두의 노력에 의해 창건되고 추향되었다. 앞의 것은 독향으로 출발한 삼가현의 옥계서원이며, 뒤의 것은 송시열·권상하·한원진 노론 호론계의 적전 일원으로 추향된 성주목의 노강서원이다.<sup>75)</sup> 그리고 1725년(영조 1) 청도군수 재직 당시 세운 생사당인 동천사는 송시열 ⇨ 권상하 ⇨ 송환기<sup>76)</sup> 문인을 연달아 배출한 이서 신촌리에 세거한 밀양박문<sup>77)</sup>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sup>78)</sup>

예컨대 영남에서 노론으로 좌정하는 또 다른 계기로는 송시열의 문인이 나오면서 노론학맥이 가문의 정체성 내지 가학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위 밀양박문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대구부 옥천전문·봉화현 남양홍문, 인동현 인동장문, 함창현 인천채문, 삼가현 안동권문 등이 대표적이다.<sup>79)</sup> 이는 1738년(영조 14) 안동 김상헌 서원 건립 시 도내 장보유사 현황에도 이와 같은 실상이 반영되어 있다.<sup>80)</sup>

각기 2개소 제향자 원사 가운데 주목할 곳은 소론 학통의 핵심 인물이 제

74) 홍직필, 『蘭谷書院記』.

75) 이와 관련된 내용은 후술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76)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밀양박씨 가계도



신주엽, 앞의 논문, 2018, 14~15쪽에서 추출. 『밀성박씨세보』에는 박지현의 증조부 朴陽復은 울곡문인, 朴宣章은 사계 문인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문인록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77) 지역에서는 세월박씨라 불리는 이 가문의 기호학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계승되었다.

78) 송환기, 『性潭先生集』 제8권, 「書 - 答朴東純時元」.

79) 이연숙, 앞의 논문, 2002. 영남의 송시열 문인은 17개 군현에 59명에 이른다. 지역별 분포는 대구 11명, 신산 8명, 성주 7명, 상주 6명, 봉화·삼가 각4명, 영주·청도·함창 각3명, 김산·인동 각2명, 경산·의령·의성·장기·하양 1명 순이다. 『華陽淵源錄』.

80) 김학수, 앞의 논문, 『국학연구 제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123쪽.

향 된 경주부 명산서원이다. 소론계 서원이 경주부에 건립된 점이 자못 의문스러운데, 이 서원은 1824년(순조 24) 경주 월성 동쪽 명활산 北麓에 세운 강당 活齋에서 출발했다. 이 강당이 서원이 된 동기는 경주부윤으로 부임한 박宗薰의 영향 때문이다. 박부윤은 박세당의 5대손이자 제향자 박태보의 종중손으로 소론 핵심 가문인 潘南朴門 출신이다. 그래서 부남의 12개 문중<sup>81)</sup>이 협력하고, 영남의 대표적인 소론인 안동 법전 卞州姜門의 姜必孝<sup>82)</sup>와 성혼의 후손이자 강필효를 사승한 成近默 등의 지원에 힘입어 사당이 완공되었다. 1836년(헌종 2) 강필효에게 봉안문과 축문을 받아 성혼을 제향하고, 서원내 성혼의 '書室儀'를 각자해 게시하게 하였다.<sup>83)</sup> 1840년(헌종 6)에는 서원의 규모를 완비하고, 다음해 윤증과 박태보의 추향이 이루어졌다. 이후 1858년(철종 9) 서악서원에서 신항들과의 원임직 소통<sup>84)</sup>을 두고 전개된 시비에 참여했으며, 대원군 휘철 후 운영에 참여한 후손들은 1904년(광무 8) 『輔仁契』<sup>85)</sup>를 결성해 그 명맥을 유지했다. 당시 작성된 契案 내 약 60%를 점하는 5개 성관은 김해 김 57명·경주 김 33명·경주 손 16명·진주 강 14명으로 나타나 대체적인 인적구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진주강씨는 경주출신이 아닌 안동 법전에 터를 둔 인물들이다. 생사당을 제외하면 영남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소론계 서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노·소론계 인물이 동시에 제향 된 의성현의 학동서원 역시 지방관에 의해 창건된 사례이다.<sup>86)</sup>

다음으로 문중관련 인물을 제향 한 노론계 서원으로는 <표-5>과 같이 14개 가문에서 16개소로 확인되었다.

81) 밀성박씨(蓀谷), 김해허씨(典洞), 영일정씨(魚日), 김해김씨(薪溪), 제주고씨(院坪), 경주손씨(上辛), 아산장씨(內南), 성주도씨(西岳) 등이 참여했다.

82) 법전 진주강씨와 강필효에 대해서는 임규완, 「법전 진주강씨와 해은 강필효」, 『18세기 영남의 한문학 ; 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5 참조.

83) 강필효, 『海隱先生遺稿』 권7, 「書 - 答明山院儒」.

84)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1858년 경주향교 통문』, <http://yn.ugyo.net>.

85) 26가문에 총 239명이 수록되어 있다. 『輔仁契』(동명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앙도서관 소장)

86) 『義城縣誌』, 「學校 條 - 鶴山書院」

〈표-5〉 문중관련 제향인

문 중	창녕성씨	덕수이 · 인동장 · 청도김 · 평산신씨	곡산한 · 김해허 · 단양우 · 담양전 · 밀양 박 · 순흥안 · 여주이 · 함양박 · 해주오씨
원사수	4개소	각 2개소	각 1개소

우선 시기적으로는 17세기 4개소, 18세기 6개소, 19세기 3개소, 미상 3개소로 각기 건립이 되며, 제향자는 대부분 가문의 입향조 또는 파조 등을 제향하고 있다. 건립의 주체는 ①본래 서인계로 영남에 입향해 당색을 유지한 가문, ②서인계 문인의 후손 가문, ③혼인 · 정치적 목적 · 기타에 의해 노론계로 좌정한 가문 3개의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①에 해당 가문은 창녕성 · 덕수이 · 해주오문이며 앞의 두 가문은 상술한 바 있고, 해주오문은 단성현의 김장생 문인으로 송시열과 교유한 오국현의 후손 家를 말한다. ②는 송시열 문인 후손과 관련이 깊다. 인동현 張瑠의 후손 인동장문, 함창현 신석번의 후손 卞山申門, 청도군 박지현의 후손 밀양박문, 대구부 허득량의 후손 김해허문과 禹錫圭<sup>87)</sup>의 후손 丹陽禹門이 그들이다. ③의 혼인은 상주목의 청도김문 · 의흥현 함양박문<sup>88)</sup>, 정치적 목적은 경주부 谷山韓門과 여주이씨 옥산파로 파악이 되었다.

끝으로 충절인을 제향 한 원사는 5개소가 건립이 되었다. 제향자의 성격은 임진왜란 때 상주 북천전투 순절인 1개소, 병자호란 때 척화파로 순절한 삼학사 2개소, 인현왕후 폐출에 반대한 己巳淸論者 1개소, 무신난 순절인 1개소가 후손들의 세거지 · 지방관 부임지 · 순절지에 각기 세워졌다.

87) 주매, 「朝鮮後期 家族 및 親族秩序 研究 -17~19세기 大邱 月村지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98쪽. 그러나 송시열 문인록에는 이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88) 상주목 청도김문은 창녕성문과 의흥현 함양박문은 경주부 庶派 가문인 여주이씨 옥산파와 혼인하면서 노론으로 자리한다.

#### IV. 맺음말

본고는 조선후기 존재는 했으나 학계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남 노론 세력에 대해 서원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았다.

영남의 노론은 크게 전통적인 노론 사족 가문과 노론을 표방하며 등장한 신향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대략적인 지표는 1738년(영조 14) 정언 이수해가 안동 김상헌 서원 재 건립 장소 내 언급된 영남 서인 명문가들을 들 수 있다.

언급자 당사자가 속한 덕수이문은 열거한 가문들과 긴밀한 혼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문에 대한 추적은 영남 노론의 분포와 형성과정을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가문의 통혼권을 요약하면, 17세기에는 기호지역 서인 가문들과 주로 혼인하면서도 영남지역 사족가문과도 혼인을 매개로 노론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18세기에도 앞 시기와 유사한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통혼권이 좀 더 확대되어 영남지역 내 가문들과의 혼인 비중이 높아진다. 즉 선산김씨를 비롯한 영남 내 同色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남 노론계 서원 건립 흐름도 바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영남 서인계 원사는 노론계 60개소, 소론계 2개소, 노·소론계 공존 1개소로 총 63개소이다. 이들 가운데 당초 서원 발의 후 건립한 경우보다는 중간에 승원한 곳이 대다수이며, 영남 38개 군현에 분포하며, 좌도가 우도에 비교해 앞서 있었다.

제향인의 유형은 ①당파 ②문중 인물 ③충절인으로 구분되며 ①이 핵심이다. 당파 관련 인물은 노·소론 분당 이전 서인계 인물 6명, 노론계 29명, 소론계 5명, 기타 1명 순이었다. 이들의 제향 배경은 지방관 15개소, 유배 관련 14개소, 장리지지 5개소, 은거 2개소, 문인·입향조·지명·처향 각 1개소, 미상 5개소로 확인되었다. 합천 출신으로 윤봉구 문인 최남두를 논외로 하면 영남인은 전무했다. 제향인은 송시열 제향 원사가 14개소로 가장 많이 파악되었다.

---

참고문헌

---

『輔仁契』, 『西礪建院事實略』, 『雲溪祠創建事實』, 『雲溪書院重建事實』, 『義城縣誌』, 『華陽淵源錄』, 『승정원일기』, 『실록』.

강필효, 『海隱先生遺稿』, 김장생, 『사계전서』, 송환기, 『性潭先生集』, 이이, 『栗谷全書』, 홍직필, 『蘭谷書院記』.

박선이·송수경 번역, 『국역 - 서원등록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5.

박수홍 지·박영호 번역, 『(국역)蓬谷先生文集』, 2013.

社)울곡연구원, 『향토고전번역총서Ⅳ』, 원영출판사, 2013.

월암서원복원추진위원회, 『月巖書院誌』, 2011.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7.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7.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1997.

고수연, 「18世紀 初 湖西地域 書院의 黨派의 性格 -朱子·宋時烈 祭享 書院을 中心으로」 『호서사학 제29집』, 2000.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山訟)과 상언(上言), 격쟁(擊錚) -노상추가(盧尙樞家)와 박춘노가(朴春魯家)의 소송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3권』, 2008.

김성윤, 「안동 남인의 정치적 일상과 지역정치: 동향-철종대 金洙根서원 건립과 고종 대 屏虎保습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15호, 2009.

김학수, 「노론의 대 남인 분열·통합책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2003.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사회적 성격」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 성과 정치적 성격』, 2007.

김학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족가문의 學派·政派의 분화와 그 존재양상 -松堂門人 久庵 金就文(1509-1570) 가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8, 2010.

김형수, 「1738년(영조 14) 安東 鶴東書院의 存置와 지방관의 역할-『法城日記』를 중심으로-」 『영남학』 제17호, 2010.

박인호, 「조선후기 구미 사회의 변화와 갈등」, 『구미의 역사와 인물』, 2006.

신주엽, 「17-18세기 대구지역 서인계 사족의 활동 -沃川全氏를 중심으로-」, 경

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濼溪書院 연구」, 『남명학연구』 제26집, 2008.
-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제62집, 2016.
- 이수환, 「寧海 仁山書院의 設立과 毀撤」 『대구사학』 제63집, 2001.
-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23, 2002.
- 이재철, 「朝鮮後期 大邱地域 西人勢力의 動向」, 『대구사학』, 제76집, 2004.
- 임규완, 「법전 진주강씨와 해은 강필효」, 『18세기 영남의 한문학 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5.
-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본 이우 가문의 역사와 향촌생활사」, 『이창용교수 기증유물도록』, 2008.
-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 정현정, 「조선중기 朱子祭享 書院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2011.
- 주 매, 「朝鮮後期 家族 및 親族秩序 研究 -17~19세기 大邱 月村지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영남학』 제64호, 2018.
- 채광수, 「조선후기 경상우도의 노론계 서원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68집, 2018.
- 채광수, 「1728년 무신난과 居昌 褒忠祠 건립의 성격」, 『역사교육논집』 제70집, 2019.

## Distribution of the Noron-line family in the Youngnam Area and Trend of Establishing Seowon

Chae, Gwang-su\*

The Noron of Youngnam may largely be classified in two types; The traditional Noron (a political fac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well-established family and the newly emerging party by claim to be Noron. First of all, the outlined indications of the former was presented by Jeonon Lee Su-hae in 1738 (the 14th year of King Youngjo's reign) with his petition to request the re-establishment of Andong Kim Sang-heon Seowon with the content that mentioned about the representative Seoin (a political fac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of distinguished families in Youngnam in a way of finding the clue. He had established close relationship made in marriage with the most of families listed as members of Deoksu Lee Family, the top echelon well-established family in Youngnam. By summar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territory of marriage for the family, they had a significant role to disperse Noron's principle by mainly married to the Seoin families in the preferred area during the 17th century while taking the marriage with the well-established families in the Youngnam area as its medium. In the 18th century, under the similar flow to the

---

\* Researcher at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in Yeungnam University  
/ corhkdt911@ynu.ac.kr

earlier-mentioned period, the regional territory of marriage was even more expanded relatively that the ratio of marriage with the families in the Youngnam area was heightened. In other words, It implies that the same color in Youngnam had increased. The flow of establishing the Seowon of Youngnam Noron-line to be reviewed is made under such environment. Obviously, the emergence of the newly emerged people that had the protection of government authority under the transition of the Youngnam society in the 18th century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The Youngnam Seoin-line Wonsa in the later part of Joseon had 60 places of Noron-line [political faction, family], 2 places of Soron(a political fac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line, 1 co-existing place of Noron and Soron-line for a total of 63 places. Among them, most of them were the places for Buddhism in the middle, and they were scattered in 38 guns and hyeons for each area, and Jwado (one of the two regions formed by splitting a province) was comparatively ahead of Wudo (one of the two regions formed by splitting a province). The establishment period had the highest ratio in the 18th century and the figure was shown to be high in Daegu-bu, Sangju-mok, Gyeongju-bu, Seongju-mok Dae-eup. Among them, the bestowed Wonsa was in 6 places and only two were retained at the time of the damage by Daewon-gun Wonsa.

The characteristics of Youngnam Noron-line Wonsa ritual personnel may be classified for ① political faction, ② family personnel, and ③ men of fidelity and the above ① is the core aspect. As for the political faction related personnel, there were 6 Seoin-line persons, 29 Noron-line persons, 5 Soron-line persons, and one person prior to the split of Noron and Soron. As a result of checking out the background of their ritual service, it is confirmed to be 15 places of local government office, 14 places related to exile, 5 places of Janglujiji, 2 places of seclusion, 1 place each for literary

man, iphyangjo (persons settled in a new place), land name and religious service for ancestors, 5 unknown places. With the exception of Yoon Bong-goo from Hapcheon and literary man Choi Nam-doo, there was no one from Youngnam. For the sacrificial rite personnel, the Song Si-yeol Ritual Service Wonsa had the most for 14 places, followed by Yi Yi and Zhu Xi, Kim Sang-heon, Kim Chang-jip and Yoon Bong-goo. The Noron-line Seowon that ritual service for the family related persons shows 14 famil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16 places and the Wonsa that men of fidelity with sacrificial rite had 5 places established

Key words : Youngnam, Noron, family, Seowon, 18th century

이 논문은 2019년 5월 28일 투고 완료되어  
2018년 6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부록

문경(聞慶) 근암서원(近岳書院) 소장 자료 해제

『근암서원사적(近岳書院事蹟)』 영인

## 문경(聞慶) 근암서원(近岳書院) 소장 자료 해제

### I. 근암서원의 연혁

현재의 근암서원(近岳書院)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351-5(서중리 148-1)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조선후기 상주목 산양현(山陽縣) 수개골(樹介谷)이었다.<sup>1)</sup> 배향인물은 우암(寓庵) 홍언충(洪彦忠, 1473-1508)을 주향으로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41-1613),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 1540-1594),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1621-1678), 활재(活齋) 이구(李渠, 1613-1654),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64-1733),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 등을 병향(並享)하고 있다.

근암서원은 1553년(명종 8)부터 1554년(명종 9)까지 상주목사(尙州牧使)을 역임한 영천자(靈川子) 신잠(申潛, 1491-1554)이 세운 영빈서당(穎濱書堂)에서 시작되었다.<sup>2)</sup> 임진왜란 이후 현재의 위치로 이건(移建)한 후 근암서당(近

1) 산북면은 1018년(고려 현종 9)이래 상주목 산양현(山陽縣)에 속하였다. 1906년 상주군에 속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서·산동·산남·산북면을 폐합하여, 산양면과 산북면으로 나누고 문경군에 소속시켰다. 산북면은 남쪽의 비조산과 월방산을 경계로 산양면과 나누고, 산서·산동·화장면 일부를 병합하여 산북면이 되었다. 『삼국사기지리지』에서는 ‘嘉猷縣은 본래 近品縣(巾稟)인데, 신라 경덕왕 대에 지금의 산양현으로 고쳤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산양의 옛 지명이 近品인데, 近岳이라고도 했다. 산북면 남쪽에 위치한 書中리는 본동과 웅창마을로 구분되는데, 본동은 임진왜란 당시 밀양박씨 朴守宗이 청주에서 이거하여 마을 중앙에 세거하면서 후에 서원리 혹은 서중리라 했다. 웅창마을은 인천채씨와 전주이씨들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세거하였다. 1650년 溝壑齋 權坵(1611-1682)가 입향한 후 안동권씨 후손들이 본동의 남쪽 艸谷과 樹介谷(근암촌)에 세거하고 있다. 1693년에는 부원당 김해가 입향하여 안동김씨 후손들이 본동 북쪽 가단곡 보가리에 세거하고 있다.

2) 『商山誌』(1749, 淸臺本), 「書堂」. 여기에는 모두 24개소가 등재되어 서당별로 위치와 창건연대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17개 서당은 신잠 목사 재임 중에 창설하였다고 한다. 신잠이 지은 17개 서당은 霞谷·道谷·石門·首陽·魯東·修善·龍門·{彡+穎濱·梅嶽·梧山·孤峯·鳳城·白華·鳳巖·松巖·智川·竹林 등이다. 뒤이어 關翼·磻溪·芝山·修稷所·存愛院·鄉約社·鄉約堂을 수록하였다. 이 중 수계소는 ‘山陽

嶺書堂)에서 향현사(鄉賢祠), 근암서원으로 변천하였는데, 서당에서 서원으로 성장하는 모습과 17-18세기 서원 금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이를 피하여 사우에서 승원(陞遠)했던 서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

부훤당(負暄堂) 김해(金楷, 1633-1716)의 「영빈서당이설기(穎濱書堂移設記)」에 의하면<sup>3)</sup> 영빈서당의 전신인 죽림서당(竹林書堂)은 1530년경 옛 영원사(鶴原寺)터에 4칸의 집을 짓고서 당(堂)과 실(室)을 나누었는데, 서당 인근에 옛 죽림사(竹林寺)터가 있었기에 ‘죽림(竹林)’이라 명명하였다. 이 시기 산양현에는 첨지 황사웅(黃士雄), 사명 변종번(卞宗蕃), 별좌 변종범(卞宗範), 부장 변안인(卞安仁), 통정 서흔(徐訢) 등이 ‘향약(鄉約)’을 시행하고, 옛 죽림사 터에 ‘산양수계소(山陽修稷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수계소 내에 죽림서당을 건립한 것이다. 1574년(선조 7) 구봉령(具鳳齡)이 이곳에 와서 4일간 머물렀을 때 산양 사림들의 요청으로 강당을 ‘존성당(尊性堂)’이라 명명하고 시를 남겼다.<sup>4)</sup>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수계소와 서당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1614년(광해군 6) 인근에 거주하며 함께 서당에서 공부하였던 칠봉(七峰) 황시간(黃時幹=黃廷幹, 1558-1642), 월봉(月峯) 고인계(高仁繼, 1564-1647), 김진사(金進士) 등이 이전의 서당이 협소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었음을 들어서 수개골(樹介谷)에 터를 잡고 개축하였다. 이때 명륜당과 동·서재의 제도를 모두 갖추고, 이곳 산성(山城)의 이름을 따라서 ‘근암(近嶺)’이라 하였다.<sup>5)</sup> 즉 묘우를 제외하고 강당인 존성당과 동재, 서재를 갖추어 이전보다 더 규모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서당의 임원을 산장(山長)과 유사(有司)라 칭한 것에서도 이미 중건을 하면서 서원과 향교의 제도를 고려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修稷所’로 추정된다.

3) 金楷, 『負暄堂集』卷3, 記, 「穎濱書堂移設記」.

4) 具鳳齡, 『栢潭集』卷3, 五言律詩, 「山陽尊性堂感題」.

5) 金楷, 『負暄堂集』卷3, 記, 「穎濱書堂移設記」. 이에 따르면 이전의 죽림서당은 修稷所로 하여, 산양현의老少가 모두 모이는 곳으로 삼았다. 또한 죽림서당은

『근암서당창건고적(近岳書堂創建古蹟)』에 의하면 황시장을 산장(山長)으로 하고, 서상덕(徐尙德)을 유사(有司), 서재(西齋) 채득강(蔡得江)과 김원형(金遠馨)을 영조유사(營造有司)로 하여 1615년(광해군 7) 봄에 공역을 시작하여 수개월 만에 마쳤다. 이후 1653년(효종 4) 4월에 활재 이구를 중심으로 ‘근암서재(近岳書齋)’에 우암 홍언충을 제향하는 일로 상주목내 교원(校院)에 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향교, 도남서원(道南書院), 옥성서원(玉成書院)에서는 한 고을에 3곳을 설립하여 제사 지내는 일은 편하지 않음에 이르므로 별도로 더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모든 향현(鄉賢)을 봉안하고 있는 옥성서원에 합향(合享)할 것을 제안하였다.<sup>6)</sup> 이들 교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홍언충을 제향하는 일은 1664년(현종 5)에 재개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조정에서 서원 창건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목(事目)이 반포된 후였다. 그래서 전영해부사(前寧海府使) 영서(李瑊西) 전명룡(全命龍, 1606-1667) 외 사람들은 1664년(현종 5) 7월 상주목사에게 상서하여, 고을의 서당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홍언충을 제향하는 공론(公論)은 근래 10년 동안 온전히 갖춰졌던 것이었지만 큰 흉년으로 제향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에 한두 칸의 사당만을 짓는 것이게 쉽게 터와 재목은 준비했지만 기와 굽기와 재목 운반은 약간 명의 정부(丁夫)가 필요하므로 상주목사가 특별히 신양현의 한 동네에서 장정 몇 명을 내어서 운반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sup>7)</sup>

당시 상주목사 박승건(朴承健, 1609-1667)은 이들의 요구를 수락하였고, 8월 6일에 개기(開基)하여 강당의 뒤 터에 묘우를 짓고서 ‘향현사(鄉賢祠)’라 했다. 이는 조정의 서원 신설 금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사우로 명명한 것이었다. 나아가 9월에는 유생들의 거접(居接)시 공귀와 묘우의 수직(守直)을

6) 『近岳書堂創建古蹟』, 「癸巳(1653)四月通本州文(李活齋)·答通」.

7) 『近岳書堂創建古蹟』, 「甲辰(1664)七月日呈牧伯文」; 洪汝河, 『木齋集』卷5, 記, 「山陽書堂立社呈文 代儒生作」. 이 呈文의 疏首는 前寧海府使 全命龍이었지만, 上書는 木齋 洪汝河(1620-1674)가 작성하였다.

위해 산동(山東)의 장정 2명을 특별히 소속시켜주길 요청하고, 10월에는 수직과 고직(庫直)하는 연호(烟戶)의 군역(軍役)을 면제해주길 요청하였다. 한편으로는 상주와 도내 사림에게 통문을 발송하여 10월 초3일의 봉안례(奉安禮)에 참석해 주길 요청하였다.<sup>8)</sup> 그 후 1669년(현종 10) 예조의 허가를 받아 11월 7일에 한음 이덕형을 병향(並享)하고 서원으로 승원(陞院)하였다. 1702년(숙종28)에는 사담 김홍민, 목재 홍여하를 추배하고, 1786(정조10)에는 활재 이구, 식산 이만부, 청대 권상일을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의 원사 철폐령 당시 근암서원은 훼손되었으며<sup>9)</sup>, 이후 방치되어오다 1979년 사림과 후손이 모여 복원을 결의하고 1982년 9월 후손들과 유림이 힘을 합쳐 사당과 강당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협소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치되어 오다가 2009년 복원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sup>10)</sup>, 2011년 5월에 사당과 전사청, 강당, 내삼문, 동재, 서재, 누문, 관리사 등을 갖춰 중건하였다.

묘우는 경현사(景賢祠)이며, 7인의 위패를 열향(列享)하고 있다. 현재 매년 음력 3월 상정(上丁)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기존 ‘근암서당(近嶽書堂)’ 현판은 장문당(藏文堂) 원진해(元震海, 1594-1651)의 글씨인데 서원으로 승원하면서 ‘원(院)’자를 조시호(曹時虎)가 고쳤다고 한다. 흥교당(興教堂)과 주일재(主一齋) 현판은 상주목사를 역임한 선원(仙源) 김상용(金尙龍, 1561-1637)이 썼다. 백담 구봉령이 지나다 이곳에 들러 지은 시판(詩板)은 교관(敎官) 신명전(申命傳)이, 지원루(知遠樓)·육인재(欲仁齋)·유의재(喻義齋)의 현판은 식산 이만부가,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와 이산원규(伊山院規)는 처사(處士) 오상원(吳尙遠)이 썼다.

2006년 1월 2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7호로 지정된 ‘문경 근암서원 소

8) 『近嶽書堂創建古蹟』, 「甲辰(1664)七月日呈牧伯文」, 「甲辰九月呈牧伯文」, 「甲辰十月呈牧伯文」, 「通本州文」, 「道內通文」. 당시의 봉안문은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작성하였다.(『近嶽書院創建事蹟』)

9) 「道內各邑書院毀撤查括成冊草」(『栖碧外史海外蒐佚本』 15, 李佑成 編, 亞細亞文化社(영인본), 1990)

10) 문경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경 근암서원 복원정비 기본계획』, 2009.

장 유물'은 모두 845점이다. 이 유물들은 대부분 청대 권상일과 관련된 것들로서 고문서가 73점, 전적 16종 31책, 유물 3종 5점이 있다. 이 외에 목판은 『동국통감제강』 판목 133장, 『목재선생문집』 판목 228장, 『우암선생문집』 판목 49장, 『청대선생문집』 판목 326장이 있다. 고문서와 전적, 유물은 모두 청대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으며, 판목은 각 문중에서 보관해 왔으나 현재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하였다.

## Ⅱ. 근암서원 관련 자료의 소개<sup>11)</sup>

### 1. 근암서원사적(近嶽書院事蹟)

이 자료는 가로 34cm, 세로 41cm이며, 13장 1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표제와 내제는 「근암서원사적(近嶽書院事蹟)」이다. 맨 뒷장의 표제에 「임술칠월망후이일개장(壬戌七月望後二日改裝)」이라 쓰여 있어서, 1802년(순조 2) 7월 17일에 별도로 꾸민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근암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의 봉안일과 봉안문, 행적 등을 적고, 묘우상량문(廟宇上樑文), 고적(古蹟), 편액(扁額), 현계(懸揭), 제영(題詠), 사액(賜額) 유무를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근암서원사적』에는 1664년(현종 5) 8월 6일 도내 사림들의 공의로 창건되었으며, 주향으로 교리(校理) 우암(寓庵) 홍언충(洪彦忠, 1473-1508)을 제향하였다. 홍언충은 상주 출신으로, 본관은 부림(缶林)이며, 증직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1665년(현종 6)에 봉안하였으며,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11) 『근암서원사적』의 원본은 청대 권상일 종손이 보관하고 있으며, 『근암서당창건 고적』은 현재 소재가 불명하다. 학보에 소개하는 두 자료는 영남대학교 이수환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복사본이며, 지면상의 사유로 이번 호에서는 두 자료의 해제와 『근암서원사적』만 영인(影印)하여 공개한다. 『근암서원지(近嶽書院誌)』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남아 있는데, 이 책에도 서원의 연혁이 잘 정리되어 있다.

1587-1667)지는 「봉안문(奉安文)」과 「상향축(常香祝)」, 홍언국(洪彦國)이 지은 「묘갈(墓碣)」 및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에 수록된 홍언충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병향(並享)에는 추향(追享)된 순서대로 인물들을 기재하고 있다. 이들은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41-1613),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 1540-1594),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1621-1678), 활재(活齋) 이구(李渠, 1613-1654),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64-1733),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 등의 6인이다.

1669년(현종 10)에 추향된 문익공(文翼公)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고향은 상주이다. 서인계 대신이었던 이덕형을 추향함으로써 서원으로 승원 하였기에 추향한 인물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봉안문」은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가 지었으며, 「상향축」은 부원당 김해가, 「행장(行狀)」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지었다. 당시 영정(影幀)도 봉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영정봉안문은 노암(魯庵) 정필규(鄭必奎, 1760-1831)가 지었다.<sup>12)</sup>

1702년(숙종 28)에 추향된 증도승지(贈都承旨) 사담 김홍민의 본관은 상산(尙山)이며, 고향은 상주이다. 「상향축」은 김해가 지었으며, 「행장」은 동생인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 1557-1605)가 지었다. 같은 해에 추향된 증부제학(贈副提學) 목재 홍여하의 본관은 부림이며, 고향은 함창(咸昌)이다. 「봉안문」과 「묘갈」은 하곡(霞谷) 권유(權愈, 1633-1704)이 지었으며, 「상향축」은 김해가 지었다. 당시 「고유문(告由文)」은 노주(蘆洲) 김태일(金兌一, 1637-1702)이 지었다.<sup>13)</sup>

「묘우상량문」은 1664년(현종 5) 8월에 사우를 건립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고적」은 1544년(중종 39) 상주목사 신잠에 의해 근암서당이 설립되고, 1664년(현종 5)에 승원되어 근암서원이 된 경위와 서원의 동쪽에 옛날에 근

12) 李恒福, 『漢陰先生文稿』附錄 卷4, 奉安文, 「近岳書院影幀奉安文(鄭必奎撰)」; 鄭必奎, 『魯庵先生文集』卷5, 祝文, 「近岳書院漢陰李先生影幀奉安文」.

13) 金兌一, 『蘆洲先生文集』卷3, 祝文, 「近岳書院追享時告由文」.

품현(近品縣)이 있고, 현에 근품산(近品山)이 있었던 것에서 근암(近嶽)이라는 명칭이 유래했음을 적고 있다.

「편액」은 ‘근암서원(近嶽書院)’으로 처음 서당이었을 때 당대의 명필 장륙당(藏六堂) 원진해(元振海, 1594-1651)가 ‘근암서당(近嶽書堂)’ 편액을 썼으나, 후에 승원하면서 ‘서원’이라고 글자를 고쳤다. 이외에도 「현계」 조에는 걸려있는 현판으로 ‘흥교당(興教堂)’과 ‘주일재(主一齋)’를 소개하고 있다. 두 현판은 모두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 전서(篆書)로 쓴 것인데, 서당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김상용은 1604년(선조 37)부터 1606년(선조 39)까지 상주목사를 역임한 인물로서 1615년(광해군 7) ‘근암서당’을 개건할 당시 쓴 것으로 추정된다. ‘제영’현판은 영빈서당 당시 백담 구봉령이 4일간 머물면서 산양 사람들의 요청으로 강당을 ‘존성당(尊性堂)’이라 명명하고 시를 남겼는데, 그 시를 판각해서 걸은 것이다. 「원기(院記)」는 없으며, 「사액(賜額)」도 받지 못하였다.

1786년(정조 10)에는 활재 이구, 식산 이만부, 청대 권상일을 추향하였다. 처사 이구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고향은 상주였다. 징사(徵士) 이만부의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고향은 상주였다. 「봉안문」과 「상향축문」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를 지은 사람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활재 이구의 봉안문은 정와(靜窩) 조석철(趙錫喆, 1724-1799)이 지었다.<sup>14)</sup> 희정공(僖靖公) 권상일의 본관은 안동이며, 고향은 상주였다. 「봉안문」은 외재(畏齋) 류종춘(柳宗春, 1720-1795)이, 「상향축문」은 경담(鏡潭) 이수정(李守貞, 1709-1795)이 작성했다.

14) 趙錫喆, 『靜窩集』 卷5, 祝文, 「活齋李先生近嶽書院追享奉安文」.

## 2. 근암서당창건고적(近岳書堂創建古蹟)

이 자료는 가로 30cm, 세로 41cm이며, 71장 1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표지의 훼손이 심하여 표제는 ‘근암서당…(近岳書堂…)’만이 확인된다. 내제는 「근암서당창건고적(近岳書堂創建古蹟)」이다. 표지의 뒷면에는 근암서원 원내에 걸려있었던 ‘근암서당’, ‘홍교당’, ‘주일재’, ‘구백담시판’, ‘지원루’, ‘육인재’, ‘유의재’, ‘백록동규’, ‘이산원규’ 편액을 작성한 인물들을 적고 있다. 이는 근암서원이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었고,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본문은 1554년(명종 9) 상주목사 신잠이 서당을 건립하였을 때부터 1750년(영조 26)까지 발생하였던 각종 사안으로 향내·외에 주고받았던 통문·답통(答通)과 목사·순상(巡相) 등에게 올린 상서, 관에서 내려온 관문(關文), 하첩(下帖) 및 상량문, 중수기 등의 기문(記文) 등이 등서(謄書)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향내외 통문이 62건, 정문(呈文) 14건이며, 그 외 묘우·문루상량문, 흥언충·이덕형·김홍민·홍여하의 봉안문, 축문, 발문(跋文), 제문(이만부), 명륜당중수문, 묘우중수이·환안축문, 품목(稟目), 관문(關文), 전령(傳令), 이종적효유문(李宗迪曉諭文), 원중완의(院中完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통문은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서원으로의 승원(陞院), 추향(追享), 중건(重建), 무신란(戊申亂), 문집(文集)간행 등으로 나뉜다. 정문(呈文)은 근암서원으로의 승원과 원속(院屬), 속사(屬寺)인 주면사(朱麵寺) 등에 대한 면역(免役)과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추향 당시 작성한 봉안문, 축문과 흥언충의 문집 『우암집(禹菴集)』 간행에 관한 논의 및 발문 등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관문과 전령은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것으로 호소사(號召使) 조덕린(趙德鄰)과 소모사(召募使) 황익(黃翼)이 보낸 관문, 상주에서 의소(義所)를 만들고 제정한 14개조의 절목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1744년(영조 20) 3월에 상주목사로 부임한 송계(松溪) 이종적(李宗迪, 1710-1748)이 상주내 교원(校院)에 흥학(興學)과 관련하여 효유(曉諭)하고 6개조의 절목을

반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원중완의(院中完議)」 15개 조항은 근암서원의 실제 운영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一. 入學儒生 怕供二十員而始 自至月初 至臘月念後罷歸
- 一. 凡讀書生 各自其門中隨族 多少加減擇送 而一任怠惰 不甚留意於文字 上者不須舉論
- 一. 居齋諸生 須各立志牢固毋求近效 惟以遠大自期 而若其治心之方 持己之要 則伊山白鹿等規 昭揭壁上 垂訓丁寧 今不待疊床而自有餘師矣
- 一. 學徒中 如有蔑視完議 不專肄業而徒事諧謔害及傍人者 諸生自相曉諭以盡懲切之義 又自院中訪問 其最甚者 重施儒罰 使得懲勵後人
- 一. 本院自此專主勸課而 凡于無益之費一切掉去 供士等節 亦皆務從簡約 然畧倣館學之禮 間五日 進呈別味
- 一. 入學以來院中用度及事體 既與無事時 自別而典僕 又極單弱炊爨艱難 自今留宿長老之外切勿供饋 而若其午飯 則不用此例
- 一. 每月朔望齊會參謁 固是學宮盛事而 顧緣供意之難堪 只行朔日之焚香 則揆以事體亦甚未安 今依他學宮例 院任焚香時 勿邀他員以啓 望日中廢之患
- 一. 享祀時供土酒 切勿多釀 以致失儀誼譁之弊 至於無時酒政 尤其是伊山禁戒而先輩 又復揭楣申 自今 如非遠客及尊老不必活用
- 一. 罷齋後嗜福 愚伏先生 昔以俗禮禁止鬻堂 而本州各院率皆遵依 無敢設行從今 本院 亦一體永罷不復崖異
- 一. 出債之家 或不還報 反懷不平於催督 是則任員自與 而招人之怒怒 無故而起人之過失也 自今切不許貸社 此兩弊而如或有犯則責出其典守者
- 一. 院任赴學者 量其往還資 送糧米會行則加給 試紙及行饌馬鐵等物
- 一. 每年春 初一度出題 或以詩賦 或以論策 試才高下賞給有差 毋過二十五人
- 一. 每年 享祀時用錢 極其數多 自今以後 一依近來所用 毋得過濫 常用錢財亦擲節除出遂 歲買土以贍供士 糧饌及賞格者
- 一. 院任間 曾經首席之喪 卽以白紙二束 黃燭一雙 未太眞荏各二斗致賻存問

이상과 같이 『근암서원사적』 과 『근암서당창건고적』 은 근암서원의 역

사와 운영 실태를 확인시켜준다. 특히 『근암서당창건고적』에는 1653년(효종 4)부터 1750년(영조 26)까지 수수하였던 각종 문서를 수록하고 있어서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참고문헌

---

『近岳書院事蹟』

『近岳書堂創建古蹟』

『負暄堂集』

『漢陰先生文稿』

『魯庵先生文集』

『蘆洲先生文集』

『靜窩集』

『栢潭集』

『商山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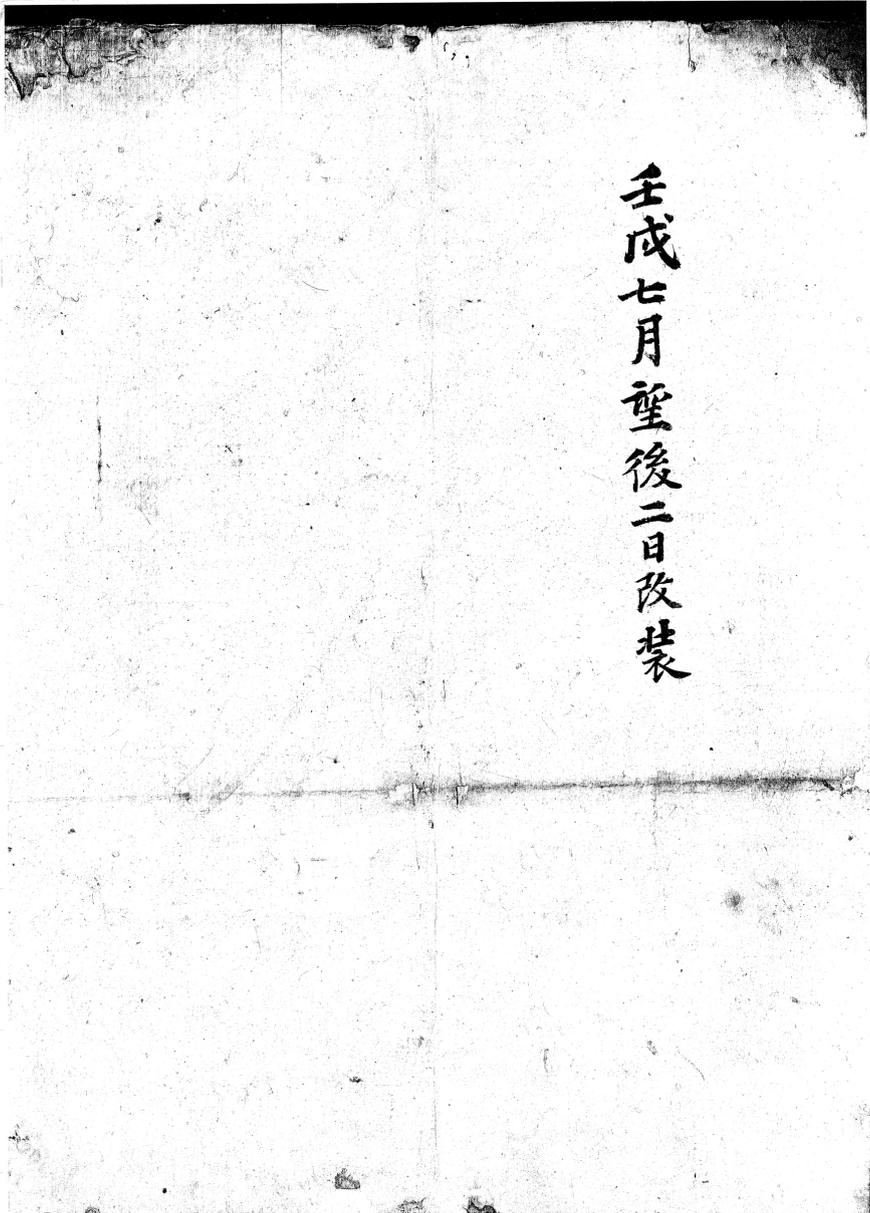
「道內各邑書院毀撤查括成冊草」(『栖碧外史海外蒐佚本』 15, 李佑成 編, 亞細亞文化社, 1990)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오용원, 「한음 이덕형의 후대 평가와 추승 사업」, 『한음 이덕형의 학문과 사상』, 해드림출판사, 2017.

근암서원사적(近岳書院事蹟)영인본





壬戌七月璽後二日改裝

恩命存至一辭三揖時承 晉接不陳非道崇班清秩皆出稽古山類一夕士淚霑襟畏聖  
議起肇享竹林惟茲函院四賢舊祠時雖相後道則一規同虛揭虔曠世休匹羣謀允叶  
隣牘齊發辰良日吉襟佩全集移奉并安德將存斯靈應啓佑庶幾裕思

常享祝文

李守貞

誠敬篤學博約真得淵源正脉百世矜式

正宗大王丙午 月三先生追享

程敬準誠的文編道東受用之功精發易統究竟之法旌招一謝歸袂翩然樂我初服與道周  
旋山頽一夕士沒沾蒙德有其隣學不異方推身及物礪世磨俗鄉中呂約執遵程日名  
教之中砥柱功卓畏壘議起疇不曰宜惟茲岳院四賢舊祠時雖相後道則揆一同堂  
揭虔曠世休正群謀允卞鄰續齊發辰良日吉袷佩紛集像位有儼德將在斯靈應  
啓佑庶幾格思

常享祝文

功成日令教在道東道修交至百世攸宗

僖靖公權相一字台仲本安東淸淸基鄉尚州

奉安文

柳宗春

吾道之南師儒世作抽閱啓鍵臚我蒙學斯我淸臺應期生焉祖于松翁源溯陶山門路既正進  
修彌篤爲揭尊道功主博約理氣源頭見解精密朱陸之分如辨白黑躬行實踐休譽滿國

處士李槩字大方號活齋本全州鄉尚州

奉安文

伏以大道已衰正學幾晦各尊所聞異言喧騰於林先生豪傑天資海東名儒山陽處士窮居篤  
學真知實得獨尋正的直排異學理氣幽異性命精微推源朱說發輝溪旨或書辨證或圖揭示見何精  
到論何的確十條嘉謨亦出丹幅志夾長往孰知其跡山中日月岸禮之厝一區桑鄉百世清風俎豆感禮嗟哉  
未遑氏在後學詎無榮報瞻茲岳祠四賢攸妥炳然忠節蔚乎道義矧茲木老先生志友一氣相感臭味同享  
侯誰並躋息老甚歎學術德業異世同道虛服食禮義攸宜華簡吉辰敬奉躋享青襟琴其禮義  
翼千秋安虞報祀無斁

常享祝文

私淑之道明理之學道範在茲百世矜式

徵士李萬敦字仲舒號息山本延安鄉尚州

奉安文

吾道之南師儒世作抽關啓鍵痛我蒙學斯我先生應期挺生承襲前人詩禮鯉庭弱齡志願  
已在閩洛無文不涉無理不覆博而積之既涵既挾亦既蹈之見卓行立卷而南還山與俱息日工時

扁額

近岳書院

始為書堂時元震海書額洪浣後昔時序改書院宇

懸揭

興教堂

金仙滌尚容篆書堂時所揭而今仍之

主一齋

題詠

書堂時栢潭具鳳齡所詠

瀟灑溪邊屋  
臨流結構新  
窓櫺留暇日  
几案絕纖塵  
愚智元同性  
乾坤只在身  
精工須痛盡  
塗撇莫迷津

儒門唯此學  
日用與曩倫  
訓詁初非本  
文章亦未真  
程論主敬朱  
教切來仁暗  
室宜加戒  
明心實鬼神

景得溪山勢  
靈川用意深  
巖修開靜境  
獎育示純忱  
教闡朝家法  
功光古聖心  
餘波流不盡  
絃誦到如今

院記無末

賜額

恭惟富卷先生古之烈士傑然一時味已辨於取也生有不為死有不避詞競傳於賦鵬命何其短  
 意何其長事君無改節之心奉天有不善之義鄉先生沒可祭社其在斯人至今日始議在堂蓋亦  
 有待睦茲近岳書堂定惟商嶺真區既行既原即水抱山環之地宜絃誦抑冬溫夏涼之天秀  
 氣收鍾其盤戴美之嶽岑塵可挹南眺謝家之山距先生之故居若是其近也日講堂之蕭貴庶可  
 易魏子鄉老出力而鳩材多士釋經而敦事齋廬泡湑之備設益恢中侯之舊規薦裸尸祝之鐸儀  
 聿遵庠門之定論儼輪輿而創構而勢易尊精晤鑿而降款必旁達茲歷吉日將舉修禊恭  
 彈蟻述之誠敢陳崇賀之唱兒即偉拋標東者取初昇曉旭紅年記富時須力學功程脩遠更昭  
 黜兒即偉拋標南十里青山看富卷欲學丈夫風節事請君莫向名利酣兒即偉拋標西指路漳  
 州莫使迷半丘一條堪踏去休論適國有禾谿兒即偉拋標北環繞列星拱紫極三十輻共一轂  
 然心體如之須嘿識兒即偉拋標上片靈臺涵萬象賢聖辛告說明誠盡與斯人徐德隆兒即  
 偉拋標下夏誦冬法集儒雅大學始教山由茲美俗黨陶民自化伏願上標之汲文風丕振正道乃  
 行建學之祠想成肉教育之利器群資業庶澤講習之工人慕節義之風常聘禮讓之俗為臣  
 作忠為子作孝有餘力以學文不肅而或不勞而能詎見遠於異物

古蹟

院東古有近品縣。有近品山嘉靖甲辰中靈川潛為本倅時郎其地為近岳書堂

顯廟甲辰陞院後曰以爲院驛

人和易坦懷相待亦未嘗為戲言相舞黜居整冠屐亦常有愜容處楸人中衆咸諧笑吃語公起  
 然不顧或聲妓相徵會輒不赴惟恐慢已早以文學行誼有重名及廢退盡心力求道既洞曉義理  
 大原日取舊所習典訓及伊洛之書及歷代史反復窮妍溫所已知守所已至者而益求所未至者  
 謂睡卷陶山書吾儒正脉是在致好之精而熟之竟其生江西之學亂道陳發其本末不相坐者  
 辨闡之奈日廣德日修充養純固識致明正得已見於外者灑然無塵俗氣脩然以古君子自期  
 教學者要不罷衣於當世之操不擬於險熾之俗昂帥以實行不徒以文藝相進崇學之講崇淵微  
 雖難極終日在而無倦色經史與義險句人之不解為何語者聞公之解之而莫不喜言下詎解崩之士  
 益歸向之公在約臨施閩人窮至心膽慄雖在傾置不顧也嘗曰理無不該於事無不根於理明理  
 將以致用凡王政綱紀佐世之具通變之道無不講畫而宿留之若用皆有所行之而卒不能出一二少助我  
 光明教治所著有四書拔凡口訣周易口訣儀禮考證彙纂麗史東史提綱文集若干卷統觀之  
 可以審公之志業云銘曰如其學之博也其行之卓也其文章之達也其志守之確也本末始終略該於  
 身有方之士王者之人其承 顧詢胡瑗而靡決登之偉任何事之不做人利忘忠我與道隆倪然  
 獨立統理巨細言以賴使士彞義厲殆累十年運斤不通拂乎其時曷維其同甫受 主知大命  
 俄窮生若死若公不負天玦而贈而其慰未情嶠南舊學誰與繼者敬銘之石維後學之則也

廟宇上探文

誦其詩讀其書知其人之定實尚友國有學州有序定有塾皆以明倫爰創一畝之宮庸揚百世之範

書陸典籍由監察拜正言上疏言 殿下言勅失中願 上明理居敬動靜交修廢化氣質

只在此 考廟批納之戊戌出為鏡城判官鏡極北然公無恨色唯所而畫吾職鏡府迫近胡俗

武不事文學節度使所住營供應費衆聽博事煩為北州劇取於民無藝而吏多隱沒邊民畏

之公至庸兩學為政寬民和度所需為經入尺布不妄賦毫毛無所犯民賦錢三之二府無贖

事選邑中子弟可教學者買齋而州處之講授經史躬課以誘進之作九箴以助邑儒李

鵬壽南寇之難死王事銘其墓以著其義以風厲之士民大悅慨治城池修兵械不以邊無警

而怠於守禦備已亥春 上下教求言公上疏言聖學治道之要會節度使萊民之疾用為好言

貸與民戶鹽已又急徵賈欲漁利怒典負者覺其情將傳致罪公入明之節度使忠出恃言公出城

求解或曰彼帥通濟商數犯主守盜罪不先發恐隔官公曰持伏罪以制人吾不為也節度使果引

他事誣奏罷之及歸所自隨唯數篋書士民送者擁道涕泣悲公之去而惠政文教絕也於是時

輩幸其隙轉相解構奏配公子黃潤明年赦歸故里築堂居之名山齋澤榭之象愆念室憲之

義也自是十五年廢不用然嶺南士皆倚公為重甲寅拜兵曹正郎已而 特除司諫時公病瘳

深而 山陵近公泣謂家人曰吾廢錮久 上簡拔臣擢置之言地阻疾不得趨謝 思命又

不得與於 唯康陪列臣罪大笑至下 玄宮日扶出庭北向笑良久止以此疾益篤十二月十四日

卒雖其生庚申四月丁巳得年五居得行而不少途中外痛惜之明年二月丁酉棄子醴泉黑

松黑節向之原公行得之性學本於經家庭之內持檢奉先凡所承帥而致心焉者皆得體意遺

常享祝

金楷撰

穎悟之資寫實其學修辭立誠斯文準的

墓碣

今

權愈撰

上初卽位知本齋洪公坐直道埋瘞 特旨拜司諫未赴

命而歿後十六年還臣白

上贈弘文館副提

學蓋以時之所歸望者顯其魂也生窮而死榮此而謂達天之所賦予耶士林益悼慕之公諱汝河字伯源本齋號也全林洪氏 國朝左叅贊大提學文臣公貴達五世孫也文臣用道德文章光顯燕

山時在莖茅五子諱彥國進士有文行辨訥卷足為公高祖曾祖諱景參司果祖諱德祿司正考諱鎬大司諫用清直名於世世世濟州高氏 贈左督成文烈公幾命之孫 贈叅判從厚之女也公儒門

世德之後幼而有志行喜讀書其自錯有聲疑難經義出於等輩所不能意者思伏鄭先生甚竒之曰兒出為大儒長益篤學治六經四書極意主其心而督稽千古事一於道而苟通百言語以定趨舍以

證得失性敏悟一經眼輒誌于心無所漏余少時遇公子于漢京歷舉經書小註試問公應口誦盡其條乃已又取傳記諸子摘句語以問輒誦其上下五行使聽者通其文之首尾凡十餘問無所疑碍雖古之

辨聰明至今稱者不能過也為文疾而贍一筆千言紙不窮不休然未嘗下意追時好古久不費甲年始遜進士是年登明經筭其明年薦入藝文館為檢閱轉侍教每入侍 經筵上所疑問還臣不能

對者輒去所釋其義以對或奏事者有飾匿輒辨白之以此時人疾公甚丙申還奉教兼侍講院說

每晨起淨盥兀坐或沉思竟夕而史學則以綱目爲主化理亂得失之故賢邪消長之幾靡  
不了然於心目有問之輒應口答如響性不喜酒而於女色則既入持戒甚嚴處之泊如人眼其  
剛蓋治心明理以厚其根基顧其孝友忠清雖得之天性而亦其本立道生有不可誣者矣爲  
文務要平實不以但繪爲工雅志冲恬酷愛佳山水嘗借山僧結精舍于白華之麓俯瞰方  
池對挹丹壁公每適遙其間有君將終焉之志自號曰沙潭而堂以澤爲名蓋取諸易卦  
損象懲忿窒欲之義也

並序

贈副提學洪汝河字伯源號本齋本在林鄉咸昌

肅宗大王壬午與沙潭同日追享

奉安文

權愈撰

二哲同享制祀多年恢厲風徽允准兩賢沙潭忠孝士所視譜行滿鄉黨誠徹今古治己  
治人孰道終始訓典國志胡深不窮經惟承問言發理明鄉兵禦寇衆激義誠大儒之效遭  
命不克及以爲者聞者起敬本齋志業世所歸慕學有洞源洞觀衢路理身理物未嘗注錯  
聰明特達與天爲期晉途甫開名立緣隨直道見賢精專性理邦禮既正進受不起讀其書者  
庶亦定履唯二先主時之正臣節遇差殊俱迥短辰師法猶傳長見未申卽世已久思德滋遠近  
留舊祠標範儒林練時之吉潔尊維欽庸次躋配永冀降歆

扶威咸集怡 絲帶開響觀者填咽撫愛分甚至唯恐或傷既長猶與之共被事長姊如先宜人  
 分兄弟姊妹之間情意懇洽宅產賦復多以其已兩侍推舉之敦睦親戚有惡輒救至不避烟瘴其嫌  
 以此先宜人益用慰悅常曰吾子每事皆體我心真孝子也初公自翰苑陞六品入方薦錄玉堂要  
 遂當高而唯便養是急至誠求外侍補提以其清如水不干毫髮其愛民也如慈母之保子其待官  
 吏亦以恩信不尚撻撻吏民皆慕其德而服其誠其事君也不阿徇不矯訐勸講之際其言直  
 皆據銜諍史而吐露傾倒知無不言自 上亦諒其真款多所嘉納為公性本慈良而主是非非正  
 之間一刃兩段毅然不可犯歲壬午盧蘇齋以首相丁憂時議重其去欲令奕俊未返京中且以  
 累病有欲推初喪初內者並非 性遠發之公以修撫入侍獨言其不可大意以喪紀為主或嘗公  
 不識權宜而識者多避之奈甫及三司共劾李蒼成珥及朴相淳彈辭甚峻 上怒方震而  
 公以省親未鄉適有玉堂之命公行到咸昌地曰辭疾不赴而抗疏數千言懇懇義直而不為過  
 中激發之論自 上稱以腐儒而不之罪有丙戌冬上疏乞郡 上問曰何地有闕乎銓曹教  
 某州 上曰然則擬之適得補以去榮卷三年壬辰二月呈病還家適遭兵亂公忘寢與食以  
 舉義為惡人皆感公之誠爭米赴食及丁大故公哀憾備至哀麻不脫在身時會亂雖雖有  
 識之人表紀或多苟簡而公尤加謹屬殮殯奠虞一依朱文公家禮嗚乎以公醇德懿行朝野  
 屬望而壽不滿卒位止於侍講豈非命也歟公在書殆無所不讀一覽輒記自癸亥百歲以  
 後則又專心於向裏之學尤好朱書節要及心經附註近思錄小學等書且深留意易學子

試金大儒榜中丙科芥三人權知成均館學諭是補星州教官癸酉滿選又補清州病不赴乙  
 亥陞學諭嘗以護送官承產丙子丁丑陞學錄學正戊寅春薦拜藝文館檢閱暮春秋官記  
 事官陞待教奉教冬又陞拜成均館典籍己卯春薦錄玉堂拜禮曹佐郎夏出補堤川縣監  
 辛巳八月入拜弘文館副脩撰和製教養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陞脩撰俄拜司諫  
 院正言旋迎拜脩撰又拜吏曹佐郎不旬而旋入玉堂癸未春遷拜吏曹正郎俄迎拜脩撰又拜  
 吏曹佐郎以親親還鄉假滿迎拜脩撰不赴冬陞副校理又不赴甲申春又拜副校理不赴秋拜  
 副校理仍陞校理陞副應教己酉陞應教秋以至堂次轉陞典翰蓋上特廢諸儒臣乃異數也  
 丙戌移拜司憲府執義知製教兼校書館校理俄迎拜議政府舍人呈親還鄉拜典翰不赴迎  
 拜宗簿寺僉正蓋自上年兼校正之任又拜應教適拜舍人又拜典翰戊子適拜掌樂院正移  
 拜司諫院司諫又拜執義拜應教己丑夏拜典翰秋出補清州牧使兼春秋館編修官壬辰春  
 病運賊憂起結舍義旅六百餘人于報恩之地以討賊師日忠報軍過截尚州之賊俾不得肆於湖西  
 地面者公之力異多焉癸巳五月先宜人病歿于清州周崖縣至閏十一月與弟弘微扶昇靈輜返葬  
 于先府君之原仍僞奉几筵于報恩縣鍾谷里翌年甲午六月公重患瘧氣至二十九日遂不救享年  
 五十五同年十月權葬于縣治東南炭谷蓋公真醇樂易清跡澗澹得之分不傲矯飾無  
 畦畛無表襮其接人肝肺洞然蓋若春溫瑩若冰照而性至孝事先宜人常先意承志唯恐或違  
 平生未嘗有私射雖歡會之微亦一皆稟裁惟先宜人之是遵每年佳辰令節必大張壽席遠近

朴鼎吉等希意揚臂請桎律三司爭之踰月而先海不許只命削職公退歸龍津別墅瞻劬國事  
仰屋飲泣却食不進因得疾日劇迺不起十月初九日也年五十三訃聞先海亦震悼卽命沒壽

並享

贈都承旨金弘敏字任父號沙潭本高州尚州

肅宗大王壬午追享

奉安文 在下

常享祝

學承家庭道本孝悌蹟夫言行可師百世

行狀

金楷撰

金和微撰

公諱弘敏字任父尚州人也六代祖諱尚直仕 垂廟朝官至嘉賢殿副提學高祖諱克忠  
通禮門通賢曾祖諱禮康建功將軍忠武衛副司直祖諱堯儉將仕郎考諱乾<sup>明</sup>行修玉果  
縣監妣昌寧曹氏啓功即諱湮臣之女以嘉靖庚子十月初一日亥時生公 生有美質甫六歲先  
宜人患瘧疾公亦同病雖半匙之食一掬之飲心待先宜人進乃進先宜人以病苦不思飲食而為公  
獨之為自幼少時性嗜學先府君以公氣羸年稚雖請學甚懇而不肯教誨公為之涕泣至解其  
所佩之物轉焉於同輩之先學者日有程課孜孜不輟至十餘歲已蘄然出頭角矣既冠連占科  
試華間日播而寅冬丁府君憂公過毀幾至滅性已巳眼闕秋試擢第一庚子春會試又第一殿

李好閔至則天朝遣嚴萬兩差官查問臨海病狀一日差官執 御前面質甚虛實人侍諸臣  
錯愕莫能措語光海命呂公入公趨入日以券證兄義不可差官不敢更問而退時 天朝論議紛

然不即許封李好閔留玉河累月不得請舉國違。光海命公為陳奏使公星夜無程二十七日而至

京師留五月呈辭竟得竣事而還光海大悅已酉秋復拜領議政時永昌大君璵嘗儼訛李爾瞻等

指為禍本噉三司交章請誅且言三公宜舉百僚廷爭一日光海入更衣大司憲宋諱大司諫李冲

於殿上揚言曰廷議皆以大臣不即伏閣為非不敢不告公起與恒福謀日事將若何恒福日子以首

相當斷此論若令出置閣外則我當屈首從之若如三司之論必欲罄于向人則不可不立異死生命也公曰

吾意也明日百僚伏閣以出置請光海不聽居數日爾瞻抗言於大臣曰朝議皆欲致辟而大臣只請

出置非百僚所以為宗社意也語極侵軼公笑曰已頗笑及草啟持前議不復翼日爾瞻稱疾不來

曰不可苟同公聞之笑曰不來耶人各有見可任之也獄事日急外間或傳言將廢母后甚官尹訖鄭

造於避嫌中發其議公謂恒福曰此事何可一刻容忍我心如焚今日請與君同進先以克盡誠孝慰

安 慈殿之意反復開陳以待上悟因極言此輩不道之狀悉力擊破之無遺可也恒福曰不可吾敢

辭申半天威震怒或臺諫狙擊之勢難單說彼既誣引春秋眩惑上聽此事心詢于大臣當獻議中

引經據義段 攻啟曰及永昌不可誅之義可也公諾之事未及而恒福被劾去已而 大妣父金慴男

以謀逆受誣死方議告計當否公引春秋子無絕母誓母等語辯議大愕先海允庭請取永昌子

大妣側出置江華論者必欲置之法促公先倡公道一劄以示意爾瞻輩大怒以為當廷是李性

大司諫副提學大司成史官恭議卒卽 特授禮曹叅判無大提學壬辰拜大司憲尋遣授  
西樞四月日本大舉入寇宣言欲見李宣慰議和公入對請行馳至龍仁則賊已散漫不可入還到  
湍江 大駕已西幸矣追及於平壤賊進逼湍江又情見公。片軻會于江中辭氣自若觀之曰若等  
無故興兵壞却數百年之通好是何意也玄蘇等曰吾欲假道入大明而朝鮮不許比如將入隣家  
不得先撤藩籬也公曰甬欲犯我父母之邦而脅我假道國可亡道不可假何和可議聲氣俱厲  
賊不敢復言公料此賊非本國所辦請乞援 天朝 上可其議遣公行至遼東郝巡按杰見公  
辭語慷慨卽便宜遣祖承訓等三人先嘗賊鋒皆敗還 天朝遣大發兵遣提督李如松督  
諸將東征明年春大軍到義州公以大司憲為倭伴使四月 天兵入漢陽公以刑曹判書與西臣  
柳相國協心規畫置津製器廣護屯田甲午丁酉夏冬 命起後治事公九上章不起 上曰予欲  
賊不退為慮以卿不出為憂辭旨切峻遂屯飽入朝申史判移判兵曹丙申憲史曹丁酉賊再動  
天子遣四大將以御史楊鎬監軍經理朝鮮事 上命往償之楊公謂諸將曰李階臣雖在中朝  
亦當端委廟堂而尚屈首僚不亦異乎戊戌拜右議政提督劉挺言於 上曰願得本國茅人文武  
備具者同行 上顧左議政李恒福。對曰李李某也遂命從從。喜曰吾事濟矣辛丑以都體察使  
居南宮壬寅然壬寅入為領議政癸卯移拜領中樞府事戊申

宣祖上賓梓宮在殯臨海獄起三司交章請按律光海下大臣議公與左相李恒福同辭以為宜全私恩俾  
不至死論者譁然力攻日為護送先是光海在東宮 天朝以捨長立少不許再封至是告訃使

奉安文

洪汝河撰

聖朝沈熙釀元涵精維時先生應時而生祥順其資陶偉其性理之學經綸之志黼黻  
 之文亦韞其秉陳諶發令責我休明素然德音循蹈規矩殆天降任太平是輔國運中否海  
 寇以網維時先生一死以誓去秦出師單騎赴虜奔走禦侮折衝樽俎方晉宗向厚鄭倫  
 史名聞華夏威讐南夷西先生任國小誰起天降先生意實在是黑頭大拜正色垂紳  
 巍堂為國宗臣狂昏顛覆邪議盈庭先生曰嘻我死則寧賢相有諷得毋傷勇先生  
 曰否我心如烘義有舍生忠或祈死倫藜克正校績愈偉於戲先生丙有武文不為聲章不  
 居崇勳有政有事有言有烈具茲窮美恍于大節粵指聖制昌浚明禮遺澤中斷嗟我邦  
 人瞻茲近岳溪涵嶽峙鈞遊不及素梓密邇維昔寓卷爰有舊廟曠世神交盱瞻相照  
 月堂妥侑德特在斯衿仲濟辛度禮儀假我虔誠款我築盛以揭藝則以永厥聲

常享祝

天為生賢道宛夙成功存社稷澤洽生靈

金楷撰

行狀

鄭經世撰

公姓李氏諱德馨廣州望族也以嘉靖辛酉生萬曆庚辰捷大科選入槐院旋放翰林尋  
 拜弘文館正字 賜暇書堂陞副修撰副校理秉曹正印遼授直講戊子日本使玄蘇平義  
 智未聘 上特遷公史曹正印以遣之庚寅起拜直提學秋陞同副承旨序遷至右承旨歷

乙卯司馬試旋捷同榜科等五名選補承文院副正守俄授弘文正守次陞著作轉士戊午秋以質正官朝京師選授副修撰轉吏曹佐郎有疾而辭癸亥授校書館校理移禮曹正郎甲子闔門遭禍丁內外憂夏追錄諫官禁事謫鎮安縣冬入連坐配海島丙寅秋

聖朝中興授成均直講公夙嬰嵐瘴戊辰春疾轉重三月初七日乃終享年三十有六公天性坦率不循規矧年綽弱冠學問大進文詞汪洋清健亦善隸書與大字鄭淳夫德水李擇之高陽朴仲說相友善時人謂之四傑惟日寤卷兩者詩文與自抗行于世

海東名臣條

公與朴閔等同為校理 賜暇書堂甲子在囚中據已擔下小息圍牆之中其友指其衣血曰慘矣哉洪曰此知文館水所染弘與紅同音血色紅故去鞫了還配其友又候之郊洪曰平生為學之禍一至此哉友曰若使子刮去慧智塗黨猶混寂衆為愴然一物則子亦為之手洪撫然曰患流離顛踣中人或省記者學也客路辛艱捋然無索人或繼給者學也寬伏海島神魂危悸除文墨無可娛耽學之功大矣俾我心喜惡口是非猜忌疾族托禍於世者固是學也而又自得力加彼反而思吾之有又不啻如拱壁在身謫配真實縣自必死自作銘銘云

並序

文翼公李德馨號溟陰本廣州鄉尚州

顯宗大王已酉追享

近岳書院 在州北六十里山陽縣

顯宗大王甲辰八月初六日以道內士論初達

主亨

校理洪彦忠字直卿號富菴本在林鄉尚州

贈職無

顯宗大王乙巳奉安

奉安文

金應祖撰

受天正氣為世名賢餘事文章早歲騰寥長孺好直治長綵緘淫刑益慘義氣愈烈海島瘴毒鬚髮勝昔天日重光魑魅屏跡窮賢彙征揚簡不至信道之篤成一箇是恭山非高日月非明一片丹衷萬古芳名立廟尊祀匡老明訓良辰傳儀有闕文運青衿全集禮載陳蘭有桂醕庶幾精神

常享祝

守死善道舍達如斯立懦廉頑吾黨攸師

墓碣

洪彦國撰

公諱彥忠字直卿洪氏本在溪望族遠祖有諱齋仕高麗顯皇高祖曰淳登茅官司宰監望曾祖曰得尚 贈嘉靖吏曹叅判皇祖考曰孝孫 贈資憲兵曹判書皇考曰貴達正憲左叅贊再典文衡道德文章冠一世此尚山金氏亦大姓公生於成化癸巳中弘治

近岳書院事蹟



후보

## 1. 주요 연혁

2018. 4. 27 : 제16회 연구발표회(중국 청도대학교)  
2018. 10. 13 : 제17회 연구발표회(중국 니산 성원서원)  
2018. 12. 15 : 제18회 연구발표회(한중연) 및 《총회》 개최  
2019. 03. 25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지원 대상 선정  
2019. 04. 27 : 제19회 연구발표회(한중연)

## 2. 활동

### ■ 제16회 연구발표회(2018. 4. 27, 중국 청도대학교)

- 발표 ①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채광수, 경일대)  
발표 ② 조선전기 교육정책과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건립 활동 (이병훈, 영남대)  
발표 ③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 (김순한, 영남대)

### ■ 제17회 연구발표회(2018. 10. 13, 중국 니산 성원서원)

- 발표 ①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설립상황과 서원화 과정(정순우, 한중연)  
발표 ② 선산 금오서원 건립과 제향인물 선정 논의(이병훈, 영남대)  
발표 ③ 도산서원 교육내용의 공부론(김자운, 공주대)  
발표 ④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양현 운곡영당의 치폐(채광수, 영남대)  
발표 ⑤ 청액일기를 통해서 본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김순한, 영남대)

### ■ 제18회 연구발표회(2018. 12. 15, 한국학중앙연구원)

- 발표 ① 화양구곡도와 우암학파의 도통의식(정은주, 한중연)  
발표 ② 18세기 도동서원의 도서관행과 장서관리(김정운, 경북대)

### ■ 제19회 연구발표회(2019. 4. 27,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① 공간을 통해 본 서애학의 계승양상 (김학수, 한중연)

발표 ② 향(鄕)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한재훈, 연세대)

- 연구윤리 교육 (정수환, 한중연)

## 한국서원학회 회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 <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 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 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 제3장 재정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구성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  
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투고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 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u2007.or.kr](http://www.ksu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u2007@ksu2007.or.kr](mailto:ksu2007@ksu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  
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  
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  
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  
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  
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  
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 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  
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  
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  
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  
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  
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  
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  
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I)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다.
-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증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

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 대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

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頭流錄〉, “新雨水肥, 漱石漬碎…….”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1)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2)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 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2007), pp.41-42.

정만조, 앞의 책(2012), p.22.

이수환, 앞의 논문(2015), p.17.

정순우, 앞의 논문(2013a), p.213.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17.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pp.150-153.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

다.<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 4 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제 5 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6 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 7 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제 8 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 9 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서원학회 5기(2018.3-2020.2) 임원명단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회 장 : 이수환(영남대)  
부 회 장 : 김학수(한중연)  
감 사 : 장동표(부산대), 최광만(충남대)  
총무이사 : 이병훈(영남대)  
재무이사 : 김자운(공주대)  
연구이사 : 조영화(대경대), 김종석(국학진), 옥영정(한중연),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동아대),  
김대식(경인교대), 권오영(한중연), 최석기(경상대)  
기획이사 : 조준호(경기도박물관), 채광수(영남대)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이근호(한국체육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규대(강릉대), 전라제주 김봉곤(전남대)  
경상 정진영(안동대)  
간 사 : 이신예(한중원), 김순한(영남대)

###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김학수(정치사회사, 한중연)  
편 집 위 원 : 등홍파(중국서원, 악록서원), 유재춘(문화사, 강원대),  
정우락(국문학, 경북대), 조인철(건축·풍수,  
원광디지털대), 정수환(사회경제사, 한중연),  
강봉수(윤리교육, 제주대), 이우진(교육사, 공주교대)  
편 집 간 사 : 김순한(영남대)



---

인쇄일 2019년 6월 27일  
발행일 2019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서원학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80 영남대학교 인문관 353호  
전화 053-810-3706  
팩스 053-810-4696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발행인 이수환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 50)  
회비납부계좌: 대구은행 508-12-677669-6, 이수환(한국서원학회)

---

인쇄소 삼성정밀인쇄사(053-255-3255)

#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NO. 8

June, 2019

## Contents

### Articles

Seowon Establishment Activities of the Toegye's Students ..... Kwon, Shi-Yong 5

The Indong Jang's monastery(精舍)· academy(書院)· school(書堂)  
establish activities and character of Chilgok ..... Lee, Hae-Jun 49

Toegye'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Hyang(鄉) ..... Han, Jae-hoon 65

Distribution of the Noron-line family in the Youngnam Area and  
Trend of Establishing Seowon ..... Chae, Gwang-su 91

Supplement ..... 129

Bulletin ..... 163

Association Notes

KOREAN SEOWON STUDIES ASSOCIATION

<http://www.ksw2007.or.kr> e-mail : [ksw2007@ksw2007.or.kr](mailto:ksw2007@ksw2007.or.kr)

